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4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419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 정말 어려운가

흔히들, 불교는 어렵다고 말한다. 학식의 낮고 높음,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정말 그럴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불교는 다경전 다방편의 종교다. 장경의 바다는 넓고도 깊고,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이렇게 말한다. 불법 혹은 도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다.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타력의 종교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 자기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언필칭 '해탈'의 종교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어려움을 왜 그렇게들 쉽게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

이런 문제 의식을 공개적 토론의 마당으로 펼친 단체가 있다. '불교는 어렵다?'를 주제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것이다. 그때 오간 얘기들의 몇 토막을 여기에 전한다.

"불교는 원래 쉬운데 환경과 조건들로 어렵게 됐다. 초기경전의 경우, 얼마나 소박하고 쉬운가."(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쉽다는 개념은 다층적이다. 지금 불교언어는 건조한 언어쯤으로 읽히고 있다. '수행의 불교'로 읽힐 수 있게 다듬어야 한다."(김판동, 조계종 포교연구실)

"불교가 쉬워질 수 있는 대안은 경전의 재결집 또는 재해석이다."(김광하, 경실련 상임운영위원)

(앞뒤 말을 없애고 인용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 전적으로 기자의 몫임을 밝히며, 허락없이 인용한 점, 토론자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역시 문제는 삶이다. 삶과 유리된 불교는 관념적 유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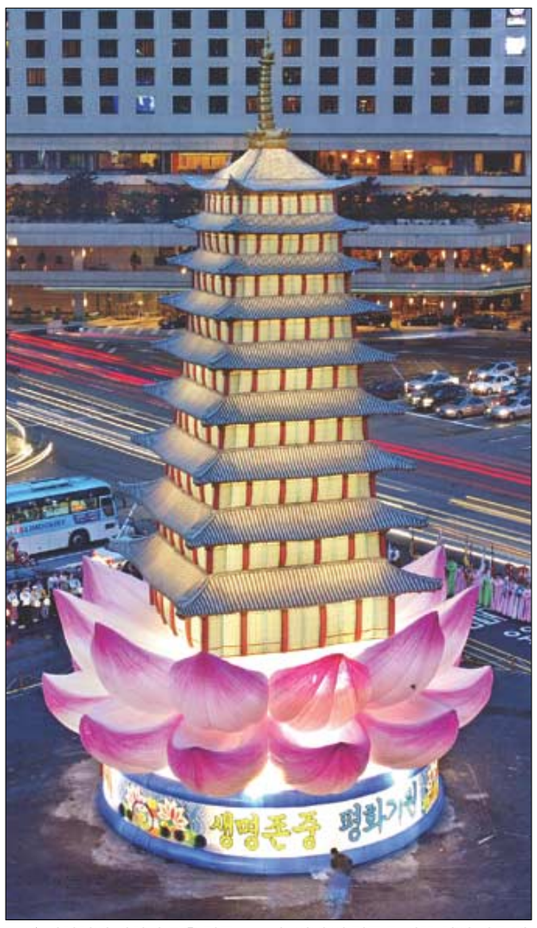
'불교는 있는데 불자는 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바꿔 나가야만 한다.

윤제학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봉축행사 '세계인의 축제'

일본 · 태국 · 대만 사절단, 외국인 근로자 등 대거참여



◇시청앞에 세워진 봉축 탑등. 15m 높이의 이 탑등은 연꽃 위에 세운 황룡사9층 목탑 양식으로, 세계 평화와 생명 존중의 염원을 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지구촌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연등축제에는 태국이 정부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외국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태국은 국가차원에서 200여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단을 구성해 올 봉축행사에 참석한다.

태국왕실마차와 같은 장엄물 제등행진
대만 불광사 돈황무용단 문화공연
국제 봉사단체 붓다워크캠프 축제 동참

태국은 연등축제기간에 자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태국왕실에서 사용하는 마차와 똑같은 장엄물로 제등행렬에 참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국제적인 등축제로 승화시킨다.

주한태국대사 인터뷰 4면

작년부터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한 대만은 올해 '불광사 돈황무용단'이 참가, 문화마당 공연과 제등행진에서 대만불교문화를 선보인다. 일본은 한일문화교류협회 차원에서 100여명의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종단 대표들도 제등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동남아 7~8개국의 노동자들은 민속공연과 제등행진 참여하며, 국제봉사단체인 '붓다워크캠프'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올 연등축제에 동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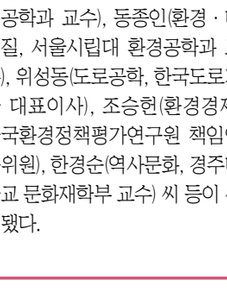
또 30여 개국의 외국대사가 참가하며, 주한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참가자도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연등축제는 이제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외국인 등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외국인 수는 매년 20% 이상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5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유일의 불교축제가 됐다. 지난해 연등축제 참가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수는 전체의 20%였다.

한명우 기자

각해 전 진각종 총인 열반

23일 총인원서 종단장으로 고결식



전 진각종 총인 각해 대종사가 21일 오전 6시 40분 서울 기로원에서 열반했다. 세수 78세, 법랍 50년.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종단장으로 열린 고결식(영결식)에는 혜일 총인, 도영 조계종 포교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김기재 민주당 연등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대정사는 "종단이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바른 길을 제시했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용맹 정진하여 진각종풍을 진작시켜 나가겠다"고 애도했다.

다비식은 자리를 옮겨 경기도 양주 벽제 다비장에서 치러졌다.

관련기사 3면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도로' 노선재검토위 구성

조계종, 이태식 위원장 교체 요구

조계종 공대위와 건설교통부가 22일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 인선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이태식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위원장)가 위촉됐고, 조계종 공대위측 위원(간사 : 조계종 사회과장 김영주)으로는 최주영(도시계획,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동종인(환경 · 대기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성동(도로공학, 한국도로기술 대표이사), 조승헌(환경경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경순(역사문화,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씨 등이 선정됐다.

건교부측 위원(간사 : 민자도로과장 장영수)으로는 김대하(도로, 동일기술공사대표), 박석성(교통, 유신코퍼레이션 전무), 이한준(경제,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순천(환경 · 생태, 동아기술공사 상무), 조인철(역사문화, 경산대 전임교수) 씨가 내정됐다.

한편 조계종 공대위와 건설교통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선재검토위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세부운영 세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조계종은 23일 이태식 위원장의 교체를 공식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청 차관청승격 법안
6월 임시국회서 심의키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위한 국회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난 · 재해 관리체계를 통합해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 6월경 제출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행자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여부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재난관리청 신설과 함께 우선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인 만큼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 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중 꽃 공양이 으뜸-
(동국대 전통불교 꽃꽂이 전수자, 박필상 합장)
011-541-7769

"불사 참뜻 왜곡행위 즉각 중단을"

불교인권위 등 'SK시주' 관련 기자회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6개 단체는 이날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찰 기부 외압 의혹과 관련, 23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사의 참뜻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사건이 해당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책임한 폭로식 수사 행위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일체의 시주 및 정당한 화주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남기 씨를 구속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불교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이 사건은 수행도량인 전통사찰이 뇌물공유의 범죄처로 인식되게 하는 등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며 "불사의 참뜻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남동우 기자

월성스님지음 | 336면 | 신국판 | 8000원 e-mail | ltbooks@hanmail.net 주소 | 대전 동구 중동 9-61번지 TEL | (042)221-8114, (02)747-2114 FAX | (042)255-7209
「행복한 삶을 가꾸는 출판사」
㈜웃는나무 LAUGHING TREE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차례
1장. 그건 들소에게 물어봐
1. 뭇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 뿔을 뽑아 버려라
3. 바보가 좋다
4. 미녀는 재판에서도 이긴다
5. 본색도류의 보물
6.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7. 남자들 것도 보고 싶다
8. 불길한 징조란 없다
9. 만약 부처님이 올빼미라면?
10. 구름에 달 가듯 스쳐만 가라
11. 생각하지 마라, 미쳐 버린다
12. 행복하게 사는 법
13. 장자부터 죽여라
14. 망할 놈의 도
15. 싸움에 이기면 사랑을 잃는다
16. 여자가 최고!
17. 스님도 울어요?
2장. 그건 스님도 몰라
1. 아이고 스님! 더 어렵네요
2. 스님도 고기 먹나요?
3. 욕심쟁이 스님들
4. 욕쟁이 스님들
5. 중은 사람이 아니다
6. 바로 말하면 벗으리라
7. 인간들 사는 꼴이라니
8. 알음알이
9. 달마 더럽다 더러워
10. 아악! 스님들 왜 이러나?
11.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12. 스님! 왜 출가했어요?
13.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14. 이상하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니
15. 여인의 몸을 보고 싶다.
16. 일류 인간
17. 선과 악
18. 스님 점치러 왔는데요
3장. 그건 딸깍 새가 알아
1. 친구에게
2. 부처님! 저 스님 나빠요
3. 참회! 그 성스러움으로 가는 길
4. 독단부재의 시대
5. 진리는 현실 속에 있다
6. 무상은 속물들이 쓸 말이 아니다
7.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
8. 일체유심조가 뭐야?
9. 그대는 왜 부처가 아닌가?
10. 지장보살은 지옥 갔다
11. 그러면 부처 아니네 뭐
12. 망상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13. 오늘밤 패지 않으면 안 된다
14. 용과 뱀-성인과 범부
15. 늑대사자의 본성
16. 부처도 막지 못한 길
17. 포대화상의 보물보따리
18. 야인마(夜人馬)
19. 감사행의 비밀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월성 스님 지음
월성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일상 생활의 우스개,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의 일화와 비유를 동원하는데 그것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데, 그 충격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 정순진교수(문학평론가)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전화 : (042)252-7208 · 팩스 : (042)255-7209 · 책은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사 설

세상 밝히는 등불이 되자

부처님 오신날을 축복하는 등 달기 운동이 사방에서 전개되고 있다. 마음의 어두움을 없애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현실적인 실존을 공고하게 하려는 구복까지 다양한 인간들의 마음이 교직(交織)되어 밤하늘을 수놓는 연등으로 탄생한다.

인고와 어둠으로 상징되는 사바세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등불을 밝혀야 한다. 살다보면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찬 서리도 내리게 마련.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역시 무상한 세계 속에서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절망보다는 희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나아가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 할 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마음의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불제자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 난민 돕기를 비롯하여 독거 내지 저소득층 생활자 위로 잔치, 양노원이나 장애시설, 기타 많은 복지시설 방문 등등. 그러나 불교도의 등 달기가 일회성이거나 충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외받는 이웃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의 등을 달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와 남이 있을 수 없다. 그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며, 그대의 불행이 나의 슬픔일 뿐이다. 한 세상을 살며 함께 호흡하고, 같은 대지를 밟고 마주 서 있다. 이것 보다 소중한 것이 또 있을 수 없다. 축제를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웃과 함께 장엄할 수 있는 초파일이 되도록 어두운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자.

문화재청 승격 연기 유감

"옳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관련 법안을 의원발의 했던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청 신설 문제와 함께 다룬다"는 결론이 나자 서운한 마음을 가누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은 문화재의 관리와 발굴, 교육을 비롯한 행정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불교계와 문화관련 시민단체들이 학수고대 하는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6월로 미뤄 버린 것은 못내 아쉽다.

물론 6월에 성사될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은 가눌 길이 없다.

현재 문화재청은 각종 행정명령과 국토개발에 있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등 1급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국가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롯되는 역사 문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사안이다. 도난과 자연재해에 무작정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보호 업무도 더 과학적이고 포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비록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재청의 승격을 긍정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깨달음에 출·재가 구분 없다"

첫 재가자 무차대회, 한국불교 정체성 진단등 의견 쏟아져

"조계종은 출가 중심, 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현재의 구조는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재가의 조직 침체나 역할 저하 등의 폐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일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는 주제로 열린 재가불자 무차대회에서 '발제에 나선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 · 재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사찰재정·교육위원회 구성

재가자도 교육·포교 동참해야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재가자 무차대회였던 이날 행사는 이욱태 부산불교교육대학 교학처장의 '한국불교의 정체성 문제' 자명스님(마하보리사 주지)의 '불교수행의 문제' 곽만연 동아대 교수의 '바람직한 신도교육을 위하여' 등의 조직, 교육, 수행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00여명의 재가자들에게 자유토론의 기회가 주어진 이번 무차대회에서는 출가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버린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를 재가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과제로 인식하기 위한 재가자들의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곽만연 동아대 교수는 "사찰재정위원회나 사찰교육위원회 등을 구성, 재가자들이 포교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재가 불자들이 전문성을 살려 시민운동, 환경운동 등 불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명스님과 지율스님은 "출가 재가의 구별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수행의 정신이 중요할 뿐"임을 강조하고 "기독교, 불교, 출가, 재가를 나누기 이전에 부처님의 정신, 깨달음의 정신을 인식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무차대회가 방대한 주제 선정으로 깊이 있는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부터는 주제를 세분화해서 재가자 무차대회를 연례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부산=천미희기자

외국인포교사 제도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밝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포교사를 육성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8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현지 외국인들을 선발,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음 포교사로 임명해 자국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종령 개정 및 교육 교수진 구성 등 외국인 포교사 양성에 따른 각종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은 소수의 외국인을 명예포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포 등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머물고 있는 해외포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명우 기자

중앙·전국신도회 통합선언

29일 원칙·방향·절차등 계획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전국신도회가 통합을 선언한다.

지난 3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통합에 합의한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29일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통합을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양 신도회는 연내 통합원칙과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통합 방향, 추진 경과 및 절차,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과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추진위원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총무부, 포교원 관계자 3인과 양 신도회 회장단에서 각각 3인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측은 4월초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여익구, 이연숙 부회장과 최연 사무총장을 추진위원으로 추천하고, 5월 17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신도회측은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손안식, 한이우, 이세호 부회장을 추진위원으로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청와대 불자회 회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청와대불자회는 24일 임시 운영회의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차관급인 조윤제 경제보좌관(51 · 사진)을 위촉했다.

청와대불자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윤제 신임회장의 위촉을 결의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등에 참가하기로 했다.

조윤제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

5월12~14일 제주도서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와 학술교류를 위해 매년 한차례 열리는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주최로 5월 12~14일 제주 약천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째 맞는 이번 대회는 '공생, 대승불교의 생명관'이란 주제로, 법요식과 세미나, 제주 성지순례, 환영 만찬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13일 오후 1시 30분 약천사 대법당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동국대 불교대학장 법산스님과 나가이싱고 스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일본측 대표로 참석하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이시 쇼겐)는 12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봉영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징계자 사면촉구 결의문 채택

승가사 시주사건 종단차원 대응 필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조계종은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14개 교구본사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종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 · 복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멸빈자 사면에 대한 율법상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사면대상자 선별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SK의 승가사 시주와 관련해 구속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에 대한 종단 차원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정상적인 시주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불교계가 뇌물을 받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종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 · 복권 촉구 결의문

우리 종단은'94년 종단개혁과'98년 종단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종단 안정을 이룩하고 이러한 종단 안정의 기반 위에 제31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종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불안한 안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종정예하께서는 신년 초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법어를 통해 "진정한 화합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사면 대상자들을 적극 사면토록 해 종단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화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으며, 제31대 총무원장 취임식 법어를 통해서도 "참회를 통해 지난날 허물을 깨닫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사면 복권의 길을 열어 종단의 중흥불사에 동참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교시하시어 승가의 제1의인 "화합"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원로회의에서도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본래는 일불제자요, 불조혜명을 이어가야 할 도반의 본분으로 돌아가 진정한 참회와 대승적 화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종단에 국민과 종도들을 실망시키는 갈등과 분열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원로들의 애정을 십분 유념해,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등 해당 종무기관들은 종단 대화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내리셨다.

또한 제155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사면촉구를 결의하였으며,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의 뜻을 받들고, 원융살림을 통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사면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징계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종단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고 원로대덕의 뜻을 받들어 우리 본사주지들도 수희 동참할 것을 밝히며, 불기 2506(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멸빈 등 각종 징계를 받은 승려 중 수행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분명하고 복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일대 사면복권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불기 2547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

급물살 타는 조계종 사면

월탄 스님 등 월주 스님 사과예방

29일 중앙종회 종헌개정에 관심 집중

법장원장, 종회·본사주지 설득 '열심'

멸빈자를 포함한 조계종의 대사면 여부가 4월29일 열리는 제15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98년 종단사태 때의 멸빈 징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사면을 통한 원융화합 종단 구축을 강조하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최근 종회 각 계파 중앙종회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23일 대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종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98년 조계종 사태 멸빈 징계자 중 핵심인 월탄스님이 22일 서울 구의동 영화사를 찾아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스님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월탄스님은 "사형(월주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월주스님도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자"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우, 성문, 원학, 현소 스님 등 멸빈 징계를 받았던 4명의 스님들도 25일 월주 스님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탄스님을 비롯한 멸빈 징계자들이 월주 스님을 먼저 만난 것은 98년 당시 정화개혁회의를 이끌며 월주스님과 대립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사면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화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스님들이 월주스님을 찾아가 사과를 함으로써 사면논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 사면은 종헌 개정 없이 사면동의건만 종회에서 통과하면 된다.

그러나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사면의지에도 불구하고 종회 내 일부 계파에서 멸빈자 사면 반대론과 함께 종헌 개정안 표결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54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로 갈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통합종단~2002년 제작이하 징계자 139명

조계종 호법부가 22일 대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보고용으로 내놓은 사면 관련 문건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이후 2002년 12월31일까지 제적 이하의 징계집행자는 제적자 83명, 공권정지자 56명 등 총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및 자료 조사 등 심사를 한 결과 제적자 23명과 공권정지자 3명 등 26명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적자 23명의 제외 이유는 혼인 15명, 사망 5명, 파렴치범 1명, 재산문제 2명 이다. 공권정지자 3명의 제외 이유는 혼인 1명, 2회연속 분한미필 1명, 해종소송 1명이다.

한편, 21일 현재 사면 신청자는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적자는 14명, 공권정지자는 37명이다.



"교직자는 안으로 교화기풍 진작하고 밖으론 사회·인류에 진정한 안락줘야"

진각종 전 총인 각해 대종사 행장

청렴·희생·봉사로 종단발전 중생교화 헌신

진각종 제 6, 7대 총인을 지내고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각해 대종사가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고결식(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생을 회향했다.

각해 대종사는 사바세계와 인연이 다함을 알고 100일 정진에 들어가 입적하루 전날인 20일 회향했다. 이 자리에서 각해 대종사는 후학들에게 "모든 교직자는 안으로 교화하는 기풍을 굳게 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인류의 앞길을 인도하여 진정한 이익을 안락을 줄 것이라."고 법문한 뒤 다음날인 21일 새벽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1925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53년 진각종에 입문한 각해 대종사는 청렴과 희생, 봉사로 평생을 산 보살의 화현이었다. 또한 50여년동안 오로지 종단 발전과 중생 교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각해 대종사는 대구 희락심인당, 서울 탑주심인당 등지에서 수행과 중생교화에 매진했다. 64년 초대 중앙종의회 부의장, 70년 제6대 통리원장, 위덕학사 이사장, 74년 제12대 사감원장, 84년 중앙종의회 의장 등을 두루 거쳤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종단의 최고 수장인 총인에 올라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산당 영철율사 입적 21일 통도사서 다비

19일, 법랍 50세, 세수 6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든 통도사 전계대화상 현산당 영철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1일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다비식에 앞서 금강계단 앞에서 열린 영결식은 명종, 개식, 청혼, 행장소개, 법어, 영결사, 추모사, 헌화, 분향,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통도사 신도회 장복만 회장을 비롯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영철스님을 추모했다.

영철스님의 49재는 2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초재를 시작으로 6월 6일 막재가 모셔진다.

천미희 기자

'하필 초파일 앞두고 발표한 의도는?'

조계종·검찰의 입장과 의문점

SK로 하여금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18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외압 여부와는 별개로 조계종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고의로 유포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외압을 행사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볼 때 외압에 의한 제3자 뇌물수수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 입장= 검찰의 생각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조계종은 우선 이 전 위원장이 SK측이 10억원을 승가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 당시 신도회장이었던 명호근씨가 SK측으로부터 직접 시주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 아닌 통례적 시주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2일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인규 부장검사를 만나 "시주금이 뇌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불교계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불교계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요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무원은 사건 발생 이후 강경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문점= 불교계는 이번 사건에서 두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외압설 사실 확인 이전에 고의로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과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건이 불거졌느냐는 점이다. 불교계는 이 전 위원장의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위원장이 SK측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공소유지가 힘들어지자, 승가사 시주금을 물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사건 발단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시점으로 택한 것은 정부나 검찰이 불교계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최소한 장관급 인사를 구속했다면 그 이전에 치밀한 내사가 진행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봤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조계종이 시주금을 뇌물로 여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의혹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검찰 SK에 뇌물교부 압력 明씨 통해 10억 받아

조계종 통상적 시주금일 뿐… 검찰주장 어불성설

의문점 사실관계 확인전 언론에 흘려, 속내 있을 것

건립중 승가사 복지원은?

10억원의 시주금이 쓰인 곳으로 알려진 곳은 8년 전부터 승가사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건립 중인 법륜복지재단 복지원(법륜사)이다. 이 복지시설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 노후복지시설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사규모가 큰 것은 모든 건물이 전통가람 양식으로 지어지는데다, 각종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계종은 이 복지원 불사가 끝날 경우 승려 노후복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부처님 오신날 봉축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TV안에 있습니다"

- SkyLife와 함께하는 불교TV시청 캠페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SkyLife란? 국내 유일의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만 갖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종교(불교TV 등),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50여개 다채널을 고화질, 고음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입니다

패키지명/채널명	채널수	채널구성
SkyFamily	112 채널 (불교TV 포함)	일반채널 : 불교TV, KBS1, KBS2, EBS, 홈쇼핑 등 영화 및 드라마 : OCN, MGM, 드라마 3개 포함 12개채널 스포츠 : KBS, MBC-ESPN, SBS, SBS골프 등 5개채널 증권 및 뉴스 : CNN, HNK, YTN, 한경와우 등 어린이 : 대교, 재능스스로 / 디즈니, 니켈로디온 (원어방송)
EDU 1,2,3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 향상과 수험생을 위한 채널	
SKY수능1,2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채널 (접시타고 대학가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 가입혜택

■ 장비료 : 3,660원 × 24개월 (24개월 의무가입)
■ 월 수신료 : 12,600원 (1년간 30%할인가) / 12개월 의무시청 (SkyFamily기준)
■ 납부방법 :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월 장비료 + 수신료 합산 청구)
■ 특전 : 1개월 수신료 및 설치비, 가입비 면제
(단, 가입조건은 월별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최 : 불교TV(btn), MBNet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SkyLife 가입문의 및 신청 : 080)997-4949

SkyLife 내 식 대 로 즐 기 는 T V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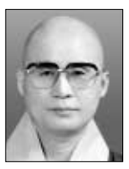
평화의 등 점등식 가져

원명 대구 사원주지연합회장은 24일 대구MBC 문화방송 앞에서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평화의 등 점등식을 가졌다.



부처님오신날 시민축제한마당

법타 영천 은해사 주지는 25일 영천 서문로타리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시민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연등축제 선포식

성오 부산시 봉축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해인사 후불탱화 점안법회

세민 합천 해인사 주지는 5월 4일 오전 9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055)932-7430



기도 800일 회향 기념행사

도법 남원 실상사 주지는 26~27일 생명평화 · 민족화해 · 평화통일을 위한 1000일 기도 800일 회향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선묵화 종림불식전 열어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5월 1~12일 인사동 물파아트센터에서 선묵화 전시회 '운수단의 선묵 세계-종림불식전'을 연다.



무등스님 취임법회 봉행

무등 광주 천룡사 주지는 21일 경내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 백양사 주지 두백스님 등을 증명법사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선서화전 '희망나누기'

현장 대구 남산동 보현사 주지는 5월 4일까지 경내 특별전시실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돕기 선서화전 '희망나누기'를 개최한다.



젊은 불자위한 특별법회

현각 화계사 국제선원 스님은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젊은 불자를 위한 특별법회'를 진행한다.



'토함산 석굴암…' 주제 강연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24일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토함산 석굴암의 점정과 그 배경'을 주제로 강연했다.



아마추어 농부 모집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생태주말농장'에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아마추어 농부를 모집한다. (02)745-7799



원효성사제향대재 봉행

이평래 원효학연구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경주 분황사에서 1317주기 원효성사제향대재를 봉행한다.(054)742-9922



인사동서 산 · 시 · 화전 개최

김양수 화백은 5월 4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故 이성선 시인의 시와 함께 산 · 시 · 화(山 · 詩 · 畵)전을 연다.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장

이경림 대광맹인불자회 사무국장은 18일 달구벌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대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왕실수레 제작…한국불자에 선뵈

봉축행사 지원 쏨분 태국대사



"한국과 태국은 불교 형제국입니다. 또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피를 나눈 동맹국가이기도 합니다."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태국 대사관저에서 만난 쏨분(61 · 사진) 주한 태국 대사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부터 강조했다. 또 올해 전 세계적인 테마인 평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자 올 봉축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연등축제에서는 현지 공예 전문가들이 직접 왕실 수레를 특별 제작해 한국 불자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내년에는 왕실 배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우정총국 주변 시민광장 일대에서 벌어지며 태국 황실 수레 마차 전시, 전통무용단 공연, 전통악기 연주, 특산품 판매 및 전통 맛사지 시범도 선보이게 된다.

쏨분 대사는 이번 봉축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 홍보에 이르기까지 직접 행사를 챙겨가며 마지막 열정을 쏟아냈다. 김철우 기자



교화 등 교도소 포교에 헌신

만오 스님 대통령 표창 받아

만오 대한불교 법인종 총무원장(사진)이 22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스님은 재소자 교화, 비행청소년 계도, 결식 아동 돕기 등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나선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만오스님은 10년전 강력범 7명을 합동결혼시켜 새 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교도소 포교에 헌신해 왔다.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스님, 무공 태고종 포교원장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오른쪽부터) 등이 금오 스님의 진영을 감상하고 있다.

북한 최고예술로 나투신 큰스님

법련사서 '근세고승진영 자수展' 열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과 현대불교신문사는 22일 법련사 내 불일미술관에서 20세기 한국불교의 고승 20명의 진영을 전통 자수한 '아! 큰 스님-북한 만수대창작사 作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 근대 불교사를 이끈 20분의 큰 스님들이 북한 최고의 예술로 거듭난 이번 전시 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를 넘어 승보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경배심이 절로 난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남한의 불교와 북한의 예술이 만난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문화의 무궁한 자원들을 현대적으로 개발해 민족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운 동국역경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혜초 태고종 前 총무원장, 무공 태고종 포교원장, 오경 법련사 주지, 탁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자용 수국사 주지, 범일 평해사 주지, 수진 용화사 주지, 김규철 불교방송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청소년 국제교류 이바지"

신임 청협회장 현성 스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커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외 청소년 단체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정기총기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 사진). 스님은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 실시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 한국 청소년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대원불교대학 법사품수식

대원불교대학(이사장 장세우)은 20일 3층 큰법당에서 2003년도 법사품수식을 개최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인환스님 등 12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품수식에서 장세우 이사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데 법사들이 책임이 크다"며 "불국정토를 만드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웃돕기 성금마련 일일찻집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는 18일 서울 보문동 팡세에서 2547년 부처님오신날 장학기금 · 이웃돕기성금 마련 일일찻집을 열었다.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일일찻집에서 회장 정수스님은 "차 한잔의 여유가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한 이웃의 어깨에 희망의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삼존불 점안

가평 맹호부대 호국 연호사는 19일 '지형 스님 초청 장병 수계대법회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지형 소림정사 주지와 박경서 맹호부대장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형 스님은 "염불과 참선을 하거나 독경할 때 계를 잘 지키면서 일념으로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법문했다.

"환경문제 등 대안 제시할 터"

광주·전남 불교연대 행법 스님



"그간 사회참여 운동을 주도할 만한 불교단체가 없어, 불교계가 제대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반성에서 출범됐습니다."

최근 '평화실천 광주 · 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에 선출된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사진)은 "평화, 생명, 인권, 환경 등 4대 영역에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6개 분과별 모임을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각계 전문가를 초빙, '대화마당'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교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www.buddhaschool.or.kr)

30년전통의 대원불교대학이 불교 사이버 대학을 개교합니다.

◆불교계 석학들의 강의가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으로 전달됩니다.
◆정규대학과 같은 교과과정으로 체계적인 배움의 장을 열어갑니다.
◆인터넷상에서 모든 강의와 학사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불교를 공부할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강의

과 목	담 당 교 수	교 재	학점	강의배정시간
초기불교의이해	최봉수 교수	디가니카야	3	45시간
부파불교의 이해	허경구 교수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3	45시간
비교종교학	김종욱 교수	불교와 기독교 외	3	45시간
불교의식실수	마일운 스님, 김범준법사	불교 의식집	3	45시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5월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시모집
▣ 장학혜택 불교사이버대학 개교기념으로 특별한 장학혜택을 드립니다.(1학기 정규과정 기준)
▶종단협의회 소속승려: 50% 5만원 ▶교 사 불 자 : 50% 5만원
▶대학생불자 : 70% 3만원 ▶일반불교신자 : 30% 7만원
▣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법사고시 합격자)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문 의 처 본 대학 교무과 ☎(02)754-1613, 773-9171 / FAX(02)756-7258
서울 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불교사이버대학 (2년제) www.buddhaschool.or.kr

"모처럼 바깥 나들이…신나기만 해요"

수원 포교당, 장애우와 함께 화성순례

"모처럼 바깥 나들이를 하니까 좋네요. 교통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난 뒤로, 엄두도 못 냈는데…, 신나기만 합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정홍만 씨(42, 지체장애2급)가 말했다.

20일 수원포교당 불교학생회(회장 신동훈)가 창립34주년과 제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원 지역 장애인 200여 명을 초청, 수원 산성 순례 자리를 마련했다.

10시, 장애인들은 궂은 날씨에 머뭇거렸지만 오늘 만큼은 길을 나섰다. 바라보는 데만 만족했던 수원산성을 밟아보고 싶어서였다. 오르막에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내리막에선 내딛는 발걸음이 버겁다. 그래도 표정만은 즐겁다.

"10년 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몸 왼쪽이 마비됐죠. 손과 발이 돼 주는 학생들이 너무도 고맙네요. 평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수나 있었겠어요?" 최민호 할아버지(62)는 부축해주는 준이(15 · 동수원중2)가 오늘은 발이 되어준다며 기뻐한다.

40여 분쯤 지났을까. 힘겨워 길가에 주저앉은 송명옥 할머니(67)가 눈에 띈다. 학생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연신 '괜찮아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잠시 쉬었다 가면 돼,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가봐'라며 학생들의 손을 되잡는다.

이어 점심시간을 겸한 장애인 한마당 시간. 몇몇 장애인이 가수 뺨치게 노래를 부르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수원포교당 연꽃어린이 팬플릇 반이 '반갑습니다'를 공연하고, 연이은 노래자랑에 학생회원들과 장애인들이 어울려 춤을 춘다. 이날은 스님, 장애인, 불교학생회원들 모두가 하나가 됐다. 장애라는 굴레를 벗어던져 버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서로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은 "장애인의 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철우 기자



◇수원산성 나들이에 나선 수원포교당 불교학생회원들과 장애인들. 봄비를 맞으면서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파병찬성 불자국회의원

봉축행사 초청반대

반전평화 불교대책위가 봉축위에 '파병 찬성' 불자 국회위원들을 봉축행사에 초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불교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는 2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앞으로 전달한 호소문에서 "이라크 전 한국군 파병 문제는 국익 차원 뿐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문제"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 실은 배 띄워라"

5월6~8일 한강연등제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한강이 연등으로 수놓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불교TV와 불교TV문화원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에 연등으로 장엄한 배를 띄우는 '한강연등제'를 연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는 배 위에 설치한 15m의 탑에 발원을 담은 연등을 달아 한강에 띄우는 것이다.

한편 '한강연등제'에 연인등을 신청하는 불자들에게는 영화 '동승'의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02)6000-7777

여수령 기자

울진 속사댐건설 백지화 될듯

환경부, 왕피천 연내 생태보전구역 지정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 수행환경 침해 논란을 빚어온 속사댐 건설이 왕피천 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백지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최근 왕피천 유역을 올해 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이 규제돼 속사댐 건설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불교계에서는 왕피천에 속사댐이 건설되면 불영사에서 직선거리로 1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수행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부 이유억 사무관은 "왕피천 유역이 대부분 국 · 공유지여서 지역주민동의 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속사댐 건설 백지화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왕피천의 중류를 막아 118m 높이의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남동우 기자

고양 세계꽃박람회…꽃으로 활짝 핀 '3층탑'



2003 고양 세계꽃박람회가 24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막됐다. '꽃과 인간의 환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꽃 박람회는 5월 8일까지 지속되며 국내 · 외 38개국 241개 업체가 참가,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꽃과 화훼 기자재 등을 총망라하는 세계 화훼인의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사진은 박람회장 앞 사거리에 3층탑 모형의 꽃탑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TV, 봉천동 시대 개막

20일 무상사 개원 대표이사에 성우스님

불교텔레비전(회장 성우 스님)이 20일 봉천동 새사옥의 무상사 개원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천동 시대를 열어간다.

이날 점안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TV는 이번 사옥 이전을 '제2의 개국'으로 삼아 질적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TV 새사옥은 연건평 125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다. 불교TV는 25일 제42차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성우스님을 선출했다.

여수령 기자

경부고속철 대안노선검토위 2차 실무회의

명칭문제 등 입장차이 못 좁혀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간 대안노선 검토위 구성과 관련한 2차 실무모임에서 대안노선검토에 참여할 전문가의 범위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명칭문제 등 원론적인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고속철시민 · 종교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고속철 2단계 구간 노선 재검토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재검토위의 명칭과 운영기간, 운영위원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에서 건교부와 대책위는 교통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 6명, 정책위원 4명 등 10명의 운영위원을 각각 추천해 20명의 위원과 위원장 등 모두 21명으로 재검토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위원장은 양측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해 합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또 재검토위 운영기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의 명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대안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명칭을 '노선 검토위원회'로 하자"는 건교부측의 제안에 대해 시민종교대책위는 "명칭을 '대안노선 검토위원회'로 해야만 재검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기자

재가연대 영문홈피 오픈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영문 홈페이지(www.buddha21.org)를 오픈했다.

재가연대 국제협력위원회는 22일 재가연대의 활동 및 한국 참여불교운동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참여 불교 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재가연대의 비전과 사명, 역사, 부설기관, 조직도, 회원단체 및 임원진, 활동, 이슈 및 활동, 논평, 성명서가 게재돼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새만금 방조제 즉각중단하라

수경스님등 갯벌생명파괴 참회 행사

삼보일배 28일째인 23일 부안 해창갯벌에서 150km 떨어진 충남 홍성 대인휴게소.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경일 교무(새만금 생명살리는 원불교사람들 대표), 이희운 목사(기독생명연대 사무처장)를 격려하기 위해 4개 종교인들이 모였다.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진월스님 등 4개 종교인 300여명은 '새만금 갯벌생명파괴 참회의 날' 행사에서 "농지확보를 위해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며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도 행사에서 불교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금 당장 생명살림에 기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도 19일 삼보일배단을 방문, 종단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남동우 기자

LOVE·IN NONI
러브 인 노니
"행복한 삶을 위한 노니"
노니(noni)란...
안녕하세요
러브인 노니코리아
대표 법련화입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태평양에서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노니'라는 열매의 효능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대표 법련화 합장
노니는 어떤 열매인가요?
노니는 2000면동안 민간 요법으로 애용되어온 열대과일 노니를 100% 원액으로 만든 건강하게 살고싶은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노니(Noni : Morinda Citrifolia)는 2000년 동안 화산성 토질의 플리네시아, 피지, 남태평양 군도, 티이티(Tahiti), 하와이,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알오베라, 켈프, 파파야 파크노제놀과 함께 민간요법의 전통 약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니의 학명은 모린다 시트리폴리아(Morinda Citrifolia)로 인도에서는 인도 뽕나무, 중국에서는 바지티안, 카리브 해안 지방에서는 진통제나무, 호주에서는 치즈 과일, 타이티에서는 노노, 하와이에서는 노니라 불리며, 한국의 동의보감에는 해파극(海巴戟)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니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노니는 오랜 세월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온 전통 약제로 저희 회사의 Bula Noni는 지상 최후의 청정 지역인 피지의 천연야생 노니로 만든 100% 원액 엑기스입니다. Bula Noni는 열처리 방식이 아닌 전통 숙성법에 의해 생산되므로 영양분 손실이 없는 최고의 원액 100%입니다. 유황 성분이 풍부한 화산 주변에서 자생하는 노니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Bula Noni는 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국도의 80%가 열대 우림 지역에 속하는 피지의 무공해 천연야생 노니로 만들어집니다.
Bula Noni는 proxeronine의 중요한 성분과 proxeronine로 부터 xeronine를 공급하는 효소를 포함하는 알칼로이드의 활동적 양식인 XERONINE의 자연스러운 생산을 돕습니다.
노니는 정말 100% 원액인가요?
노니는 원래 그 맛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스와 섞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Bula Noni는 인공감미료나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원액 100%엑기스만을 생산합니다. Bula Noni는 순수 100% 엑기스이기 때문에 질병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Bula Noni는 건강하게 살려는 모든 현대인들이 일반 음식으로 부터 취하기 힘든 Xeronine이란 성분과 기타 인체의 면역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영양 성분의 섭취에 필요한 건강 보조식품 입니다.
노니는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관절염
◇ 아토피성피부염
◇ 당뇨
◇ 위장질환
◇ 고혈압 두통 및 통증
◇ 암
◇ 알레르기성 비염
◇ 불면증
◇ 간질환 신장병
◇ 갱년기 장애
※ 궁금 하신 불 자님들 은 문 의해 주 시면 정성껏 상담해드 립니다.
러브인노니 코리아 상담 : 02)534-9264 www.loveinnoni.com
총판, 대리점, 주부사원 모집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이 불교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로써 진각종은 유지재단을 비롯해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등 4개 법인체를 운영하게 됐다.

진각종은 경주시 산내면 거주 교직자와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주시로부터 지난 3월말 설립 인가를 받아 창립총회를 열고 영농조합법인 '농림촌'을 설립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진각종 대구교구청장인 진산 대정사(중앙종의회 의장)가 맡았으며, 관천 정사(대구 경전심인당 주교)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6일 비공개로 열린 정기 중앙종의회에서도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과 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밀교수행도량 건립을 위해 98년부터 부지 매입에 나선 바 있는

진각종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설립

대표 진산대정사 "가족휴양시설등 종합복지타운 운영"

경주 산내면 농지·임야 35만평 확보

연수원·캠프장·자연학습장 등 갖춰

진각종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대의 농지와 임야 등 35만여 평을 확보, 이 지역의 농업문화 개선과 농촌 소득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지진불사(기공식)를 봉행한 산내연수원을 비롯해 캠프장,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 눈썰매장, 자연체험 학습장, 수련의 숲 공원 등도 영농조합법인 '농림촌'의 첫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농림촌'은 이 지역을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과 가족휴양시설, 노인복지 시설, 전시시설 등을 갖춘 종합 문화·복지타운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와 진각복지재단과의 연계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설립 업무가 일부 교직자를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단내 일각에서는 지난해 종조 회당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벌였던 사업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또 밀교수행과 진각공동체 구심점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총본산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견해도 있다.

진각종 관계자는 "영농조합법인은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고 위상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관광 농원·국민휴양지 운영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진각복지재단과 연계한 종합 복지수련타운 건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소재지 관청의 인가를 얻어 결성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법에 의거 직접 농업을 경영하거나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작업 대행,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

박봉영·김철우 기자

53사단 신교대 군법당 낙성

천태종, 호국흥국사에 30일 삼존불 봉안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대 군법당인 호국흥국사는 30일 삼존불 봉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 한민구 53사단장 등 불자와 군장병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천태종이 건립 비용을 전액 지원해 철근 콘크리트 양식으로 건립된 호국 흥국사는 2층 총 330평 규모로, 2001년 3월 착공해 2년 2개월여만에 완공됐다. 대웅전과 요사, 장병 휴게실 등을 갖추고 53사단 신병교육대대 입대 장병과 기간병의 신행, 휴식공간으로 활용돼 군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태종은 부산 삼광사를 호국흥국사의 후원사찰로 지정해 매주 법회와 불사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3사단 신병교육대대는 그동안 3백여명의 군장병이 참가해 매주 한 차례 법회와 매년 군장병 천도재를 여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으나 법당이 낡고 비좁아 병사들이 야외에서 법회에 동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봉영 기자

승니교육법 새로 제정

미륵종, 임시중앙종회

한국불교미륵종이 종단 승려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다.

한국불교미륵종은 22일 서울 총무원에서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승니교육법을 제정하는 한편 승려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제정된 승니교육법은 종단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2년간 수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에 따른 법계 승급도 담고 있다. 특히 대덕 이상의 법계는 반드시 법계고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승려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미륵종은 앞으로 승가고시법, 법계법, 의제법, 신도교육법 등도 제정해 종단 교육체계를 세워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지난 3~5일 열린 현해탄 용왕수륙대제 보고건이 다뤄졌다.

박봉영 기자

최전방 OP밝힌 '평화통일기원 연등'

태고종과 진각종, 관음종이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휴전선 최전방OP에 연등을 각각 점화했다. 태고종은 22일 6사단 월정리OP에서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다(사진 왼쪽). 진각종도 24일 25사단 509연꽃OP에서 연등을 점등했다(사진 오른쪽). 18일에는 관음종이 5사단 열쇠전망대에서 연등을 밝혔다.





게시판

행사 ▲(사)우리는 선우는 5월 10일까지 서울 장충단 공원과 동국대 입구에서 자비의 등 행사를 벌인다. 또 환경과 평화,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사진전도 곁들어진다. 수익금 일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02)2278-8672~3

▲문화답사 모임 '터 사랑'이 어린이날을 맞아 특집기행을 마련했다. 4일에는 수원 융·건릉, 용주사, 수원화성 등을 답사한다. 5일에는 전남 함평나비축제를 관람, 미꾸라지 직접 잡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한다. (02)725-1284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사거리와 물빛공원에서 '가족 사랑! 어르신 공경!'이란 주제로 거리캠페인을 벌인다. (02)385-1351

강좌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오후 1시 복지관 4층 프로그램 3실에서 '연등 만들기 체험교실' 강좌를 연다. 대상은 지역 주민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421-6077

▲두레생태기행은 5월 5일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답사를 떠난다. 장소는 서해안 영흥도.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초구청 정문. 8일에는 문경 봉암사 문화답사도 진행된다. 집결지는 같은 장소, 참가비는 3만5천원. (02)712-5812

모집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대상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02)571-2988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30일까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한다. 활동내용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청소년지도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1통, 팩스나 이메일 원서를 접수받는다. (02)723-6165

구인 ▲연꽃마을 용인요양원은 직원을 구한다. 생활지도원 2명, 사무원 1명, 간호사 1명 등으로, 충원시까지 모집한다. 접수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031)334-3677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를 30일까지 구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1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 구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각각 1통. 접수방법은 우편접수,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043)652-0900~3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태고종

풍담대사 사리함 발견

태고종 김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에서 사리함이 출토됐다. 사리함은 내·외합을 갖춘 전형적인 사리함으로, 외합은 직경 45센티미터 크기의 돌함이며 내합은 분청사기로 되어 있다.

사리함은 김포시에서 부도탑의 기울림을 바로 잡기 위해 해체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견됐으며, 경기도 박물관으로 이관됐다.

천태종

미아찾아주기 캠페인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은 5월 4, 8일 종로 불교문화마당과 서초 양재역에서 '미아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봉축행사시 발생하는 미아를 신고받는 '미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행사 당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아발생 예방용 '명찰 달아주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아사진 및 미아발생 예방 방법, 미아 발견시 대처요령 등이 담긴 홍보지 5천부도 제작, 배포한다.

광주 금광사 합창단 창단

천태종 광주 금광사(주지 래장)는 22일 40여명으로 구성된 금광합창단을 창단, 기념법회 열었다. 지역 불자와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열린 법회에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해탈의 기쁨' 등 10여곡을 발표했다.

마정심 단장은 "대중에게 불음을 전하는 보살행으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합창단으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진각종

스승 11명 기로진원식

진각종은 17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평생 중생교화와 수행정진에 매진해 온 스승 11명의 기로진원식(스승 퇴임식)을 봉행했다. 이번 기로진원식은 도흔대종사, 지회심 대종사, 복선정 대종사 등 11명의 종단 원로 스승들의 위덕을 기리고 일선 교화의 공덕을 회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효암 통리원장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한량없는 높으신 법문을 전해 주시어 후배들의 신심을 다독거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지종

제61회 춘계강공회 개최

총지종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61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공은 승단화합과 종단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재단이사회, 원의회, 승단총회, 합동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의회, 종의회, 승단총회에서는 교직자 및 종무원에 대한 처우문제와 관련 법규 개정, 괴산수련원의 복지관 활용방안, 법황사 헌공불사, 수명관정식 등 종단 현안에 대한 토론이 전개됐다.

조동종

혜광사 중창불사 회향



조동종 대구 혜광사는 21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아미타부처님 점안 봉불법회를 열었다. 1부 점안의식과 2부 봉불법요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총무원장 심월스님, 감찰원장 정림스님, 포교원장 법공스님, 대구시 이상학 남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무량종

혜안스님 법어집 출간



무량종은 11일 하동 칠보정사에서 종정 대행인 혜안 대종사 법어집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육법공양, 오방예경, 삼성각 낙성 및 점안, 법어집 고불 순으로 진행됐다.

訃 告

靈鷲叢林 通度寺 傳戒師 玄山堂 永哲大律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7년 4月 19日(陰 3. 18日) 00:05時 靈鷲叢林 通度寺에서 圓寂에 드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永訣日時 : 佛紀 2547년 4月 21日(陰 3. 20日) 10時
● 永訣場所 : 靈鷲叢林 通度寺
● 茶 毘 場 : 靈鷲叢林 通度寺 茶毘場

玄山堂 永哲 大律師 靈鷲叢林葬 葬儀委員會

● 證 明 : 법전, 서옹
● 葬儀委員長 : 초우
● 葬 儀 委 員 : 성파, 원명, 태응, 목산, 월파, 명정, 혜남, 진철, 천진
● 護 喪 : 성타
● 執行委員長 : 현문
● 執 行 委 員 : 말사주지, 선덕 및 한주, 산내암자 감원, 신행단체장
● 都 監 : 산응
● 秉 法 : 법성, 광해, 일송, 세봉
● 儀 典 : 정도, 오심, 삼해
● 知 賓 : 덕원, 강원학인 6명
● 財 務 : 보화, 현담
● 接 受 : 현기, 현담, 진무, 선오
● 挽 章 : 도승, 청운, 중선, 동원, 상호
● 駐車 및 案內 : 자고
● 弘 報 : 우진, 원오, 광우
● 茶 角 : 학인 5명
● 侍 者 : 학인 5명
● 院 主 : 지범
● 別 座 : 학인 3명
● 門 徒 代 表 : 명신
● 恩 法 上 佐 : 명일, 명안, 지암, 서암, 성암, 지문, 도원
● 孫 上 佐 : 수운, 자견, 보인

■ 문의처 :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영축총림 통도사

玄山堂 永哲大律師 靈鷲叢林葬 葬儀委員會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작은학교 운동회 날.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웃한 산내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경기를 가졌다. 작은학교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그리고 동생들까지 한몸으로 어우러졌다.

◇'이라크 어린이' 돕기 바자회. 아이들이 내 놓은 물건은 금방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고, 성금통에는 적지만 소중한 돈이 소복이 쌓였다.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

실상사 작은학교를 가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과서와 가장 넓은 교실을 가진 아이들. 실상사 '작은학교(중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리산 그 넓은 자락을 뒷동산 삼고, 실상사 뜰을 마당 삼고 있으니 어찌 달리 이를 말이 있겠는가.

지난 20일, 작은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길래 기꺼이 구경꾼이 되기로 했다. 여명을 헤쳐 전라도 고을 남원을 향하는데, 3일째 계속되는 봄비가 그치지를 않는다. 내심 불안했다. '허탕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자연의 아이들이 이 정도 비에 움츠러들진 않을 거야.'

아무래도 좋았다. 사실 운동회 구경이야 구실이었을 뿐, 취재의 근본 목적은 작은학교의 그 작은 몸짓이 과연 '대안'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으므로. 비록 눈에 비치는 건 '몸짓'이겠지만, 그 몸짓 사이사이로 그것을 낳은 그네들의 내면을 읽어 보기로 했다.

예상은 반쯤 맞았다.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놀이는 취소됐지만, 이라크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바자회와 축구경기는 진행한다고 했다.

바자회 후 봄비 속 축구경기
스스로 밥짓고 텃밭도 가꾸고

귀농학교 생활관을 빌린 바자회장. 아이들이 내 놓은 물건은 다양했다. 거저 줘도 가져갈 것 같지 않은 낡은 장난감에서부터 읽고 난 책, 양말과 티셔츠 등.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는 성금함에 알아서 돈을 내는 방식이었다.

바자회는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아이들 특유의 민첩함과 소란스러움 속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도 개의치 않을 분위기 속에서. 그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았다.

이런 틈틈이 기자라는 직분이 강요하는 남 괴롭히기를 시작했다. 대표 교사인 이경재 선생님에게 곧장 물었다.

"과연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실험은 아닌지, 현실 부적응자를 만들지는 않겠는지, 혹은 여유있는 자들의 또 다른 호사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담고서.

"당연히 대안이어야 합니다."

대답은 단호했다. 묻는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은 듯이. 잠시 침묵.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이 이어진다.

"현재의 제도 교육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인격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교육은 수단이 아닌 가치의 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전인격적 존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기심 채우기의 강함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자각하고 더불어 사는 강함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역 주민의 집을 빌린 생활관에서 스스로 밥을 지어먹고 날마다 2Km씩 학교를 오갑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고요."

아이들의 행동은 스스럼이 없었다. 전체 모임 틈틈이 웃고 떠들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특별한 통제는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세를 거스르는 이런 원시적(?)인 교육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서로 나누고 이해해 주는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다." (3학년 김은희)

"꽉 짜인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간다. 일반 교과목 공부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노력으로 극복하면 아무 문제없다. 우리는 체험학습 시간에 배운 나무 다루기 솜씨로 우리 학교의 나무 화장실을 지었다." (2학년 최근혁)

학부모들의 생각은 또 어떨까.

"작은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공교육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곳의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이 함께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학부형 이진광, 45)

모든 정의가 그렇듯 교육 또한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 수만큼일 수 있다. 그 중 하나. "교육은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작은학교의 실험은 성공인 듯 보인다.

간간히 꽃잎과 함께 내리는 부슬비 속에서 축구공과 뒹구는 작은학교 아이들. 엄동을 이겨낸 푸른 보리밭 같다. 1학년 11명, 2학년 14명, 3학년 12명에 선생님 10명. 다 합쳐야 일반학교의 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 그들 모두는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깨달아 가고 있었다.

남원=윤제학 · 사진=고영배 기자



"교사는 수행자여야 하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철학담당 **강은화** 선생님

한달 50만원의 보수로 교사, 학부모, 때로는 파출부 노릇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이나 '보람' 따위를 묻는 짓은 언어 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했다.

–행복하십니까?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문현답이라 하겠지.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행자가 교사여야 합니다. 마땅히 교사는 수행자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처절하게 바라보는 일이니까요.

이런 선생님과 함께라면 작은학교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분명 인격과 인격의 만남일 것 같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실험형' 불교계 유일…2001년 개교

대안학교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여부와 교육 형태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형', '실험형', '비상설' 형태인데, 학교형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력이 인정된다. 현재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5개교다.

실험형은 중학 5여곳, 고등학교 3여곳으로 학교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나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형태다. 작은학교도 이 범주에 든다.

현재 기독교계의 대안학교는 15곳 정도이고 불교계에서는 2001년에 개교한 실상사 작은학교가 유일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미래의 부처를 키우는 대안교육이야말로 인재불사다. 조계종 교구본사마다 1개의 대안학교를 세워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날 것이다. 대안 교육을 통해 불교의 희망을 찾자"고 말한다.



◇2학년 학생들이 지난 겨울에 지은 자연 환원형 화장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치료 위한 배아복제 허용 가능”

‘생명윤리법안’ … 불교계 입장

부처간 이견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18일 확정됐다. 국무회의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5년여 동안 숱한 논쟁을 불러온 생명윤리법 제정이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그러나 난치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 복제 허용을 요구해온 의·과학계와 달리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복제도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 주요 쟁점사항

쟁점사항	김홍신 의원 안	이상희·이원형 의원 안	김덕규 의원 안 (천주교 안)	정부 안
명 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	생명윤리기본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인간개체복제	전면 금지	전면 금지	전면 금지	전면 금지
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다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시 예외적 인정 –진행중인 연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가능	원칙적인 금지를 하지 않고, 연구허용범위를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 –질병치료 및 이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에 한함	전면 금지	연구용에 한해 허용
이종간 교접	원칙적 금지 –다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시 예외	직접적인 규제 규정은 없음.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용범위 결정	전면 금지	질병치료 연구 목적일 경우 허용
생명윤리위원회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	심의 결정 기구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생명윤리법 제정 추진 배경

국내에서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9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에 의해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데 이어 1999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복제소 ‘영롱이’가 탄생하면서부터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세계 최초로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안조차 없는 국내에서도 인간복제 금지 등 생명윤리 관련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추진 현황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은 모두 4개다. 인간개체 복제만을 금지한 이상희, 이원형 의원 안과 인간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 허용을 둔 김홍신 의원 안, 그리고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장 김덕규 의원이 인간배아복제를 전면금지하고 인간과 동물간 또는 동물간 교잡을 통한 이른바 ‘이종간 교잡’을 금지하는 가톨릭안을 그대로 수용해 지난 3월 제출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있다. 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한 정부 안이 제출되면 5개 법안을 한데 묶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쟁점

정부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윤리법안은 인간복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의 원칙적 금지다.

과학자들은 체세포를 복제하여 만들어낸 배아세포에서 줄기세포(장차 간이나 폐 등 각종 장기로 자라날 수 있는 세포)를 추출, 배양해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하면 면역 거부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간배아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피할 수 없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기관들이 형성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태아 과정을 거쳐 인간이 태어난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은 장차 인간으로 탄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배아를 인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수정순간부터 생명체…조작 살생행위
타존재 ‘해치느냐 아니냐’가 판단기준
“고통 덜어줄 수 있다면 선택할 수 밖에”

◇배아복제에 대한 불교의 시각

개신교와 가톨릭이 교단 차원에서 생명윤리기구를 가동해 생명윤리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비해 불교는 배아복제 등에 대해 분명하고 공통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불교가 원칙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윤영해 교수(동국대)는 “과학자들은 최소한 척추선이 나타나고 간이나 폐 등 내부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인 14일 이전의 배아는 생명체라기보다 하나의 ‘세포 덩어리’라고 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불교 정통 교리에서는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배아복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동국대) 역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생기는 순간 전생에 사망했던 중음신인 간다르바(gandharba)가 결합돼 생명이 된다”며 “배아복제는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살생의 업을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아를 온전한 생명이라고 보면서도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교수는 “복제기술 자체를 두고 선악을 논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복제기술 허용여부는 다른 존재를 헤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도 불교에서 볼 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 남, 즉 수정란을 헤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말한다. 단, 윤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도 배아복제가 생명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확보된다면 치료를 위한 복제 연구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이라는 단서를 단다면 배아복제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살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살생이므로 용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진 스님(전 동국대 교수)은 “신에 의존하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배아를 죽이는 것은 나쁘지만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을 낫게 해 줄 수 있다면 결국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다.

불교 윤리 전공의 안옥선 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생명복제 자체의 가·부를 떠나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 문제도 중요하다”며 “생명윤리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지현
한국JTS 사무국장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것

‘덜 쓰고 안 버리는’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더 베풀며 살고 있어요

JTS는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국제구호단체로 인도, 북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를 돕고 있다. 한국 사무실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는 하루 1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해오면서 얻은 깨우침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건강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할 줄 알며 a, b, c도 알고 경험한 여러 가지의 사소한 것들이 세계빈민지역에서는 조금 노력하고 익히면 곧바로 교사가 되고, 의료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의료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박경미님이 JTS 지바카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환자들이 병원 앞에 벌써들 줄지어 있네요. 아이 한 명은 배가 몹시 아프다고 와서는, 선생님을 기다리다 얼마나 아픈지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지바카 병원이 없었다면, 오늘 의사가 안온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 봅니다.

곪은 상처를 째고 치료하는 데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어금니가 부러져라 입을 다물고 있는 나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지금까지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결핵약을 가지러 오지 않아 직접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어찌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약을 가지러 와 주는 것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들과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풍족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마도 어려운 환경 탓에 단지 몸이 허약하고 헐벗었을 뿐, 오히려 이들에게는 떳떳하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그대로 불평도 불만도 없이 마치 물 흐르듯이 살고 있는 이들. 물질은 풍족하지만 정신은 빈곤한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느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고는 있지만 이들이 안쓰고 안 버리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후원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으로,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돈으로, 그리고 이들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핵환자들이 결핵약을 가지러 오지 않을 때,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야 할 때 가끔은 ‘이렇게 해야 하나’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내 부모, 형제라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간단해 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약을 가지러 오지 않는 환자 집에 약을 주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새벽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비용을 치르며 헬스 자전거도 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인도에서 약도 전달하고 운동도 하고 참 좋구나, 근데 그 환자가 내가 운동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새벽부터 웃어봅니다.”

2003학년도 후기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1.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하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4년제 학위 과정입니다.
2.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105학점, 명지대학교 시간제 이수로 35학점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 인적자원부장관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
3. 진 로 : 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대학에 편입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가능.
4. 모집전공 및 인원
   ◆목조각전공(목조각, 소목, 대목, 옻칠공예) 각 10명
   ◆직물공예 전공 (염색, 자수, 침선, 매듭공예) 각 10명
   ◆단청 전공 (불화, 단청, 민화) 각 10명
5.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전문대 졸업자, 대학졸업자.
   ◆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 이수자, 전수생(이에 해당자는 조기졸업 가능)

2003학년도 후기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세분화·정보화 되어가는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1. 모집전공 : 목칠, 공예화(단청 민화), 직물공예(침선, 염색, 매듭) 2.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 3. 특전 및 제출서류 ① 전공분야 경력자는 입학특별전형 ② 전공관련 기술자 자격시험 응시가능 ③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졸업증명서	1. 모집전공 : 공예관련 모든전공 2.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특전 및 제출서류 ① 본 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부여 ② 본 과정의 수료동문은 본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취득 ③ 본 과정의 수료자는 동일계열의 정규과정 진학시 우선권 부여 및 취득학점을 일정부분 인정 ④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 재직증명서

■ 전형일정 : ◇ 모집기간 : 2003년 5. 10(월) - 6. 20(금) ◇ 등록기간 : 2003년 6. 28(금)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수능시험과 무관)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3매(반 명함판 3cm × 4cm),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접 수 처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명지대하교 전통공예학과 사무실 우)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02) 300-1463~5

New Millennium Vison 사랑과 창조의 새천년 명지 **명지대학교**

봉은승복사 탈원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가격안내

❖ 모직혼방 ※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1장 증정함 ※
1. 적삼,바지 100,000원
2. 동방,바지 130,000원
3. 두 루 막 150,000원 ~ 200,000만원
4. 장 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150,000원 ~ 200,000만원
5. 신도복(단체주문환영) 조끼, 바지(모직회색) 60,000원
6. 셔 츠 (차이나 라운드) 7. 반가사 50,000원 걸망, 손가방 대가사 80,000원

온라인 은행구좌
● 국민은행 : 617-21-0388-842
● 우 체 국 : 701227-02-029554
● 예 금 주 : 박 철 오



봉 은 승 복 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대리점 모집합니다

'직장불자회 재정안정은 기획력과 정비례한다.' 직장 · 직능불자회들이 살림 밑천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아이템을 내놓고 있다. 목적사업을 위한 '모금형'에서 회비와 인등비로 충당하는 '자급자족형', 그리고 정부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 유치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금 **자급자족** **예산유치형**

직장불자회 살림살이 다양

철불협 역사서 모금행사 … 각종 봉사비 충당

정부기관 불자회 회비 · 인등비로 재정 확보

선재마을의료회 서울시서 예산지원 받아

● '모금형' =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이용일, 이하 철불협)는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역 등 전국 5곳 역사에서 노숙자 돕기, '철마는 자비를 싣고' 행사를 벌여 총 7백여만원을 모금, 서울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했다. 또 철불협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철도대학 불교학생회 육성 기금도 조성했다. 기금은 장학금 · 법보시 등의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철불협은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올 2월에 후원회 '수다타'를 결성했다. 현재 수다타 회원은 30여명으로, 향후 100명까지 늘려 철불협 발전기금 조성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차내에 꼄통을 설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외도 다른 직장불자회는 연등 · 초 · 향 · 장신구 · 불교카드 등 불교용품판매로 재정확보에 나서고 있다.

● '자급자족형' = 대민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불자회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 구청, 감사원 등의 불자회는 업무 특성상 '후원' 또는 '모금' 방법이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불자회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회비와 인등비, 사찰순례 특별보시금 등의 형태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는 매월 인등법회를 봉행, 회비와 함께 인등비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개선된 재정을 바탕으로 경찰청불교회는 찬불가, 서예, 사경 등의 테마법회를 열어 문화강좌의 혜택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서대문구청 불심회, 감사원불자회 등도 업무 특성에 따라 운영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 '예산 유치형' = 직능불자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선재마을의료회, 불자약사보리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는 2000년부터 3년 연속,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는 2001년에 서울시정 참여사업 민간단체로 각각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 직능불자회는 특히 사회봉사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이들 자료를 조직운영 효율성 극대화의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회원들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회원의 가입도 유도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상담소 열어 보살행 실천"

교사불자련 군산지회 성귀자 회장



"회원 모집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불교상담소를 열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교사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군산지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성귀자 씨(58 · 군산초등학교장 · 사진). 성 회장은 군산 흥천사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향후 지회 운영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그간 교사불자 모임이 군산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신행활동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죠. 우선 흥천사를 원찰로 삼아, 회원들의 안정적인 신행활동 공간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 전자메일을 통한 신규 회원 확보에도 심열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성 회장은 3년 전, 교사불자연합회 수련회 참석을 계기로 지회 창립의 필요성을 절감, 이후 연합회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면서 군산지회 창립을 주도했다.

"발품부터 팔았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물어 불자 교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7명이었던 식구들이 이제는 3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스님들의 법문을 회원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의 동료 교사에까지 이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포교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회장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불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그 자체가 상담이라 해고 과언이 아닙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 청소년 불교상담소를 열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교사의 의무입니다."

군산지회는 올해 초 7명으로 모임을 시작, 현재 30여명이 가입해 있다. 김철우 기자

감정평가사 불자회 창립총회

봉은사서, 초파일 '가족문화체험' 첫 행사

감정평가사 불자회가 창립됐다.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26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법회에서는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감정평가사와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은 법문을 통해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창립 직후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부처님 오신 날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5월 7일 강남 방배동 청룡사에서 '연등 만들기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6월 6~7일 이틀간 경주 남산으로 성지순례도 떠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및 정착물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 동산, 기타 재산 등에 관해,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전문직으로, 현재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한상의 감사, 박범수 이사 등이 불자회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서울시설공단 청정회 야외법회

서울시설공단 청정회는 27일 경기도 광주 각화사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가족동반 법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김근백 총무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회원 불자들이 사시예불 등 순서에서 많은 곤란을 느꼈지만, 이번 야외법회에서는 한글 뜻풀이를 첨가해 새로운 경험을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공불련 평화기원탑 점등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5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함께 창립 1주년 기념 법회 및 평화기원 탑등점등식을 봉행했다. 대전시청 및 5개 구청 불자회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불성함양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된 공복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교사불자련 3개지부 연합성지순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 경인지부와 전남지부는 26~27일 전남 고흥 능가사와 수도암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법회에서는 보성다원에서의 차밭 체험과 지회별 친목도모의 장이 마련됐다.

단체장



보광사서 정기법회 봉행

송도근 건설교통부 불자회장은 보광사 주지 종훈 스님을 초청, 23일 과천 정부청사 보광사에서 정기법회 열었다.



성주 도솔암서 의료봉사

강경구 선재마을의료회 영남지부장은 26~27일 이틀간 경북 성주군 도솔암에서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성북구민 위한 법회' 열어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장은 28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성북구사암연합회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구민을 위한 법회'를 봉행했다.



춘천 영천사서 정기법회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은 영천사 주지 종운 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21일 춘천 영천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대구서부경찰서 법우회

법우 6명으로 시작 … 활발한 봉사 자랑거리

'전 경찰관 불자화, 전 경찰서 법당화' 주력



◇ '우리 법우회의 포교전진 다짐.' 대구서부경찰서 법우회원들이 올 1월 대구 대영 웨딩부페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갖고,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경승실장 원각 스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교대 근무, 밥 먹듯이 하는 야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 하지만 우리 법우회원들은 이것만은 잊지 않고 삽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요. 또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처럼 더욱 믿음직스럽고, 친근한 경찰관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우회는 지난 2000년 5월에 창립했습니다. 처음엔 초라했지요. 6명의 법우들이 식당에 모여 법회를 열었으니, 보잘 것 없는 동호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법우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정기법회를 빠짐없이 봉행했지요. 그야말로 똘똘 뭉쳐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봄 · 가을 성지순례를 떠났고, 대구지역 시청 · 구청 불자회와 합동법회도 열었습니다. 지금은 회원 수만 130여명이 넘는 법우회로 성장했습니다. 대구지방청 경찰서 가운데 가장 튼튼한 조직과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지역 직장불자회에서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뿌리내리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불자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도들의 성향 때문에 회원모집에 애를 먹었습니다. 또 신입회원들은 불교가 너무 어렵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법우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초교리도 함께 공부하고,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께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자칭 '불교박사'가 다 됐다고 너스레까지 떨기도 합니다.

우리 법우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관내 노인시설 영락 양로원을 전 · 의경 불자회원들과 한달에 한번씩 찾고, 무의탁 어르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불세탁, 목욕과 청소, 말벗 등 몸과 마음으로 봉사의 참뜻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창립부터 벌여온 경찰서내 유치장 포교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법보시, 찬불가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치인와 가족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방범순찰대전 · 의경 3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연등 수익금 전액을 좀 더 좋은 일에 회향하자는 법우회원들의 뜻을 모은 것입니다.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한 잎 한 잎 정성껏 담아 만든 연등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한다는 생각에 회원들 모두 환희심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법우회는 '참불자 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경찰관의 불자화, 경찰서의 법당화를 모토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며 포교활동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만큼은 반드시 서내에 법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신행 공간을 갖춰 언제든 법당에서 신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구 지역 직장불자회와 함께 '연합대법회'도 열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덕수 회장(경비교통과)

發 남북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천도 수륙대재 願

귀의 삼보하옵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의 뜻 깊은 의미가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유주무주 수 · 륙 · 공의 모든 영가들을 위안하고 천도하는 여법한 수륙대재가 원만 회향된다면 진실로 불교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우리 원융종이 앞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창종 23주년을 맞는 원융종의 이번 신륵사 수륙대재가 불안한 중생을 위로하고 모든 영가들을 원만히 천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모든 종도 및 불자님들이 수희 동참하여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총무원장 법륜 합장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봉행위원장 법륜
부위원장 성관, 선진, 대월
봉행위원 체관, 정관, 천호, 인관, 법원, 선덕, 성욱, 혜림, 체의, 불선, 보선, 진연, 정광, 체명, 은혜, 혜광, 대웅, 선명, 효계, 벽봉, 선덕, 석경, 혜민, 체도, 풍원, 보운, 성해, 홍재, 정광, 대천, 불선, 송월, 진운

행사안내

● 일 시 : 불기 2547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 법회장소 : 여주 신륵사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번지
☎ 031)885-2505
● 주 관 :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 문 의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번지
전화 02)853-0431, 0531
팩스 02)853-0532

大韓佛教 圓融宗 수륙대재 봉행위원회

죽장동 5층석탑(국보 130호)잘못 복원

상층기단부에 원래 없던 우주·탱주 삽입

장충식 교수 주장

국보 130호 경북 선산 죽장동오층석탑의 기단부가 잘못 복원됐다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높이 10m로 전탑형의 5층탑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탑인 이 탑은 탑신을 받치는 이층기단 중 상층기단이 훼손돼 1972년 전면 해체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충식 교수(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는 최근 발간된 <동악미술사학> 3호에 기고한 논문 '선산 죽장동 모전석탑의 복원 문제'에서 "하층기단은 우주(탑신 모서리의 기둥)와 탱주(버팀기둥)가 없는 전형적인 모전석탑 양식인데도 상층기단에 우주와 탱주를 별도의 돌로 끼워 넣었다"며 "상·하 기단 모두 우주와 탱주가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죽장동오층석탑 기단부가 잘못 복원된 것은 근처에 있는 낙산동삼층석탑(보물 469호)의 기단 양식을 참고로 복원했기 때문이다. 역시 통일신라 모전석탑인 낙산동삼층석탑은 이층기단에다가 1층 몸돌(탑신)에 감실을 만든 점 등이 죽장동오층석탑과 양식적으로 비슷하다. 바로 이 낙산동삼층석탑의 이층기단에 우주와 탱주가 모각(模刻)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죽장동오층석탑의 기단에도 우주와 탱주를 넣었다는 것이다.

인근 낙산동 3층 석탑양식 참고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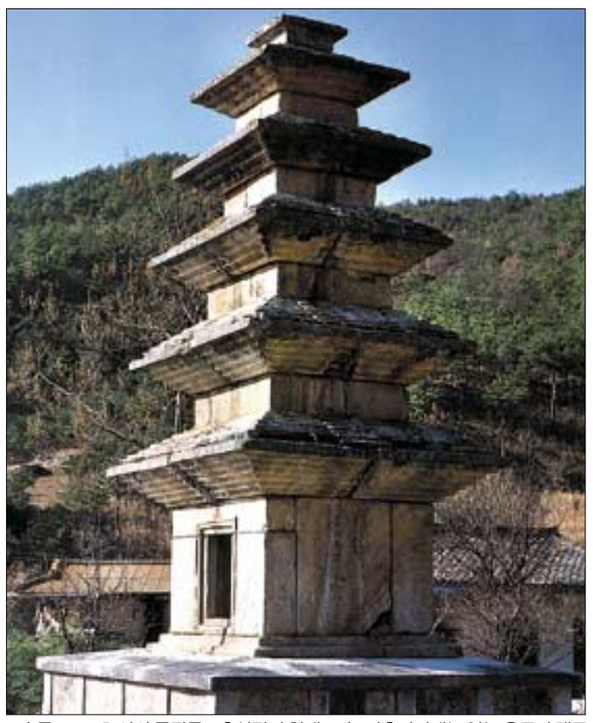
상·하층 기단 우주·탱주 없는 게 원형

그러나 장 교수는 "모전석탑의 경우 우주와 탱주와 없는 것이 일반적 형식이므로 하층기단에 이들이 없었다면 상층기단 역시 생략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웃해 있는 낙산동삼층석탑에 우주, 탱주를 등장시킨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하여 죽장동 석탑에도 그대로 추종한 결과 석탑 자체의 양식이 무시되고 조화를 깨뜨리는 복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주와 탱주를 넣더라도 모각하는 것이 신라 석탑의 전통 양식인데도 별도의 돌을 끼워 복원된 점 역시 큰 문제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우주와 탱주처럼 별주(別柱)의 경우 기단 면석이나 몸돌에 붙여서 모각하는 것은 견고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고대 석탑의 특색이다.

장 교수는 "우주와 탱주를 제거하고 그 폭에 해당하는 크기의 판석을 새로운 석재로 보충해 넣는 것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국보 130호 선산 죽장동오층석탑의 현재 모습. 하층기단에는 없는 우주와 탱주를 상층기단에 끼워 넣어 잘못된 복원이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모전석탑이란?

석재로서 전탑(벽돌로 만든 탑)을 모방하여 만든 탑. 돌을 벽돌과 같이 잘라서 전탑 모양으로 축조한 양식과 일반적인 석탑의 기본 형식을 따르면서 표면을 전탑과 같이 가공하여 축조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주 분황사석탑, 제천 장락리 7층석탑 등이 있으며 후자는 의성 탑리오층석탑이 대표적이다.

한국 우수한 불교미술사학자 많아

사지 발굴·복원 노하우 배우고 싶어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내한 마쓰창 북경대 교수



"한국은 불교미술사의 연구 분야가 다양하고 우수한 학자가 많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의 발굴이나 보존 상태를 볼 때 사원유적의 보존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사지 발굴이나 복원에서도 매우 앞서 있어 배우고 싶습니다."

18, 19일 김해에서 열린 제9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방한한 마쓰창(馬世長, 64·사진) 중국 베이징(北京)대 고고학과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사를 비롯한 한국의 불교문화재 관련 학문에서 받은 인상을 이렇게 정리했다.

마쓰창 교수는 중국 둔황석굴 발굴과 연구로 중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고고학자. 특히 중국 고고학 최고 권위자인 숙백의 제자 중 한사람으로 그의 정통을 이어받아 베이징대에서 강의하는 유일한 제자다. 15년간의 둔황석굴 공동 조사와 연구 성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둔황학'에서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조 시대의 석굴에 대한 시대 분류, 석굴내의 벽화 연구 등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쓰창 교수는 석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는 석굴 도록 발간 등의 출판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불교고고학자 … 둔황석굴 발굴·연구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인 마쓰창 교수는 "중국은 불교미술사가 독자적인 학문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불교고고학에서 사원건축, 불화, 조각 등을 포괄하는데 반해 한국의 불교미술사는 불상, 사원건축, 벽화, 조각 등을 폭넓은 연구주제로 다루며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출국에 앞서 부산, 경주 등의 박물관을 둘러 본 마쓰창 교수는 "한국 박물관은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우수하다"며 "중국의 박물관 시설에 참고해야 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방한 기간 중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동박물관, 경주박물관을 둘러보고 '돈황 막고굴의 이해'를 주제로 경주대에서 강연하기도 한 마쓰창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불교 관련 학문의 교류, 협력이 점점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2일 '불교생태학'

한국불교학회 24일 춘계학술대회

5월 학회소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은 2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생태학 그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구승회(동국대) 박경준(동국대) 교수 등 발표. (02)2260-8507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10일 오전 10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 및 제3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종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중표(전남대) 김복순(동국대) 교수 등 발표. (02)2260-3128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 경북대 교수)는 10일 오후 2시 고려대박물관에서 제72회 정기발표회 개최. 양정석(서울여대 강사, '황룡사 9층목탑 건립과정에 대한 재검토')씨 등 발표. (02)961-0882 △한국종교학회(회장 김홍철 원광보건대 학장)는 16~17일 원광대에서 '종교연합운동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011-9275-7269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정갑동 동국대 교수)는 17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02)2260-3798 △한국선학회(회장 법산 스님)는 17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02)2260-8507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장충식)는 17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17회 월례발표회 개최. 주영희(동국대) 조정육(국민대)씨 발표. (02)2260-3463 △한국불교학회(회장 권기종)는 24일 오전 10시 동국대 문화관 제1·3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02)2260-8507 △보조사상연구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보조전서 역주 1차 학술회의 개최. 인경 스님(연구실장)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발표. (02)733-5311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는 24일 오후 2시 백제불교문화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재동(충남대) 김종명(영산대) 이희재(광주대) 교수 등 발표. (063)850-6438 △한국종교교육학회(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30일 오전 9시 30분 강남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02)2260-3385

※이번 주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미술의 美'는 쉽니다.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바/아르바이트 모집 등
3.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8-325-8802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구인 구직

비구니 사미승 모십니다
▷서울 교대역 근처
016-321-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1)9721-2198

사찰에서 운전하실 봉고 기사님 구합니다
▷ 부 산
051)542-4630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평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사이 불심있는 여성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 운경

비구니/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국내10대 기도처
대한불교조계종 운제산 지장암
011-584-0888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되신분
▷오랫동안 계실분
▷역학가능하신분
031)952-7905

조용한 토굴에서 1년, 100일기도, 수양하실분 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하신 분
063)537-2448
011-410-1678
대둔산 대암사 기도원

물좋고 공기좋은 부처님 도량에서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771-8209
011-9589-8210

공양주 보살님 모심
▷급여 70만원+α
▷조계종 비구니스님 사찰
▷경북 영천
054)336-1575
011-805-15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6-521-0003
054)975-0003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공양주 보살님 구함
평생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실분 구함
▷내외분도 환영
▷ 충북 충주 선화정사
011)711-7127
043)855-7127

4월 초파일 기도해 드립니다
(비구니)기도 스님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019-357-5009

악신에게 시달리십니까?
책임지고 천도해 드립니다.
천도가 잘되고 안됨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031)532-6661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일본근무 공양주 구함
일본 후지산 신덕사에서 불심 깊으신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5세~60세
▷인내심, 건강하신분
▷일본어로 전화받을수 있을정도
▷월급 100만원
부산 신덕사
051)508-823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국제선원 무상사
041)841-608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女)사무원도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천 보각사
032)522-8131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기도 스님 모십니다 (비 구)
055)385-4111

공양주 모십니다
▷ 40세~55세까지, 월보시 80만원
▷ 목욕비별도, 월3박4일휴가
▷ 경북 청송
054)872-4183
011-810-0698

가족처럼 공부하면서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천호동
02)487-8500
02)475-8600

알림 정보

사람을 찾습니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 56세 키 :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 후사: 50만원 사례하겠음
017-653-1077/011-9723-1043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신비의 氣電! 전통(傳統)활락법 공개강좌
● 체험설명회 4월 25일(金) 오후 3~5시
◆ 직접 오셔서 기적의 현장을 답습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종교지도자, 한의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기공사, 일반인등
◆ 실전전무가반
평일 : 4월 29일(4시간수련)
주말 : 4월 26일~27일(4시간 수련)
◆ 5인이상 출장 수련 환영
한국동의기공 예약 (02)473-5989 상담 (02)487-4578
전철 8호선 강동구청역 3번출구 나오면 바로 왼쪽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氣功 교육원
02)3446-4118

易 도가비전 전수 氣
도통역 기공법
건강 사업 성공 등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氣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음
●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 전화 : 02)935-2728 핸드폰 : 017-208-2866

심근수련원
재활수련 · 체조 · 호흡 · 소리 · 명상
각종 성인병의 재활 수련 지도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수련으로 효과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
02)573-0002
016-392-6448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위치 : 전남 순천	● 위치 : 충남 논산
● 법당 : 36평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요사 : 4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50평	● 부지 : 1000평	● 부지 : 713평
● 가액 : 20억	● 가액 : 3억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祖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사찰안내

● 위치 : 고양시
● 면적 : 75평
● 보증금 : 1500만원
● 월세 : 60만원
● 시설비 : 절충

● 위치 : 동대문
● 면적 : 35평
● 전세 : 5천만원
● 교통요충지, 옥상사용가능
● 철학관으로 최고적지임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玅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포교당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주안역 근교
● 법당 : 40평, 방 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철학관, 포교당으로 최고임

● 위치 : 서울시 근교(강남에서 40분)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목재 오포 칠포)
● 요사 : 3동(150평)
● 양도가 : 12억(대출가능함)
● 산세좋으며 역사 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필요한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진로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 : 3천 7백평 (준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055)755-7172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20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상계동 당고개 전철역에서 500m
● 부지 : 300평
● 법당 30 평, 요사 20 평, 나한전 (노천)30 평, 약수 2개
● 주차장 완비(10대정도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952-7220
011)9997-9932

계곡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1km
● 계곡 암자터
● 논 496평
● 가액 : 1500만원
011)9393-4965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진로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 : 3천 7백평 (준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사정상(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서부정류장 전철역 근처대로변
● 평수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가, 주차장 있음
● 법당 : 75평중 법당만 35평, 방4개 및 배란다,화장실,실내외 각각 1개
● 특A급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각단탱화 있음, 관세음보살님 동불 모시고 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053)654-0619
017-857-5588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및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 특징 : 지리산 거림 대 계곡을 바로 접하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절경
● 부지 : 1,300평
● 현황 : 토목공사 완료(4필지구분) 한필지씩 분할 매각 가능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011)9522-3482 / 055)747-7921

포교당 안내

● 위치 : 신도시 중심상가 (역세권)
● 시설 : 160평. 시설완비
● 가액 : 3억원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보십시오)
011)9183-8993

사찰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광주시 쇼태동 제2순환도로 학운 IC옆 무등산가는길
● 임야 : 4,020평
● 대형 차량 진입
● 그린벨트 아닌 마을 옆산
● 평당 10만원
016)471-875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시내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 주방, 사무실, 방, 화장실
● 전철역앞. 옥상 사용가능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능
● 전세 6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872-8227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세류 2동 큰길 옆 3층
● 평수 : 40평, 방2개, 법당, 주방, 욕실, 옥상 30평 사용가능
● 시설 : 삼불, 신중, 영가단, 산신각, 에어컨 및 전자제품 완비
※ 시설에 관련된 집기 완비 (따로 시설하실 필요 없슴)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31)231-9293/011)9240-138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진주간 삼가면 소재
● 부지 : 대지 2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스라브)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 산산각 및 용왕단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 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최적지임
● 매가 : 2억 5천만원(감정가) 1억 5천5백만원에 (급)양도하고자 함
016)421-9154

사찰(급)안내

● 위치 : 임진강 앞에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대지193평, 요사채70평, 법당 20평,방 6개,욕실 2,주방 3,거실3
● 법당단청했음
● 미륵 부처님 모셨음
● 산세수려하고 큰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 가격은 답사후 결정
011)9036-7905

토굴 안내

● 위치 :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 건평 : 조립식 16평
● 지하수. 심야 보일러
● 교통 편리
● 보증금 : 1백만원, 월 無
011)9360-7978

포교당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법천사
● 대웅전(법당) 40평, 휴게실 25평, 주택 50평
● 대지 3,400평
● 가액 : 10억원
● 대진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교차지점
055)963-2250
019)294-2250

사찰양도안내

● 특징
1) 천년 고찰터
2) 마애 여래불 문화재 지정
3) 문화재지정 자금지원으로 불사 가능한 곳
4) 좌청룡 우백호가 출중한 천해의 명당터

● 내용
1) 종교 용지 : 1,830평
2) 법 당 : 13평(목조)
3) 요 사 : 20평
4) 매 가 : 3억 7천만원
● 위 치 : 충남 서부

사찰정보센터 금강기획
02)736-3578~9/011-789-225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강2동 4639번지 정각사 포교원
● 시설비 : 1천 500만원
● 가액 : 500만원, 월 50만원
031)732-0471
016)557-0471

토굴 안내

● 위치: 밀양 무기면 부곡온천←20분-토굴-20분→밀양 ↓ 50분 진영IC(남해고속도로)
● 대지 : 200평
● 건평 : 40평
● 가액 : 6천 5백만원
● 토굴까지 차들어감, 주위 포도밭 많음
● 은사스님 모시기 위해 아주 잘 지었음 (총 1억 3천만원 들었음)
011)9359-4080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시 최고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개, 공양방1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 7천만원, 월 80만원 (모든 비품,시설 포함한 가격)
● 스님 직접 통화함
031)541-9428
011)530-1975

펜션하우스 겸 수행터 부지안내

● 위치 : 경기 여주IC 10분거리
● 대지 : 603평
● 즉시 건축
● 산수절경, 남향, 조경완료
● 가액 : 1억 9천만원 (주인 직거래)
018)315-9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 70평중 법당 25평, 큰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최고급 A급시설, 대형주차장 완비
● 포교당 위치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전세가능)
● 시설비 1억3천만원 들었으나 인연 있는분께 4천만원에 드리겠음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을모십니다.
011)9315-1200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에게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55)356-8056
011)451-6612

암자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자굴산
● 면적 : 1, 400평(정남향)
● 가액 : 9,000만원
●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차량 진입 가능) 옆에는 계곡과 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산세수려한 최적지의 암자터
055-882-4715/017)842-4715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완간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ㅡ男二女 관계인지 二男ㅡ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 시식 · 굿 ·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바인더차트 분개 매월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기존「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해 드립니다. ● 효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CD ₩2,0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慈는 기쁨·悲는 슬픔 나누는 것

고통받는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봉은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주 큰스님은 살아있는 근세불교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혹자는 석주스님께서 입적하시면 근세불교 1백년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9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고 보문복지원(안양원) 보문사를 운영하는 석주 큰스님께서 봉축을 맞이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이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인 큰스님의 선서화도 감상하고 구매를 통하여 불교포교사업을 할 수 있는 보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　　간 : 5월 1일 - 5월 8일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 전시문의 : 포교교육팀 02-516-5652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석주 큰스님 약력

1949 범어사서 대덕 법계 품수
1958 불국사 주지 역임
1961 선학원 이사장 역임
1971~73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1979~조계종 원로의원
1979~88 중앙승가대학장 역임
〈현 봉은사 조실〉

모시는 말씀



◇원혜 스님(봉은사 주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교의 주된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慈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悲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쉽지만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장보살은 지옥의 마지막 한 중생까지 구제한 후에야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중생까지 구제 되었을때 지옥은 이미 지옥이 아니라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마지막 단 한사람마저 사라졌을때 이 사회는 피안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봉은사 조실 석주 큰스님께서는 노인들의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온양에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자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장엄하는데 한 발 더 전진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높고 크신 서원으로 오늘의 이 전시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석주 큰스님, 법왕루서 선서화展 5월1일~8일



◇일일부작 일일불식



◇반야심경

수행환경 파괴하는 현대산업개발·허가권자 강남구청을 불교도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에 부처를! 봉은사에서 원력을!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안내

행 사 명	일시 및 기간	장 소
지하철역 등 밝히기	4월 19일 - 5월 12일	인근 지하철 역사 10곳
등 만들기 체험 및 마음의 등 나누기	4월 9일 - 5월 8일	동법당, 선불당 앞마당
코엑스몰 청소년 포교활동	4월 26일 / 27일, 5 / 5	코엑스몰 광장
동자승 출가체험	4월 27일 - 5월 11일	다래헌
연등축제 개막식	5월 1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
전통등 전시회	5월 1일 - 5월 8일	보우당
조실 석주큰스님 선서화전	5월 1일 - 5월 8일	법왕루
불교서적 및 용품판매전	5월 1일 - 5월 8일	응향각 앞 천막
봉축사진 콘테스트	5월 1일 - 5월 10일	사찰 전역
무의탁독거노인 및 강북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초청행사(사찰순례, 공양, 아쿠아리움 관람)	5월 2일 오전 10시	보우당, 아쿠아 리움
연등놀이	5월 3일 저녁 6시 - 9시	조계사 앞, 인사동
연등축제(제등행진)	5월 4일 오후 3시 - 9시	동대문운동장
봉축법요식	5월 8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
서원사탕 나누기	5월 8일 오전 12시	대웅전 앞
점 등 식	5월 8일 저녁 7시	대웅전 앞마당



봉은불교문예대학

● 분 야 : 시창작, 소설창작, 아동문학, 수필

봉은문학회와 불교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예창작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문학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6월 16일(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개월 과정
▶ 장　　소 : 보우당
▶ 인　　원 : 선착순 60명
▶ 수 강 료 : 월 3만원
▶ 강 사 진 : 민영(시인), 안장환(소설가), 한상필(수필가, 평론가), 유정환(아동문학가)
▶ 접수문의 : 포교교육팀 02)516-5652



목어

육감의 위기



김징자 언론인

금지되고 있지만 'subliminal AD'라는 것이 있다. 몇 초마다 3천분의 1초의 순간적 광고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의식 속에 광고의 이미지를 새겨 넣게 된다. 순간의 영상에도 이처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도된 영상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TV, 비디오,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의도된 영상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판단은 얼마나 올바를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소리와 냄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감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통로, 영적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소리와 냄새에서 찾기도 한다.

과학이 밝힌 것을 보면 동물의 기억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냄새라 한다. 그래서인지 불가(佛家)의 깊은 감성마저 느끼게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맡게 되는 특정한 차 향기로 잠재의식 속 유년기 기억 전체를 퍼올린다. 누구나 한번쯤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은 시공을 헤아릴 경지가 아니다.

자비의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耳根圓通), 소리로서 원통의 경지에 이르고 세상의 소리를 살펴 가련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다고 냄새와 소리에 안심할 것도 아니다. 의도된 영상처럼 의도된 소리와 냄새가 있고, 영상치료처럼 향기와 소리치료라는 것도 있어 성업 중이다.

육근 육식 육감의 위기라고 할까. 고요한 선정의 경지를 보여주신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처럼 필요한 때도 없어 보인다.

불교·가톨릭 미술의 만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전이 30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중림동 가톨릭회랑(02-360-9108)에서 열린다. 종교적 주제를 작품에 담아온 양쪽의 화가와 조각가 22명이 작품을 출품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평화와 화해를 갈망하는 이웃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불신과 대립, 갈등과 전쟁으로 물든 세상이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원했다.

장군죽비

문화재, 자연재해 무방비

감사원이 23일 낸 '자연재해 대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8478건 중 60%가 넘는 5871건이 자연재해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화재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경우 재해를 입고도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화재 주변 및 인접시설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핵, 3자 회담 이후가 중요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당시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23일 북·미·중 3자회담이 열리면서 이러한 우려가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달리던 기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뿐 궤도 수정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핵 문제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계획의 실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북한 역시 명징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강경파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왔다. 하지만 조잡한 핵폭발장치의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도달해 있지만 기술수준이 초보단계에 불과해 무기화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해결 방식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은 선 영구적 핵 폐기, 후 협상을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협상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핵문제 해결과 체제보장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북미 상호간 불신과 불만의 골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선언 및 국제적 검증과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확약 및 국제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회담 방식도 쟁점중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주장해 왔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여론이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던 최근 우리사회의 우려에 비한다면 3자회담의 개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3자회담이 한국을 포함한 4자회담(3+한국)으로, 나아가 국제적 보장체제를 위한 6자회담(4+일본·러시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포괄협상 및 새로운 합의틀의 모색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북미를 포함한 관련국은 사문화된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미국의 대북체제 안전보장 방안,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대북 경제지원,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합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다행스럽게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나 행보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내 대북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역시 여차하면 튀어나갈 기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쟁점들을 해결하는 충실한 조정자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만이 한반도 구성원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참여불교' 세미나

민족문화정책연구소(이사장 여익구)가 22일 '참여불교와 참여정부'란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다뤄진 주제는 '불교의 정치와 사회 참여.' 이날 논의의 초점인 '불교적 가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변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전문대 윤세원 교수가 '연기론적 가치의 정치적 변용과 불교인의 정치참여'를,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편집자〉



◇22일 민족문화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참여불교…' 세미나.

불교, 정치적·사회적 변용 '가능하다'

▧교리훼손, 논리 비약없이 외연 넓혀야

정치와 종교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만난다. 종교조직은 국가가 자체 목적 달성을 위해 제시하는 규범이나 통제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국가는 위정자들의 세계관에 의해 해석된다. 하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은 명분과는 달리 애초부터 정치는 종교적 사유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불교적 가치의 유지와 실현을 위해 불교에 배분되어야 할 정당한 몫의 확보차원에서도 불교인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

불교 가치는 정치적으로 변용도 가능하다. 해탈·무아·자비 등이 자유·평등·복지란 정치사회적 가치들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 교리의 훼손, 논리 비약 없이 그 가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치참여의 불교적 방법론은 어떨까? 승·재가를 나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승·재가 윤리가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가 추구하는 상이한 목표에 따라 연기법의 현실 적용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승가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이상을 일깨우고 교육하는 스승의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재가의 정치참여는 적극적일 수 있다. 교조적인 오계의 해석과 적용보다는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논리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실현의 출발점은 생명존중의 실천이다. 생명 위협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불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윤세원(인천전문대 교수)

■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불자 출신 정치인이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불교를 구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불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 **백경남**(동국대 정외과 교수)=국가의 권위적인 배분에서 불교는 처음부터 소외돼 왔다. 1천만 불자들에 대한 가치분배가 안 됐다는 말이다. 그 정치참여의 대안으로, 불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얻어내야 한다. 시대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하며, 현대사회의 흐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 **차차석**(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종교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목적과 더불어 대중화를 위한 이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불교의 현실참여는 중생에게 평화와 안락을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참여불교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수호**(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불교의 사회참여는 불교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전체 시민사회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편 불교계 내부의 시민사회, 즉 불교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 전제

사회참여의 교리적 근거와 사회적 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붓다는 바라문교의 전통과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사회혁명적 길을 택한 붓다는 그 대답을 연기법과 사성제에서 교리적 근간을 찾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과 사회의 불이적 관계, 개인과 사회적 고통은 상당 부분 연관돼 있다. 때문에 한국불교의 사회참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기존의 정치사회적 원리나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약자가 처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은 사회문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 주체부터 짚어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교의 사회참여 주체는 사부대중이다. 하지만 사회참여가 일종의 집합행위라는 점에서, 한국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그 구성원 등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참여 영역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북한동포돕기, 환경문제에 국한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인류 공동선, 제3세계 빈곤 문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마약, 성의 상품화, 낙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가난과 질병, 탈북자 문제 등도 빠뜨려선 안 된다. 방법론도 개발해야 한다. 일반 사회단체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 모델로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간디의 비폭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함께 한국불교의 사회적 고통 해결을 위한 재가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승무(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 교수)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발간



"초파일 행사 안내에 꼭 필요한 팜플렛 기념책자로 대신하십시오"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기념책자 내용
- 봉축법요식 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표지포함)

*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 식순 등을 실어 드립니다.

이제 불교설법전서 한 권이 더 보태어졌습니다!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 실시"

1권(930쪽) 3만원 6권(816쪽) 5만원
2권(936쪽) 4만원 7권(864쪽) 5만원
3권(612쪽) 4만원 8권(792쪽) 5만원
4권(796쪽) 4만원 9권(720쪽) 5만원
5권(720쪽) 4만원

불교설법전서는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 설법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 행복해지는 연습
실험처럼 살·아·라



"읽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이 책에서 페마 최된 스님은 우리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유머, 융통성, 용기, 지혜의 원천을 찾아주는 수행법들이 가득 담겨 있다.

페이 최된 지음·진우기 옮김 | 신국판 양장본 분량 176쪽 | 값 8,000원

만화와 상식, 두 권의 책을 한 권에 담은 마음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부처님도 미소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

해 학이 담긴 만화와 교양이 되는 불교상식을 따뜻한 느낌의 칼라지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초 파일,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 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글 방경일·그림 김장열 | 분량 272쪽
4×6 변형판 칼라인쇄 | 값 10,000원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어려운 이웃돕기 '자비의 등' 달기
독거·저소득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이라크 이재민에 자비·희망전하기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등(燈)과 종(鐘)달기 행사가 전국사찰에서 펼쳐진다.

조계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박예운(12세) 어린이와 간경화 말기판정을 받은 이연옥보살(40세)을 위한 등 달기운동을, 우리는선우가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장충단 공원과 동국대 입구에서 대구참사유가족 성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종 달기 행사는 조계종 복지재단 주최로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초청 효도큰잔치도 다양하다.

28일 남양주 봉선사, 부산 삼광사가 경로잔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5월부터 춘천 삼운사(2일), 서울 관문사 봉은사(2일), 의정부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2일 시청), 하남 성불사(6일), 서울 조계사(6일), 평창 월정사(6일), 속초 신흥사(7일) 등에서 효도의 실천 행사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나눔마을이 5월 4일 서울 강일동 일대 극빈노인들에게 '자비의 쌀나누기' 행사를 마련하고, 봉은사는 26일 난치병 어린이돕기 삼천배(1배 100원) 기도정진을 실시했다.

한편 조계종 천태종 등 각 종단들은 종단차원에서 이라크 이재민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24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1차) 이라크 캠페인을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전개, 모금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동참계좌:국민은행 023501-04-003199(재)불교중앙교원

천태종도 19일부터 인천 연화사 등의 전국사찰에서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과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성금 계좌: 우리은행 843-060670-13-022 천태종 복지재단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다양한 나눔행사



◇부산 범일동 재래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조방연등회원들이 상가주변에 연등을 달고 있다.

연등 밝힌 부산 범일동 밤거리

시장 상인 불자들 7번째 조방연등제

부산 범일동의 밤거리가 연등으로 빛나고 있다. 범일동 재래시장 상인들이 벌이는 조방연등제가 23일 점등식으로 막을 올렸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부산불교신도회 박영병 사무총장을 비롯 100여명의 상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점등식은 자유시장 번영회 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점등식으로 자유시장, 평화시장의 상가 건물 주위와 거리에 설치된 수천 개의 연등이 환히 밝혀져 5월 8일 초파일까지 거리를 밝히며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조방연등제는 특정 사찰이 아닌 재래시장의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범일동 일대에 수천 개의 연등을 달고, 상인들의 쌈지 돈을 모아 매년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보기 드문 축제다. 조방연등제에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귀금속협동조합 등의 상인들이 대거 동참한다. 불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행사지만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는 타종교인들이 많아 시장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넘친다.

'조방'은 조선방직이 있던 옛 지명을 딴 이름으로 97년부터 재래시장 상인들의 봉축 맞이 행사로 이어져 오다 지난해부터는 인근 사찰과 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범일동 일대의 축제로 발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방연등제가 끝난 후에도 조방연등회의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 자유시장 번영회 서정혁 회장이 조방연등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평화시장 조정헌 회장, 귀금속협동조합 하판도 이사장 등 주변 상가의 상인대표들도 적극 나서, 일회성 행사를 위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불교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5월 셋째 주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정례 모임을 갖고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조방연등회 서정혁 회장은 "거리를 환하게 밝힌 연등처럼 부처님 오신 참뜻이 일년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재래시장 불자들의 상설 봉사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영가위령대재가 23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봉행됐다.

"이젠 이해와 용서로 희망 일구자"

대구시민회관서 지하철참사 위령대재

"지하에서 산화한 영령들이시여 고해와 무상의 바다를 건너 극락왕생 하소서."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지역 5개 교구본사가 주관한 '대구시민 안녕기원과 지하철 참사 희생자 영가 위령대재'가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3일 봉행됐다.

명종과 분향, 헌화, 추모사, 애도사, 법어 순으로 진행된 1부 추모법요식에 이어 2부에서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 영가천도재 및 대구시민 안녕기원재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추모사에서 "이제는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뭉쳐 희망을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령대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 전두환 전대통령, 전국 14개 교구본사 주지와 지하철 참사 유족 100여명을 비롯 5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동화사 만석중놀이, 삼광사 심청전 공연
'팔공산 갓바위'선 산사 티베트 음악회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불교 전통 그림자 인형극 '만석중놀이'와 불교적으로 재해석된 '심청전'이 영남지역 사찰에서 선보인다. 갓바위는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을 초청, 티베트음악회를 연다.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만석중놀이보전회(회장 김대수)와 함께 5월 8일 오후 7시 30분 동화사 설법전 앞에서 만석중놀이 공연을 갖는다.

팔공산 갓바위에서도 티베트 전통음악의 선율을 담은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조계종 직할사찰 선본사(주지 장적)는 5월 3일 오후 7시 선본사 종각 앞에서 '갓바위 부처님과 함께 하는 평화의 어울림'이라는 제목으로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을 초청,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편, 부산 삼광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6, 7일 오후 8시 지관전에서 부산연극협회 공동연출작 '심청전'을 무대에 올린다.

천미희·박원구 기자



달마도 무상 보시
법화선원 법공 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한 지리산 법화선원 주지 법공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달마도 특별 무상 보시를 발원하고 5월 한달 동안 원하는 가정이나 불자들에게 무상으로 달마도를 보시한다.

법공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면서 부처님 진리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달마도를 각 가정에 보시하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참뜻을 널리 펴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두루 갖추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달마도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1)647-0832. 천미희 기자

울진·문경 사찰화재 잇달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6일과 17일 경북 울진과 문경의 사찰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16일 새벽 울진군 지장사에서는 선방 아궁이에서 번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선방 목조건물 40여평을 모두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또 17일 오후에는 문경시 문수사에 전기 누전으로 보이는 불이 나 대웅전과 약사전 2채기 전소됐고 법당 안의 불상 4점과 탱화 2점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원구 기자

대구경찰청 경승실장
동화사, 취임법회 봉행

대구 동화사는 19일 경내 통일대불 앞 대불전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취임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법회에서 경승실장에 취임한 원각스님은 "경승실을 강화해 올해를 대구지역 경찰포교 극대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상반기 반야장학금 전달
동울산 사암연합회

울산광역시 동울산 사암연합회 산하 반야장학회(회장 동파)는 19일 대원사에서 200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관내 7개 중학교에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학생들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반야장학회장 동파 스님은 "앞으로 공익장학재단 설립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야장학회는 지난 99년부터 2천4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박원구 기자

통증없이 사는법

혜성지음 280면 값 6,000원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10년전 어느날 천주교 수녀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권하셨고, 그 분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만명이 체험한 통증없이 사는 법!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삼성종합화학(주) 임직원들이 "기적의 건강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생활건강법.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通)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모든병은 氣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것이며 氣를 소통해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몸속에서 氣와 血을 잘통하게 하면 어떠한 통증도 낫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스스로 막힌 경혈(통점)을 풀어서 통증을 치유시키는 자연 건강법이 소개되어 있다.

1000명중 999명이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고, 중 고생중 5명에 1명골로 척추측만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외부로 부터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체중만으로 골반(척추)이 교정되어 요통, 디스크, 좌골신경통 등이 개선되는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이 수록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골반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모든 병의 근본 해결법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무료 체험교실 운영

독자들에게 "발건강법, 오장육부 氣치유법, 통증해소법, 1개월에 5kg이상 체중감량법 〈굶지않고〉 등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1박 2일 코스 〈책뒷면 참조〉
회원증 우송함. www.chgg.co.kr

「허리사랑」으로 부부사랑을...

발명특허(제0265474호) 받은 골반(척추) 교정기구

책구입 방법 : 책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대금은 책을 받고나서 입금시키면 됩니다.
■ 전화 : 1544-3246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청주 256-025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 건 물 : 1층 요사채 50평(실평수 60평)
2층 법당 25평(목조건물 단청 되있음)
창고 有, 산신각(목조건물), 용왕
물(지하 암반수), 수도물, 난방(심야전기),
부속건물 20평, 방6개, 화장실 3개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7억(절충가능)

031)469-5476
011)9012-8047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종교 교화위원회 구성 특별법회 개최

대한불교 총화종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 교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회를 가진 뒤 청송 제2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백미 4가마 떡을 전달하고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 다 음 -

▶ 언 제 : 불기 2547년 4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 어디서 : 청송 제 2교도소

- 교화위원회 -

● 위 원 장 : 천 불 사 고담 스님 (총화종 감찰원장)
● 부위원장 : 관 음 사 청담 스님 (총화종 포교원장)
● 부위원장 : 구 룡 사 만우 스님
● 감 사 : 대 성 사 해오 스님
● 감 사 : 성 불 사 본원 스님
● 총 무 : 달 마 사 반공 스님
● 위 원 : 무 량 사 도범 스님
● 위 원 : 불 심 원 해각 스님
● 위 원 : 대 불 사 선해 스님
● 위 원 : 구 월 사 경오 스님
● 위 원 : 석 천 사 해성 스님
● 위 원 : 도 선 사 운산 스님
● 위 원 : 우 리 사 광해 스님
- 이 상 -

불기 2547년(계미년) 4월 23일
대한불교 총화종 종교 교화위원회 합 장

팔리어 경전 역경도량 문 열다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는 팔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도량이 문을 열었다.

(사)고요한소리(이사장 한기호)는 22일 활성 스님(고요한소리 고문), 현고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지환 스님(승가대학원장)을 비롯한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요한소리 남원 역경원'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0년 지리산 자락에 2만 2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첫삽을 뜬 후 3년여의 공사 끝에 60여 평 규모의 법당과 2동의 요사를 갖춘 역경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역경원은 팔리어 경전 번역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인력을 배출할 교육도량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부처님 혜명의 진정한 계승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이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도량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도법(실상사 주지) 스님의 축사처럼,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이 땅의 현실에 접맥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역경원을 마련한 고요한소리는 팔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위해 87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3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고요한 소리는 스리랑카 불자출판회에서 발행하는 '보리수잎' 시리즈 40종 20만 5천여권을 보급했고 <법륜>(통권 15호)지를 발행해 왔다.


◇팔리어 경전 번역과 인력을 배출할 고요한소리 남원 역경원 준공식이 22일 봉행됐다.

경전 번역, 인력 배출 교육도량 기능 담당

근본불교 현실 접맥시키는 작업 본격화

남원=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인천 황룡사 택지개발 위기

진정서 제출, 1일 결의대회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돼 천태종과 불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월 28일자로 황룡사 부지를 포함한 인천 한들마을 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황룡사는 1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 서구청에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5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종 250여 사암의 신도와 황룡사 신도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택지지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룡사 주지 무원스님은 "택지지구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단식투쟁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이 120여억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황룡사는 2001년 8월 착공해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박봉영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남,녀 구별없는 우리는 한마음

강화 황련사 이옥순보살, 전동욱 거사

강화도 고려산 황련사는 외형적 규모는 가장 작지만, 내실 있기로 유명하다. 절에 나오는 불자들이 많고, 신도회가 주도해 사찰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도회의 중심에는 여 회장 이옥순(78 · 보현화)보살과 남 회장 전동욱(66 · 본각)거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두 회장은 신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두 회장의 활발한 활동 이면에는 황련사와 주지스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신심이 깃들어 있다.

이옥순 회장의 황련사와의 인연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강화도로 시집온 이후 스물아홉살 되던 해 처음 황련사를 찾아 왔다. 강화도로 시집온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이옥순 회장은 현 주지 정봉스님이 76년 부임했을 때 쓰러져가던 법당에서 반갑게 맞았다.

주지 정봉스님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도 가장 고마운 점은 황련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옥순 회장이 한결같이 보여준 관심과 노력이다. 한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는 성실한 태도와 신도들을 잘 다독거리는 이옥순 회장이 78년 신도회장으로 뽑힌 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신도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라고 겸손해 하는 이옥순 회장은 25년째 신도회장으로 있으면서 황련사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신심 깊은 불자다.

5년 전 남여 신도회장 제도가 생기면서 새로 남 신도회장이 된 전동욱 거사. 예전에는 거사회를 이끌며 황련사 일에 나선다. 이제는 연로한 보현화 회장의 빈자리까지 담당하는 황련사의 수족 같은 일군 역할을 하고 있다. 황련사에는 전동욱 회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작은 일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 봉사모임인 연꽃회와 거사회의 역할 분담도 전동욱 회장의 일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적절히 분배해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두 회장의 노력으로 황련사는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뜻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

한결같은 관심, 노력, 성실함으로 열심


◇전동욱 남 신도회장(왼쪽)과 이옥순 여 신도회장(가운데) 임춘숙회장(오른쪽)이 사중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추천의 말

정봉스님 황련사 주지

공심 갖고 신도회 이끌어

이옥순 보살과 전동욱 거사는 27년 전 황련사 주지로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찰에 다니는 황련사의 산증인입니다. 남 · 여 신도회장으로써 공심을 갖고 신도회를 이끌어 가는 모습 또한 다른 신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요. 앞에서 또는 뒤에서 사찰 불사를 이끌어 준 두 신도회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황련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송광사에서 장국영 49재 지낸다고?

제작사 요청, 장소 · 일정은 논의중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장궈룽)의 49재가 5월 30일 송광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 '이도공간' 수입사인 유니라인 코리아는 24일 "장국영의 49재를 5월 말 한국에서 열 계획"이며 "장궈룽의 애인으로 알려진 탕허더(唐鶴德), '이도공간'의 로치렁(羅志良) 감독, 극중 상대역으로 출연했던 카레나 램(林家欣)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궈룽의 송광사 49재는 제작사인 홍콩 성호영화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니라인코리아는 장소와 일정에 대해 제작사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송광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수입사 측에서 송광사 대중스님을 만나 의사를 타진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줌마족, 벵갈리인에 마을 피습

가옥 9채 전소, 가축·물건 약탈

90% 이상이 불자인 줌마인들이 방글라데시 군대와 '벵갈리'인들에게 습격을 당해 집 9채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줌마 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 로넬 차크마 나니 사무국장에 따르면 "19일 방글라데시 군인들과 벵갈리인들이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뷰오차리 마을을 급습해 집 9채가 전소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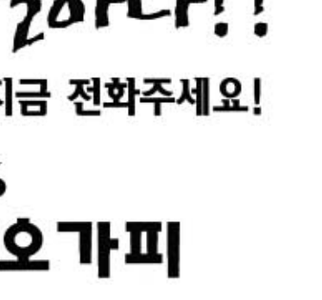
로넬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줌마인들이 기존에 지어진 집들을 철거하고 그들 땅에 새 정착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벵갈리인들에게 요청한 뒤 오후 11시 30분에 일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벵갈리인들은 이를 거절했고 줌마인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인들은 줌마인들의 집을 에워싸고,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게 한 뒤,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또 돼지를 불태우고 소나 값비싼 물건들을 약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벵갈리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90% 이상이 불자인 줌마민족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정치 ·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기자

동해 불교신도회 찬불가 경연

600여명 참석, 1등은 대원사



동해 불교신도연합회는 12일 동해 해동사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경연대회는 1부 법요식(사진), 2부 찬불가 경연, 3부 여흥시간, 4부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1등은 대원사 합창단, 2등은 청련사 합창단, 3등은 삼화사 합창단이 수상했다. 동해지사장 해동스님

광주불교방송 8주년 기념법회

천운스님 등 1천여명 참석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8주년을 맞아 23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화엄사 주지 명섭스님, 대흥사 주지 도형스님, 백양사 주지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백양사, 향림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등 광주지역 8개 사찰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사장은 "호남불교 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깨달음의 소리를 전해 온 지 8년을 맞았지만, 초발심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운스님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김포시청·경찰서 불자회

중앙승가대 강당서 창립 법회

경기도 김포지역 공무원 불자회가 결성됐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불자회는 16일 중앙승가대학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월우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회원 65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의 법어, 김포사암연합회장 혜정 스님과 김동식 김포시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밀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한국불교 최초로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 봉안된 밀교의 양부만다라.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 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 · 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한국불교-종단순례

불교 총지종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지종은 지난 12월12일 한국불교 최초로 밀교의 양부만다라를 본산 총지사에 봉안하였다. 양부만다라 조성과 봉안은 종단 최대의 숙원불사로서 승속일체의 대원력과 7년간의 정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양부만다라의 봉안이 종단의 입장에서는 밀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종단의 대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통해 사바세계를 불보살의 만다라 세상으로 펼쳐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총지종은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노인휴양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불우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 등의 대사회복지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만다라의 의미

만다라(曼荼羅)는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본질(本質) · 정수(精髓)를 얻다'는 뜻이다. 즉, 만다라는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밀교에서 만다라는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와 그것을 추구하는 보살과 그들의 무수한 권속들이 모인 장엄한 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는 만다라를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 해석하여 부처의 자내증(自內證), 즉 자기의 마음 속에서 깨달은 진리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는 깨달음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바로 진리의 세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한다.

한국불교 최초 양부만다라 봉안
사회복지 실천 · 교화활동 의미

만다라는 우주삼라만상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다. 수천 수백에 이르는 불보살의 존상(尊像)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기도 하다. 인간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양한 인간군상(人間群像)은 만다라의 제불보살(諸佛菩薩)의 또 다른 모습이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총지종은 이 우주삼라만상의 한 축인 사바중생의 세계를 만다라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만다라의 세상으로 열어 나가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의 교화방편에 있다.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렵고 외로운 사람에게 아미타부처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본 종단은 사회복지를 제일의 실천덕목과 교화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만다라 봉안의 진정한 의미요 종교 본래의 모습이다.

내 마음을 만다라 세상으로

총지종 창종이념

중생구제 · 호국불교



◇종령 록정대종사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에 밀교가 흥왕하였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숭유억불로 인하여 특히 밀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 명맥은 통불교(通佛敎) 속에 서나마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신흥 밀교를 표방하며 밀교중흥의 길을 열었으니 바로 밀교 총지종의 창종이다. 개조이신 종조 원정 대종사는 창종 이념을 중생구제와 호국불교에 두었다. 해방이후 민생고(民生苦)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실의와 좌절,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구국도생(救國度生)의 길은 오직 밀교의 정법(正法)을 펼치는 데 있음을 대오각성하시고 정통밀교의 창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호국과 중생구제는 곧 종조 원정 대종사의 대비원(大悲願)이었으며, 총지종의 창종은 한국밀교중흥의 서곡이었다.

총지종 약사

72년 원정대종사가 창종



◇통리원장 법공대정사

▲1972. 12.24 원정(苑淨) 손대련(孫大練) 대종사 창종(創宗).
▲1974. 5.30 재단법인 불교총지원 설립
▲1983. 12.24 '밀교연구소' 개설
▲1984. 12.21 충북 괴산에 종단 '수련원' 건립
▲1988. 9.14 종립학원 '학교법인 대동학원' 설립. 부산 동해중학교 인수.
▲1990. 6.15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종단 등록
▲1990. 9. 3 불교방송 이사종단 등록
▲1993. 4. 26 원로 퇴직스승 복지시설 '기로원' 건립.
▲1994. 3. 9 불교텔레비전 설립(발기종단)
▲1999. 5.29 총지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2. 12.14 태장계 금강계만다라 봉안



◇스승과 교도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

교리와 수행체계

총지종은 밀교의 대승적 이념에 근거하여 밀교를 표방하고 또 민중 속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가불교의 기치를 내걸고 창종된 종단이다. 위로는 법신 비로자나불과의 일체를 지향하여 심오한 교리와 고도의 수행법으로 즉신성불을 염원하면서 아래로는 중생 속에서 중생과 더불어 고해를 헤쳐 나가는 진정한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종단이 총지종이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총지종은 정통밀교의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과 체계가 엄격하게 정비된 비밀의궤(秘密儀軌)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으로 삼아 때와 장소?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준제비밀법(准提秘密法)에 의한 삼밀수행법이며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진언이라는 '옴마니반메훔'의 염송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신행이 주를 이룬다.

삼밀수행법이 대표적
마음실상 찾는데 촛점

총지종의 개조인 원정대성사는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음을 갈파하면서 실천불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자 어려운 밀교의 수행법을 일반대중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간소화했다. 이러한 총지종의 이념은 편의보발과 함께 도심에 현대화된 사원을 건설하므로써 누구나 쉽게 불문(佛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의례와 의식을 극히 간소화하고 밀교의 수행법에 의하여 오직 마음의 실상을 찾는 데 그 수행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총지종의 수행법은 법사(法師)나 스님에게만 의지하여 염불하고 불공드리는 의타적인 기복의 불교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스스로 밀교의 비법을 직접 수행하므로써 증득할 수 있는 실천불교이다. 이러한 점들이 타종단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지종은 비밀밀교와 재가불교라는 뚜렷한 특색을 지니면서 대승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밀엄국토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창종된 밀교종단으로서 향후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모습의 종단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소의경전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대일경(大日經)]
–금강정경(金剛頂經)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소의경전과 법구

주요 산하기관

◇통리원 : 중앙 종무행정기관
◇중앙종의회 : 종단 입법 및 의결기구
◇사감원 : 종단 감사기관
◇교구청 : 지역대표기구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교구)
◇기로원 : 원로 퇴임스승 봉양기관
◇수련원 : 수련 및 휴양기관
◇연구기관 : 법장원, 밀교연구소
◇교육기관 : 중앙교육원, 총지불교대학, 종립동해중학교
◇언론기관 : 총지종보사
◇법인 :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부설법인 :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각종 의결기구 : 원의회, 인사관리위원회, 전당건설위원회, 종정자문위원회, 종립학교이사회, 재단법인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이사회.

주요 불사일정

새해불공(새해 첫 1주간), 종조탄신일(양1.29), 월초불공(매월초 1주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양2.19 ~ 4.8), 춘계강공회(매년 4월중순), 연등회(음4.8),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양5.28 ~ 7.15), 종조멸도절(양9.8), 추계강공회(매년 10월중), 창교절(양12.24)

◆ 주요불사 계획

사 업 명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광주 법황사 헌공불사	2003년 5월	광주 법황사	사원신축완공에 따른 전당헌공불사 봉행	
여름청소년수련법회	2003년 7월 (2박3일간)	충북 괴산 수련원	종립학교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수행체험행사	
여름어린이 수련법회	2003년 8월 (2박3일간)	충북 괴산 수련원	종단 어린이의 심신단련 및 수행체험행사	
경로법회	2003년 8월 (2박3일간)	충북 괴산수련원	종단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개최. 휴양 및 여흥을 위한 시간 마련.	
은빛축제	2003년 10월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경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잔치 개최. 다양한 행사 마련.	
노인휴양소 개설 시설 운영 계획	2003년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노인들을 위한 휴양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전주 흥국사 헌공불사	2003년 10월	전주 흥국사	노인들을 위한 휴양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만다라 친견공덕

여래의 果이루며 깨달음 성취

◎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만다라에 들어가면 모든 악취(惡趣)가 멸하여 진다.
◎ 이 만다라를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하면 모든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
◎ 일체의 바라는 바를 두루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상(無相)의 환희와 안락과 희열이 일어난다.
◎ 악취(惡趣)에 드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引導)한다.
◎ 이 만다라를 친견하고 관상(觀想)하면 여래의 과(果)를 이루며, 깨달음의 성취를 속히 이루게 된다.
《금강정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대교왕경》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1
홈페이지: www.chongji.or.kr

진언염송과 만다라 친견으로
소원성취 · 즉신성불 이루소서

만다라 친견은 언제든지 서울 총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 친견과 함께 진언염송수행을 체험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곧 만다라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간 가득 자비 싣고 소중한 인연 찾아가요”



◇<소쩍새마을>의 편집진인 정수근 · 홍석원(오른쪽에서 두번째 · 세번째) 기자와 승가원 직원들이 10주년 기념호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소식지 ‘소쩍새마을’
창간 10돌 주역들

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장애인 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 식구 박태근(19) 군. 어릴 때 소쩍새마을에 들어온 지체장애자인 박 군은 올해 초 원주농고를 졸업, 영동대학 호텔조리과에 입학원서를 냈다. 하지만 아무도 박 군이 대학에 진학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등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원회원 10만명 … 매달 6만부

그러나 <소쩍새마을>은 박 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자신을 임 모씨 부부라고 밝힌 사람들은 박 군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박 군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다”며 “결연을 맺어 졸업 때까지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쩍새들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인 <소쩍새마을>이 맺어준 인연 덕분에 한 장애인의 꿈이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한 가지 일에 지치지 않고 10년을 매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수마저 적다면 더욱 그렇다. 장애인 법우들의 소식을 싣고 전국 후원자들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신문. 월간 <소쩍새마을>(신문대판 8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믿음직한 일꾼들이다.

후원회원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소쩍새마을>의 정식 기자는 홍석원(35) · 정수근(29) 씨 뿐. 그러나 단 둘만이 매달 6만부의 신문을 찍는 것은 아니다. 현각스님(소쩍새마을 원장)을 비롯 김용진(총무과장 · 34), 김연경(홍보팀 · 31) 씨 등 10여 명의 승가원 사무국 직원들은 오늘의 <소쩍새마을>을 일군 주역들이다.

이들은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소쩍새마을> 편집회의에 참석,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총무팀 방수정(25) 씨는 “신문을 만들어 놓고 독자의 위치에서 읽다보면 마을 식구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난다”며 “조금 더 좋은 지면을 만드는 일이 곧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에 피곤함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한다.

신문이 인쇄돼 세상에 나오면 승가원 식구들은 밤늦도록 발송 작업을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찰과 복지관을 다니며 신문 홍보도 한다. 양영숙(회계팀 · 37) 대리는 “내 조그만 노력이 소쩍새 식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발송 작업도 즐겁다”며 “승가원 직원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발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동안 <소쩍새마을> 신문 발간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홍석원 기자는 첫 활동을 시작하던 98년 무렵을 이렇게 회상했다. “취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뜸 ‘거기 도둑놈 집단 아니요?’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일력 스님의 횡령 사건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소쩍새마을은 95년 7월 ‘아빠 스님’으로 알려진 일력 스님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중 분해될 위기를 맞았다. 후원자가 끊기고 자원봉사자가 떠나면서 이듬해 2월까지 신문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중앙승가대가 소쩍새마을을 인수하고 승가원 간판을 달았다. 그렇지만 운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소쩍새마을의 어려움은 커져만 갔다.

불교사회복지 기사 발굴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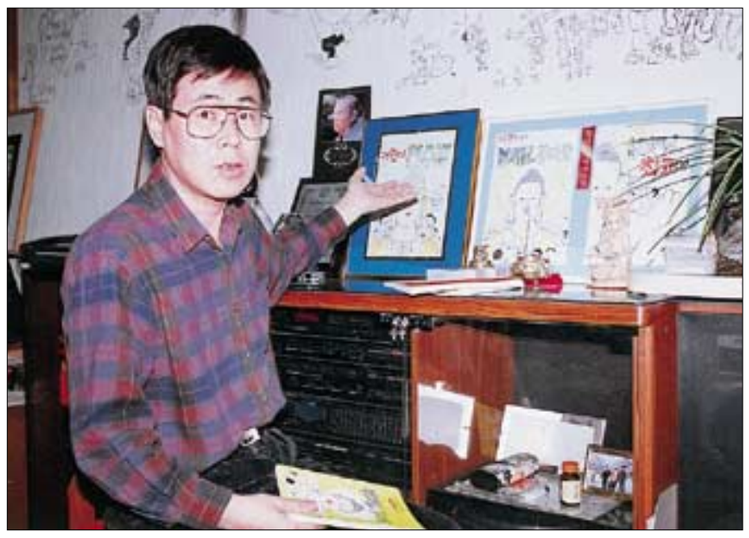
이 때 홍 기자를 포함한 승가원 직원들이 소쩍새마을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기서 무너지면 소쩍새마을은 끝장”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의 원고를 받아 소쩍새마을 이미지를 개선한 것은 기자들의 몫이었다. 승가원 직원들은 신문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밤늦도록 작업을 거들기도 했다.

이런 남모를 노력들이 모여 지금 <소쩍새마을>은 6만부의 부수를 자랑하는 알짜배기 소식지로 성장해 행간마다 자비를 가득 실어 나른다. 후원자들도 다시 10만여 명으로 늘어나 200여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게 된 것이다.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불교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달공거사 이정문 화백

만평 · 만화 ‘똘이네 가족’ 10년째 연재 … 원고료는 전액 ‘소쩍새마을’에 기부



◇81년 광덕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정문 씨는 <소쩍새마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편집진의 일원으로서 소식지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더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환하게 웃게 되길 바랍니다.”

<소쩍새마을> 편집진의 한 사람이자 후원자 중에 인기 만화가가 있다. ‘심술통’, ‘철인 캉타우’로 유명한 이정문(62) 화백이 바로 그 주인공.

“81년 불광사 법주 광덕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 만화에 심취하게 됐다”는 이 화백은 93년 한국만화문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하면서 소쩍새마을과 인연을 맺게 됐다. “94년 1월 소쩍새마을을 방문했을 때 장애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움막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이 화백은 10년 동안 빠짐없이 <소쩍새마을> 신문에 만평과 ‘똘이네 가족’이란 만화를 연재하고 원고료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이 화백과 함께 심우회원인 박수동 · 고우영 · 신문수 화백도 10년째 소쩍새마을을 후원하고 있다.



릴레이 수행일기 〈上〉



김윤숙

변호사

사람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명상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왜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나? 기억을 더듬으니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른다.

나는 대학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나 그러하듯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혼란에 빠졌다. 학문적인 책을 읽어보아도 어떤 학파와 또다른 학파는 오랜 세월동안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주장은 모두 한편으로 일리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적 진리를 말해줄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불변의 진리란 없는가 하는 허탈감에 빠졌다. 학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갈증 외에 나를 명상으로 이끈 또 하나의 원인은 언제부터인가 가슴 한 켠에 자리하고 있던 뭐라 딱히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슬픔이나 아픔 같기도 하고 허전함 같기도 한 감정의 덩어리였다. 평소에 큰 불편은 없었고 남들도 잘 알아채지 못했지만 항상 가슴 한 켠이 싸아한 것은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이 감정이 도대체 무언지 언젠가는 꼭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1995년 여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끝낸 후 주변의 소개로 문경의 정토수련원에서 마련한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혜봉 선생님(당시에는 '원명 법사')을 만났다. 그때까지 불교에 대한 막연한 친근감은 있었지만 불교나 명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몰랐는데도, 혜봉 선생님이 지도하신 5박 6일 프로그램이 끝나자, 헤매던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佛法)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이 분이라는 것을 막연히 느낄 수 있었다.

첫 수련이 끝난 후 혜봉 선생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준 첫 과제는 1만 배 정진이었다. 사찰에 가면 한 번씩 절을 하고 나온 적은 있었어도, 절 수행을

수련회 참석 고민·갈증 해소 계기

1만배 정진, 욕심 부리지 않는 삶 다짐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잡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절을 해나가는데 2천 배를 넘어가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3천 배에 가까이 가니 절이 아니라 그냥 쓰러지는 수준이 되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아프고 다리에는 양 옆으로 수레바퀴가 지나간 듯 복숭아 뼈부터 허벅지까지 굵은 멍이 들어 있었다. 1만 배를 하는 동안 내내 다리가 아파서 참 많이 울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장마비속에 넘어져 옷을 다 버리기도 여러 번이었다. 남들은 어렵지 않게 마치는 1만 배를 너무나 힘들게 요란스럽게 마치던 마지막날, 부처님 전에 울면서 다짐했던 것이 떠오른다. 욕심부리지 않고 한 발짝씩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땐 그저 아무 것도 모르고 절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아만이 깊었기에 선생님이 첫 과제로 1만 배를 주셨을까 깊이 참회가 된다. (계속)

음율·진동관으로 몸·마음 비우기



◇옴수련과 진동관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우는 '관수련'에 몰입하고 있는 연화사 수련생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연화사의 '관(觀)수련'

19일 영동-중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새벽 빗길을 달려 연화사(주지 구선)의 '관(觀) 수련' 현장을 찾았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 중턱에 위치한 연화사는 시냇물을 건너 한참 산길을 오른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아담한 높이의 산 봉우리들로 둘러쌓인 연화사는 절 이름 그대로 연꽃의 가장자리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주변의 운치를 감상할 시간도 없이 선방에 들어서니 막 주말수련회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옴 수련'은 소리의 파장을 통해 기를 연마하는 토음기공(吐音氣功)이자 음율관의 일종인데, 목적은 가슴바탕에 고요함을 배양하여 의식의 근본을 관할 수 있는 각성을 얻는데 있어요. 또한 가슴바탕의 고요함을 인식함으로써 현상의 공(空)한 면모 즉, 드러난 것의 이면을 보도록 하지요."

연화사 주지 구선스님이 4념처관과 주력, 기공 등을 응용해 만든 '관(觀) 수련'의 기본 행법인 '옴 수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이것 저것 질문을 던진다.

"옴수련때 외우는 '옴'과 '옴마니반메훔' 진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옴마니반메훔 즉 관세음보살육자대명왕진언을 축약한 소리가 '옴'이예요. 옴은 'a/u/m'의 합성어로서 각각 만물의 발생, 유지, 소멸을 상징해요. 우주의 근본음이자 파동이죠."

문답에 이어 구선 스님은 관수련의 또 하나의 행법인 진동관에 대해 설명한다.

"엄지와 검지를 접촉한 채 촉감으로 전해지는 느낌을 관찰하는 진동관(振動觀)은 기감(氣感)을 일깨우고 기를 내장하기 위한 통로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죠. 4념처관 가운데 신관(身觀)과 수관(受觀)에 해당합니다."

한 수련생이 진동관의 효과에 대해 질문하자, 스님은 진동관이 수행상의 상기병(上氣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수행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생각이 과다해서 의식의 초점이 두뇌에 쏠리는 상기현상을 방치하면 심신의 병이 되는데, 진동관을 취해주면 가라앉는다는 게 구선스님의 설명이다.

강의가 끝나고 구참자들이 다른 선방에서 옴수련과 진동관을 병행하는 자율정진을 하는 동안 초보자를 대상으로 옴수련이 진행된다.

수련생들은 둥글게 마주앉아 목과 어깨는 편안하게, 척추는 곧게 편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슴의 중심(가슴바탕) 부분에 의식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지점은 명치에서 1㎝ 정도 위쪽 지점, 몸 속으로 5㎝ 쯤 들어간 곳이다. 이어 수련생들은 가슴의 중심에 의식을 둔 채 숨을 아랫배까지 깊이 들이쉰다. 숨을 내쉬면서 '옴~' 하고 소리를 낸다. 혀는 입안의 가운데 높이에 위치한다. 가슴의 중심에 의식을 두고, 가슴의 중심에서 소리가 시작되어 둥글게 구(球)의 형태로 울려 퍼지도록 한다. 옴수련을 통해 마음은 고요하게 안정이 되고 의식은 번뇌가 다스려져서 더욱더 명료해 진다고 한다. 이유는 장부의 음기를 배출시켜 번뇌를 줄여주기 때문이란다.

10년째 관 수련을 하고 있는 강영상(36 · 대구) 거사는 이렇게 체험담을 말했다."가슴바탕의 고요함에 입각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가슴의 고요함이 의식의 중심이 됩니다. 말하자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비추어 보는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화사는 정기 주말 수련회와 함께 오는 5월 3~7일, 6월 6~12일 6박7일간의 수련회를 연다. (054)682-0405 영양=김재경 기자

내면의 고요함 인식, 현상의 공 관찰

몸에 전해지는 감각 통해 상기현상 다스려

심공(心空)은 근본 인식 척도

"화두든 염불이든 주력이든 자기 중심을 세울 때까지만 필요해요. 마음에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편이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연화사 주지 구선스님은 자기 중심을 좀 더 수월하게 갖추기 위해 방편이 필요하다면서 쉽고 간단하게 행할 수 있는 옴수련과 진동관을 제시한다.

구선스님은 옴수련을 통해 가슴바탕에 튼튼한 고요함을 배양해 놓으면, 수련 중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동요됨 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옴수련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가슴바탕에 자리한 고요함이 뚜렷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슴바탕과 접해지는 경계를 동시에 주시할 수 있는 '의지적인 힘'이 생긴다고 한다.

스님은 가슴바탕에 중심이 형성된 것, 그 중심이 빈 자리가 된 것을 "마음이 공했다"는 의미의 심공(心空)으로 표현한다. 이는 자기 정립의 측면에서 볼 때 근본(본래면목)을 인식하는 척도다. 근본의 공함을 드러내고 색수상행식 오온의 면모를 발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길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84년 망월사로 출가한 스님은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을 비롯한 제방의 큰 스님들께 참문하며 만행수행을 하다 독특한 체험을 얻은 후 관수련법을 창안하게 됐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쉴 줄 아는 지혜>를 출간한다.



연화사 주지 구선 스님

수행 캘린더

■명상아카데미 수련=명상아카데미(www.bodhitao.com)는 5월 5~9일, 5월 25~30일 오대산 수행처에서 5박6일간의 '깨달음의 길' 수련을 갖는다. (02)598-7180

■선어록 입문=선어록연구소(www.songchina.com)는 5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서울 사당역 근처 강의실에서 '선어록 입문' 강좌를 연다. 선어록연구소장 송인성 박사가 선종 어록 소개 및 원문 선독 등으로 진행한다. (02)597-0787

■아비담마 길라잡이 특강=초기불전연구원(www.chobul.com)은 5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 서울 홍제동 수미정사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특강법회를 연다. 5월 1일 4성제를 중심으로, 15일 37조도품을 중심으로, 22일 아비담마 개요, 29일 마음(citta)의 길라잡이 등. (02)391-8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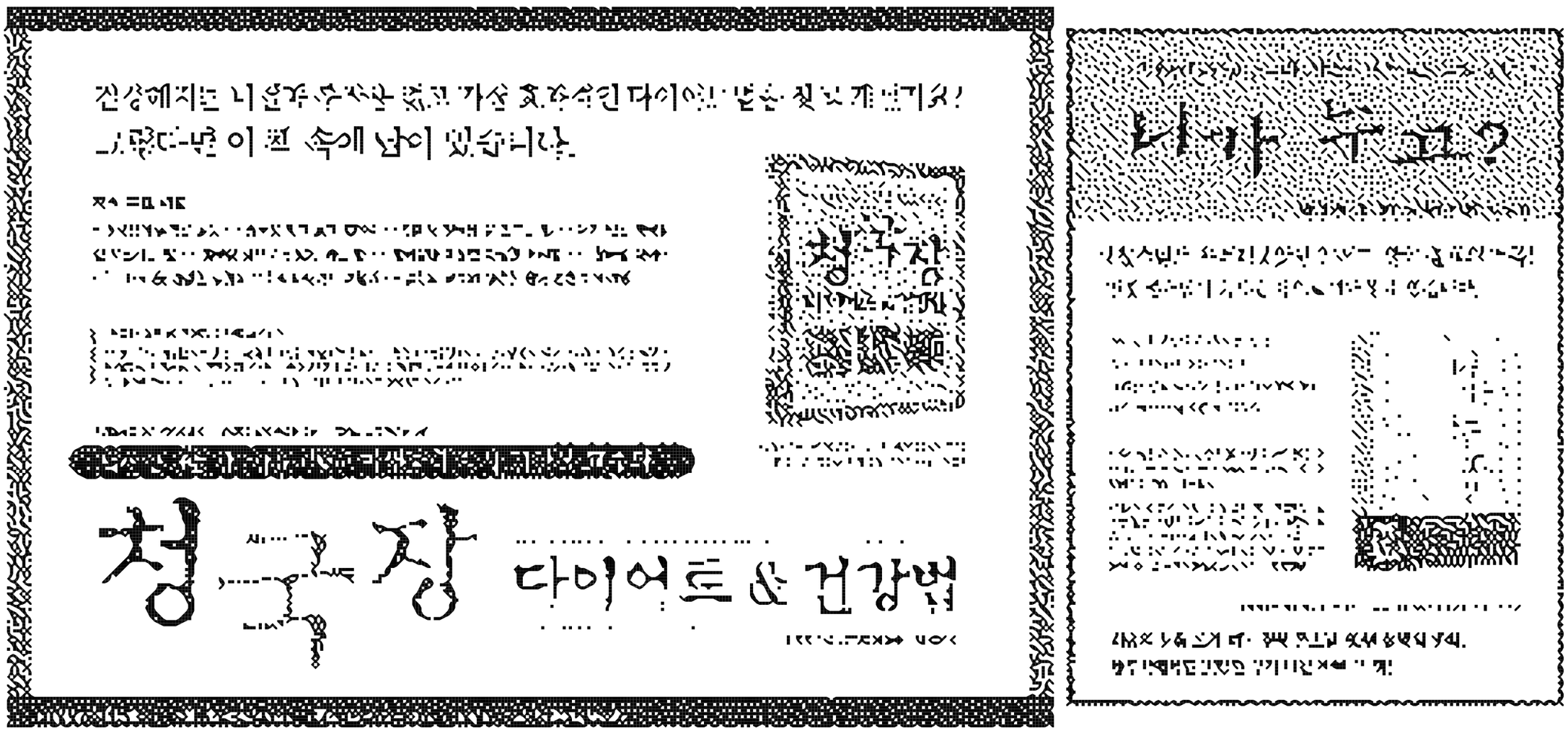
■위빠사나 입문=보리수선원(www.borisu.or.kr)은 5월 12~ 23일, 6월 9~20일 초보자를 위한 열흘간의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 5월25~31일에는 안성 수행처에서 7일간의 집중수행을 한다. (02)517-2841

■전심법요 강의=부산 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심법요',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 '선으로 읽는 금강경'을 강의한다. (051)515-7226

■관법(觀法) 명상=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www.sgsb.ac.kr)는 5월 3~5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도피안사에서 제4차 관법(觀法) 명상 수련회를 연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용식 교수가 지도한다. 7만원. (02)808-6582

■불가기공 수련=혜인선원(www.bulga.co.kr)은 월~토요일 오전 6시 30분와 10시30분, 오후 2시 및 7시 30분 요가 또는 기체조반(매일반, 주3일반)을 운영한다. (02)313-2107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www.pureland.or.kr)는 5월 4일(첫째 일) 오전 10시 성남 정토사에서 회주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을 초청,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주제의 법회를 연다. 이어 5월 17일(셋째 토) 오후 8시 정토사에서 철야 염불정진법회 를 연다. (031)723-9797



노래·보시·봉사 모두가 한마음



◇4월 21일 부산 대덕사 개원법회에서 음성공양하는 자비실천 합창단.

바라밀현장

자비실천 합창단 음성공양

음성공양 필요한 곳 찾아가기 10년

연습·공연 모두 정진… "무료가 원칙"

"거울을 닦아내듯 마음을 닦아~ 지혜의 씨를 뿌려 복전을 닦고 ♬♪~."

21일 부산 대청동 보덕사 개원법회에는 주황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비실천합창단(단장 한 대각행)의 음성공양이 울려 퍼졌다. 좁은 법당에서 그리 많지 않은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찬불가지만 노래하는 마음은 결코 큰 무대에 설 때와 다름 없다. 법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이미 행사장에 도착해 방안에 옹기종기 모여 연습하는 모습에서도 정성어린 찬불가 보시의 마음이 담겨있다. 합창단원들이 연습하는 동안 한 단장은 개원법회의 이모저모를 챙기며 종종걸음을 친다.

특정 재적사찰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자비실천합창단이 보덕사처럼 합창단이 없는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에서 음성공양 봉사를 펼쳐 온 지도 벌써 10년째를 맞았다. 94년 7월 22일, 찬불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찬불가 교실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 5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는 어엿한 합창단이 되었다.

한 단장은 회원들이 내는 1만원의 회비와 사비를 털어가며 힘겹게 합창단을 이끌면서도 합창단을 초청한 곳이 어려우면 차비 한 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십시일반 보시금을 걷어 내놓고 오기도 한다. 이런 한결같은 자비실천의 마음이 회원들의 보시와 봉사로 확대되었고, 음성공양을 인연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충당에 나서고 있는 김임순(52) 보살은 "노래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다 같아요. 봉사에 쓰이는 돈은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게 회향된다는 걸 알고 난 후,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시로 김해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문방문시 떡, 단주, 과일 공양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해지역을 방문할 때는 버스 한 대와 트럭에 물품을 가득 싣고 찾아가 자비행을 펼쳤다.

"찬불가를 배우다보면 부처님의 마음을 알게 되요. 찬불가를 배운 후 많이 변화한 저를 보고 주위에서 찬불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7년 전부터 음성공양 봉사를 하고 있는 유미경(39) 보살의 말에, 봉사 10년 차인 이복금(54) 보살도 말을 거든다.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를 듣고 많은 이들이 불연을 맺고 고통과 번뇌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요."

노래가 곧 기도이고 정진인 자비실천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어 보덕사의 개원법회에 참석했던 불자들은 해탈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갔다. (011)859-1547

부산=천미희 기자



자비실천 합창단 **한 대각행** 단장

찬불가는 신심·행 하도록 하는 힘

"찬불가는 기복불교를 벗어나 바른 신심과 행을 하도록 마음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필요한 곳에 달려가 노래 한 곡이라도 불러주는 행(行)을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 대각행(65) 단장은 이러한 신념 하나로 자비실천합창단을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 개원식, 영가천도 49재, 음악회, 양로원에서 하는 노래봉사와 매년 동지마다 해온 팥죽공양을 비롯, 그늘진 곳을 찾아 자비행을 펼치는 한 단장은 온통 봉사의 마음뿐이다.

"심부름꾼이죠. 힘든 때도 많지만, 찬불가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져 자비실천의 행이 끊이지 않길 바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부처님만 알아주면 그만 이라는 한 단장의 변함없는 신심과 원력은 자비실천합창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한 단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찬불가를 배우고 함께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불가 보급에 남은 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心 마음비추기

자신과 남을 해치는 논쟁

추운 지방을 본거지로 하여 번식하는 새 중에 백설조(百舌鳥) 라는 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만 되면 나타나 떼를 지어 다닌다.

이 새를 티티새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 우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한 농부가 자신이 숭상한 성자의 기념일에 그물로 몇 마리의 티티새를 잡아 아내에게 숫 티티새를 사냥해 왔으니 요리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자 아내는 티티새를 보고 "당신이 잡아온 새들은 숫 티티새가 아니고 암 티티새"라고 하면서 "어떻게 암수를 구별 못하느냐"고 나무랐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놈들은 분명히 숫놈으로 당신이 바보 같아서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굽히지 않았고, 옥신각신 한 끝에 화가 난 남편은 몽둥이로 아내를 두들겨 팼다.

그럼에도 아내는 끝내 굽히지를 않았다. 남편은 더 때려서라도 아내의 고집을 꺾고 싶었지만 큰일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락을 맺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성자의 기념일이 다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1년전의 일을 떠올려 남편에게 작년 일을 이야기 하면서 그 티티새들은 암놈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생각해도 그 티티새는 숫 티티새라고 말했고,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어 아내는 심한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다.

웃지 못할 일은 이와 같이 숫 티티새냐, 암 티티새냐 하는 싸움은 1년마다 되풀이 되어 아내가 죽을 때 까지 무려 17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명분 없는 자존심싸움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번쯤 되새겨봄직한 고사이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항상 다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부부간에 이런 식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부처님께서는 '무의미한 일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희론' 이라 하여 금하게 하셨다.

따질 것은 따져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나를 세우는 자존심이나 상대를 꺾어야겠다는 호승심은 자신과 남을 괴롭게 한다.

옳고 그름을 세우면서도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효운 스님

'깨달음의 교육' 제창

지난 해 7월 11~18일 대만 대북시 화범(華梵)대학에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일명 사키야디타) 대회를 주관한 화범대학 이사장 효운(曉雲) 스님. 대만 비구니계의 원로인 효운 스님은 93세의 노구로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해 찬사를 받았다.

1990년 세계 최초로 불교와 현대 기술교육의 융합을 시도한 화범대학의 설립자인 효운 스님은 불교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홍콩에도 불교문화예술학원, 혜해(慧海)중학 등의 학교를 세운 교육계 원로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수행을 사회로 회향하는 자세가 철저한 대만 비구니계의 상징같은 존재인 효운 스님은 '깨달음의 교육(覺之教育)'을 제창해 왔다.



◇효운 스님.

효운 스님은 그동안 '불교 환경교육과 자연세계관', '깨달음의 교육과 생명의 화해', '종교교육이 어떻게 시대의 인심을 선도할 것인가', '부처님의 심리환경교육은 자리이타의 가르침' 등을 주제로 연구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해 왔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의 교육'이란 자성(自性) 즉 원융한 본체자리에서 인문정신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교육이었다.

"'깨달음의 교육'이란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계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갖게 하고 사람과 만물이 상생(相生)하고 공존함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교육, 심리교육, 자아교육, 사람 살리는 교육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까지 이해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화범문교기금회 창립이념 중)

사람들은 수목과 꽃, 풀들이 땅 위에서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상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들 역시 지구라는 대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과 부처, 수목과 화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이는 깨달음의 교육이 인심에 넓고 깊게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효운 스님의 생각이다.

1912년 중국 광동성(廣東省) 남해(南海)에서 태어난 효운 스님은 사천(四川) 창원(昌員)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어려서 부친으로부터 서화(書畵)를 배운 효운 스님은 '영남(嶺南의 여화걸(女畵傑)'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 출가이후에도, 인도에서 고인도 문화와 인도예술을 공부하며 불교예술의 지평을 넓혀갔다. 태국의 예술대학 석좌교수, 중국 문화대학 등의 교수로서 철학과 예술을 강의하기도 한 스님은 수많은 전시회를 열고, 논집과 서화집, 시집 등을 발간해 대만의 불교사상 및 불교예술 교육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효운 스님의 '불학 및 예술교육을 통한 인간정토(人間淨土) 구현'의 원력으로 설립된 화범대학은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나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씩씩한 정진으로 자신의 수행, 교육, 사회봉사를 쉬지 않고 펼치는 그의 모습은 세계 비구니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찬사를 얻기에 충분하다.

화범대학 황우체 교수는 효운 스님을 이렇게 평한다. "스님은 숭고한 예술적 조예와 위대한 지혜를 갖춘 분이다. 사람을 멀리한 채 산림에 은둔해 홀로 수행하는데 머물지 않고 저잣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큰 은둔'을 펼쳤다.

이는 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한 보살의 길을 보여준 것으로 길이 찬탄받을 만한 일이다."

김재경 기자

세계 최초 불교와 현대 기술교육 융합 시도

'불학·예술 통한 정토구현'은 대학설립 이념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5월 3째주, 5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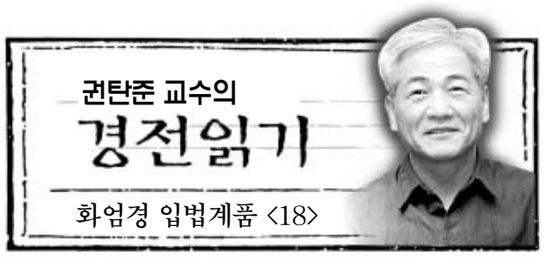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스님.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스님(☎011-9793-6420)은 지난 여름 어느 날(2002, 8월) 어느 종가 집 종손에게 시집가서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애태우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신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 그 부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병원에서의 의학적 소견으로도 임신을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파동명상요법**으로 왜 그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의 근원에 접근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여성의 자궁 속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죽은 친정어머니의 영혼이 들어 앉아있었고 그 여성이 임신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그 어머니 영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스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내어 왜 그곳에 있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한평생을 너무나 가난하고 한 많게 살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좋아서 딸의 몸을 빌려 다시 이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어 딸의 자궁 속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영가를 잘 타일러 천도를 해주었는데 그 후, 그 여성은 그렇게 소원하던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은 산달이 가까워져오고 있다고 한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덕운비구의 가르침

문수보살의 지도에 따라 덕운비구를 찾아간 선재동자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며 보현행을 빨리 원만케 하는지 가르쳐주기를 청한다. 이에 덕운비구는 선재동자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어서 보살의 행을 묻는 것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착한 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청정하고 지혜 빛이 밝게 비치므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었으며, 교묘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여래를 항상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른바 동방에서 한 부처님 · 두 부처님 · 열 부처님 내지 불가설 불가설 부처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을 뵈옵느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 · 서방 · 북방과 상방 · 하방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낱낱 방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갖가지 빛깔 · 갖가지 형상 · 갖가지 신통 · 갖가지 유희 · 갖가지 모인 대중과 장엄한 도량 · 갖가지 광명이 끝없이 비치는 일 · 갖가지 국토 · 갖가지 수명과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어서 대중들 가운데서 사자후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나는 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보는 법문(憶念一切諸佛境界智慧光明普見法門)을 얻었다."

지혜의 눈으로 일체제불을 보라
억념염불은 보살도 실천의 근본

여기에서 설하는 바와 같이 덕운비구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일체의 경계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시방세계에서 항상 널리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과 그 경계를 자유자재하게 볼 수 있다. 이 법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혜의 눈을 갖고 항상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 그 경계를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덕운비구가 선재동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염불삼매를 닦으라는 것이다.

덕운비구는 지혜의 눈을 갖고 항상 시방세계의 일체 제불을 본다고 하면서 보살들이 지혜를 갖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21가지의 염불문(念佛門)을 설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염한다. ② 부처님이 중생들을 전도된 삶에서 떠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염한다. ③ 부처님은 위대한 열 가지의 힘을 가지고 계심을 염한다. ④ 부처님은 어떠한 법에도 전도됨이 없음을 염한다. ⑤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항상 상주하고 계심을 염한다. ⑥ 부처님이 국토에 따라서 몸을 달리 나타냄을 염한다. ⑦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염한다. ⑧ 부처님이 일체 장소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염한다.

이와 같은 염불문은 부처님의 덕을 염하는 것으로서, 실천적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정토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염불과는 뜻이 다르다. 즉 이 염불은 칭명염불이 아니라 부처님과 그 세계를 일념으로 생각하는 억념염불(憶念念佛)이다.

문수보살의 지도에 따라 찾아간 최초의 선지식에 의해 염불이 설해지는 것은 염불이 보살도의 실천에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이상으로 하여 그 덕을 기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의 덕을 일념으로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모든 보살행에 앞서게 된다. 그리고 항상 염불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뇌와 어려움을 소멸시키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행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염불삼매는 보살도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불삼매는 모든 부처님과 그 경계를 보게 해 주며, 중생들의 원에 응해서 자비의 행을 펼치게 하고, 부처님의 큰 힘을 염해서 수습하는 등 여러 가지의 덕이나 자재한 작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러한 염불삼매를 제대로 닦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안목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혜의 눈을 얻어야만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가 있고, 진정한 부처님을 발견해 내는 것이 깨달음의 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⑬

돈교에 대한 징관의 입장(2)

부처님 설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별은 천태종에서 강조한 것이다. 설법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이 경험한 법에 대한 분류이다. 반면에 설법의 방법은 체험 내용을 대중을 위해서 세우는 방편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교는 설법의 내용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방법에 대한 규정인가? 혜원은 돈교란 교설의 내용이 아니라 교설의 방법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그러나 징관은 혜원의 돈교에 대한 이해는 천태종의 견해에 일치된 것으로 화엄종 법장의 이해는 아니라고 비판한다. 법장은 '말없는 말로서' 단박에 이치를 드러내 '한 부류의 기틀을 위해서' 돈교를 세웠다고 징관은 말한다.

천태종에서는 돈교가 설법의 내용이 아니라 설법의 양식이기 때문에 따로 돈교를 세우지 않았지만, 화엄종에서는 설법의 양식과 더불어서 설법의 내용으로서도 돈교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징관은 혜원이 자신의 스승인 법장의 견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몸만 화엄종이지 정신은 천태종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돈교를 '말 떠남'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정의한다면 경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교설로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부처의 교설은 말 떠남의 가르침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기에 별도의 경계선을 그을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돈교의 근거 불교계 현실서 찾아

만약 화엄종의 주장처럼, 화엄의 돈교가 실제로 교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설의 대상으로서 이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현실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돈교에 해당되는 부류(根機)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징관은 당시에 새롭게 일어난 선종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돈교는) 곧 선종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달마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돈교이다. 하나의 말을 가르쳐서 곧장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卽心是佛)'라고 설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하리오. 그런 까닭에 말없음의 말에 의지하여 곧장 말 끊어짐의 이치를 드러내니 이 역시 교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남 · 북종의 선이 돈교 아닌 바가 없다.

화엄에서 보면 선은 바로 돈교이다. 화엄종에서 돈교를 시설할 때는 결코 선종을 염두에 두고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징관은 혜원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분명하게 선종을 돈교에 배속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시키고 있다. 먼저 돈교를 교설로 분류하면서도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징관은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卽心是佛)'라는 교설이 바로 직접적인 가르침(能詮)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설을 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없음의 말(無言之言)'로서 이치를 단박에 드러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 그리하여 징관은 결과적으로 새로 발생되고 있는 선종을 화엄의 오교판 가운데 하나의 교설이란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법장이 돈교의 근거를 경전에서 찾았지만, 혜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징관은 현실적인 불교계의 상황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선종의 변화된 위상과도 관계된 시대적인 차이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엄과 선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화엄의 오교판은 결국은 화엄종의 우위라는 종파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없고, 이점을 선종에서는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고려 보조지눌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중유(中有)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다. 불교의 윤회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이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 번 살펴보겠다. 윤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최면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최면과는 관계없이 평상시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마음이 유전하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전생의 기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이며 이 대학 부설 환생연구소장을 역임한 정신과 의사인 아이안 스티븐슨이 가장 유명하다. 스티븐슨은 연구팀과 함께 전세계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2,000여 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확실한 환생으로 생각되는 20개의 사례를 모아 <환생을 시사하는 20개의 사례>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매우 학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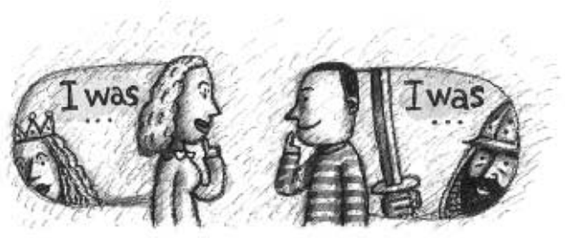
윤회 연구자 "사실 · 환상 섞여 있을 수도"
영혼은 태아에 이식됨으로서 진화, 유전

최면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1988년 미국 임상최면학회가 공인한 <최면과 기억>이라는 책에 의하면 "최면에서 회상된 기억은 사실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사실과 환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시 말하면 윤회는 사실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사실과 환상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음의 유전이라는 분야에서는 1977년 신경생리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에클스 경(Sir John Eccles)이 <뇌의 진화>라는 저서를 통하여 영혼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코 제거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으며 그것은 태아에 이식됨으로서 영혼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혼은 진화하며 유전된다고 하였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럿셀(Peter Russell) 역시 의식은 두뇌와는 별개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기에 마음은 진화의 요체라고 하였다. 특히 생물학자이며 유물론자인 영국인 리차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저술에서 유전자는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밈(meme)이라고 불렀으며 이 밈을 통하여 문화가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도킨스의 밈이라는 구조는 유전자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말하는 밈은 누가 보아도 '마음'과 동일한 말이다. 결국 유물론자인 도킨스도 스스로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유전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미얀마 남방 수련법회 및 남방 수계, 보살계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와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증서 및 수료증)
▶ 위빠싸나 수행 체험 및 강좌
▶ 탁발체험 및 1日 1종식 체험
▶ 미얀마 성지순례(양곤, 파간, 만달레이, 삔띠야 등)

행사기간 2003.6. 6 - 6. 16 (10박 11일)
참여준비물 사진(반명함) 6매, 여권
참여인원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 자 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지순례지
양 곤 (쉐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탓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지사원, 까바에파고다)
파 간 (쉐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탓비인뉴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삔띠야 (신고운 따운 사원, 삔띠야 동굴)
만달레이 묘 (꼬울롱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간 (肝) 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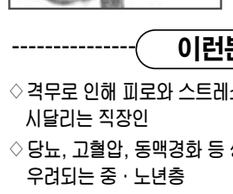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 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헌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린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7화)

"기름진 밭에 먼저 씨 뿌린다"

〈출전 : 잡아함경 제32: 915경: 2-230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국회의원의 음주 운전

당연한 일이 신선한 뉴스?

어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화제다. 현역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라는 진기록을 세운 이 국회의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인기가 치솟는 이상한 현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선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 동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무시했기 때문이지 이 국회위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게 어디 선재 생각뿐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신선한 뉴스였다.

이 국회위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고 한다. 그것도 놀랄 일인데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선재를 더욱 놀라게 했다. 별정직 공무원인 운전기사를 정식 근무 시간에만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침 7시에 의원이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해서 9시부터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게 하는 일, 오후 5시 이후에도 역시 직접 운전을 하는 일, 이런 일이 예사는 아니니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을 보면서 선재는 이런 것이 '말법'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말법이 별 게 아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상식이 상식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말법시대이다. <원각경>에서는 "세존이시여, 말세 중생들은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 법과 점점 멀어지고 성현은 숨어 친견하기 어려우며 삿된 법은 더욱 치성하올 때 이들 중생들이 어떤 사람을 찾아 어떻게 발심하여야 저 눈 어두운 무리들이 사견에 떨어지지 않으오리까." 하는 물음에 "정지견(正知見)인 선지식을 구할지니라." 하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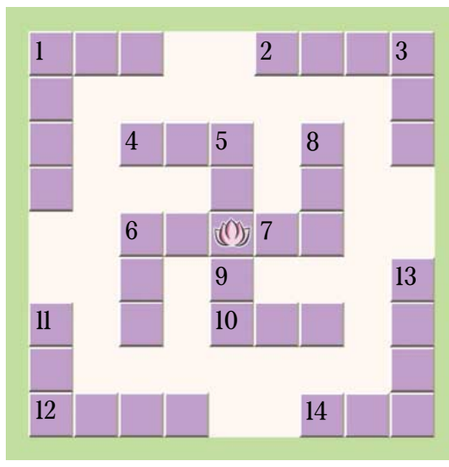
말법에도 바른 부처님 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처신이다.

"사람이 태어난 곳은 각각 다르나 다만 깨끗한 계를 가지게 하고, 무거운 짐의 번뇌를 떠나 순수하고 한결같이 범행을 닦으면, 그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요, 고해를 잘 건너간 선서(善逝)이니라."

<잡아함> '성문경'의 말씀이다. 선재는 이번에 음주운전 국회의원이 아라한이 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고려 보조국사가 지은 서적으로 참선으로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한 것들을 기술한 책.(修心訣) 2. 석존이 출가 전 싯다르타 왕자시절 결혼한 부인 4.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찬양하는 노래 6. 계법을 지키는 것 7. 사원이 산에 세워지는 것에서 생겨난 이름으로 사원의 문을 이것이라고 부름 10. 법보의 누적이라는 뜻을 가진 경전으로 보통 원명을 따라 <대00경>이라고 함.(寶積經) 12. 세속에 있으면서 불법을 전하는 사람 14. 전남 순천시 승주읍(昇州邑) 조계산(曹溪山) 동쪽에 있는 사찰. 태고총림으로 차 생산지로 유명함.

〈418호「교리퍼즐」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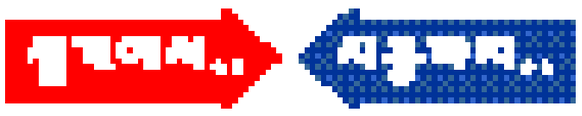
세로

1.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신 것을 일컫는 말. 대기설법이라고도 함 3. 석존의 아들. '수행의 장애자'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 5.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청정한 장소. 지금은 사원 또는 사원 건조물의 의미로 사용 6. 모든 재앙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모시는 부처님 8. 절에 재물을 기부하도록 권하는 글. 권선문(勸善文)이라고도 함 9. 불자가 의지하는 세가지 보배. 부처님(佛)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法)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僧) 11. 석존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됨 13. 조선시대 왕사로 한양천도와 관련이 깊은 스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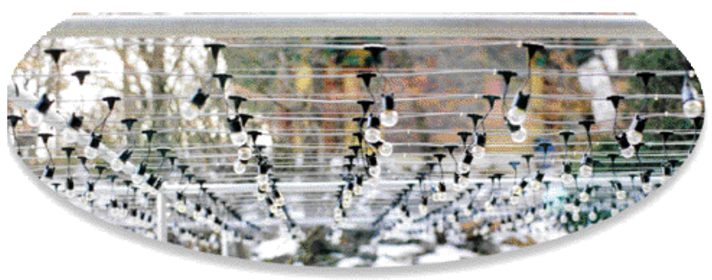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펴냄

홍신문화사 / 2만원

부처님 가르침 쉽게 번역



‘불교성전’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80년 생애와 대소승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말한다. 불교성전편찬위원회가 이번에 펴낸 <불교성전>은 부처님의 삶과 정신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책이다.

불교란 부처님의 언교(言敎)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설령 그 법문이 8만4천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부처님의 설법을 기초로 하는 것인 만큼, 부처님 말씀을 벗어난 불교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 생전의 설법이 아무리 알기 쉽고 간명하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당시의 언어와 글로 돼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뇌리에 새겨질 수가 없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전달 수단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총 8편으로 돼 있다. 부처님의 출가에서부터 성도(成道), 전도(傳道), 열반 등이 7백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론을 전개한다든지, 편자가 설법 이외의 내용을 덧붙인 것은 없다. 인도 고유명사 표기도 가급적 원음을 따르려고 했다. 용어도 독자들을 위해 가능한 쉽게 사용했지만 불토(佛土)를 ‘부처님 국토’와 같이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풀이해 놓은 것은 옥에 티다. 발심을 원하는 불자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큰스님이 항상 내곁에

‘한국현대고승전집(40권+40CD)’

삼각형프레스 펴냄

각권 5만원



“불법이야 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올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준다.”(서옹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천운 두륜산 대흥사 조실). “일상중에 화두를 챙기는데 있어서는 눈 앞 2m 지점에 화두를 두고 의심하면서 챙겨야 한다.”(진제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지종, 종성, 대정, 천운, 정관, 지성, 화산, 일운, 인환, 현해, 혜성, 각성, 암도, 혜거, 도업, 지안, 설산, 효란, 청소, 도우, 성공, 한탑, 정무, 일휴, 혜총, 원광, 서암, 법성, 도성, 묵산, 구암, 지하, 범주, 법타, 진관, 법현 스님 등 법명만 들으면 고개가 금방 끄덕여질 스님들의 법문.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감로법문이라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서 묻어나는 감동과 교훈이 우리의 메마른 삶을 촉촉이 적셔주기 때문이다.

> 이시대 선지식 40명의 감동적인 생애와 법문 스님 동영상 CD에 담아

살다보면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젖어들고 싶을 때가 있다. <한국 현대고승전집>은 바로 그럴 때 손에 잡으면 좀체 눈을 뗄 수 없는 책이다. 이 책에는 삼각형프레스 출판사 불교담당 정도일씨가 5년간 전국의 산사를 누비며 친견한 이 시대 선지식 40명의 감동적인 생애와 생생한 육성 법어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큰 스님들의 출가전후 이야기, 수행방법과 과정, 개인적인 원력 등을 압축요약해 사진과 함께 일대기 형식으로 수록했다. 특히 수행과정 부분은 스님 저마다의 독특한 수행법이 소개돼 있어 불자들의 신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부는 주로 스님들의 법문 내용을 요약했다. 실제 법문 현장에 녹음기를 들이대고 녹음한 것을 풀어썼는가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법문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옮긴 것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도일씨가 찻상을 사이에 두고 스님들을 친견하며 받아 적은 것들이다. 그래서 스님들을 바로 옆에서 친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정씨가 현장에서 땀흘리며 건져올린 생생한 정보들이 책 속에 녹아 있음이다. 그렇다고 이 책들속에 딱딱한 법문만 빼곡히 들어 차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 중간에 스님들의 행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과 넉넉한 편집이 읽는 이들에게 책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든다. 또 각권마다 스님들의 모습과 법문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20분 분량의 CD에 담아 놓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정도일씨는 “불자들이 좋아하는 틱낫한 스님처럼 우리나라에도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큰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스님들의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입적한 뒤에도 후세에 널리 전달되기 위해서는 문서와 영상으로 기록돼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간행 동기를 설명한다. 또 정씨는 “앞으로도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선지식들을 발굴해 제 2차 고승전집 간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 현대고승전집>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는 사전처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삶의 여유가 줄어들 때마다 들추며 위안을 삼기에 안성마춤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고통도 내것으로 받아들이는 길 안내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록’

타르탕 툴구 린포체 지음 / 박지명 옮김

하남 / 8천5백원



이라크 전쟁, 전염병 ‘사스’ 등으로 온통 시끄러운 세상에 마음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명상집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록>이 출간됐다.

사실 그동안 시중에 나온 명상집은 많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의 명상록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책은 지은이부터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만큼 특별하다. 저자 타르탕 툴구 린포체는 현존하는 티베트의 훌륭한 영적 스승이자 전생을 기억하는 4대문파 중 가장 세력이 큰 닝마파 스승이다. 특히 저자는 티베트인이지만 오히려 서구에 그 명망이 더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바로 그의 서양인 제자들과 함께 수행한 내용을 대화 형식의 문답으로 쉽게 나열했다.

수행내용 제자들과 문답

‘열린마음(Openness Mind)’이 원제인 이 책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전통적인 심리서이다. 제목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올바르게 열어주는 데 글을 쓴 목적이 있다.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붓다의 시각으로 접근해 명료하게 제시해 준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과 ‘삶의 법칙’이란 명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비밀의 문을 열고 진리에 도달하는지도 깨닫게 한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나면 심지어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까지 들게 된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몽골불교 역사·실상 소개

‘몽골불교사’

돌고룬 체데브 지음 / 다그미트마 번역

불교정신문화원 / 1만원

몽골 불교는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후 (서기전 565~490) 180년 뒤에 인도로 부터 고대 중국 티베트를 거쳐 몽골에 들어왔다. 몽골의 왕들은 부처님이 환생한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래서 불교는 몽골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몽골하면 가장 먼저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징기스칸도 ‘바자라파니’라 불렀는데 이말 역시 풀이해 보면 ‘환생한 부처’란 뜻이다. <몽골불교사>는 몽골의 초대 법왕인 자나바자르의 생애를 통해 몽골의 불교 역사를 소개한다. 또 책 말미에는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티베트의 성자 밀라래빠의 수행 생활에 대해서도 실었다.



엄마 그리워하는 동자승

‘동승’

박혜수 지음

샘터 / 8천5백원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슬픈 동자승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동승>이 나왔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 ‘동승’의 홍보 책자로 기획됐다. 그래서인지 책 중간중간에 영화의 이미지 장면들이 들어 있어 책을 읽다보면 영화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든다. 내용은 슬프다. 절을 자주 찾는 대갓집 미망인이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생아 동자승 도념을 수양 아들로 삼으려 하지만 주지 스님이 반대한다. 하지만 도념은 끝내 주지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어디엔가 살고 있을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난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보리심 기르는 수행법

‘실험처럼 살아라’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옮김

솔바람 / 8천9백원

<실험처럼 살아라>는 미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 페마 최된 스님의 저서중에서도 단연코 실용성이 돋보이는 책이다.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인 보리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고통스런 감정과 두려움을 반가운 친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상, 마음모으기, 놓아 주기, 마음 열기 등 구체적인 방법과 예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좌절된 사람들,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 아무런 기쁨이나 생명력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3	힘	틱 낫 한	명진출판사
4	감산자전	대성 스님	여 시 아 문
5	물은 답을 알고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6	통일법요집	편 집 부	조계종출판부
7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 족 사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 재 경	마당넓은집
9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운 주 사
10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달라이라마	무 우 수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내 마음 부처님이신 큰스님들!

그 분들이 나누어주시는 마음과 마음, 정과 정,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이 되어 스며듭니다.
지난 5년여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큰스님을 찾아 뵙고자 산사를 수십 차례 방문에 방문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멸되어 가는 귀중한 사료를 모아 한분한분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 엮었습니다. 뜨한 큰스님들의 모습과 법문을 가까이서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영상 CD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분들의 은덕이라 믿습니다.
2003년 4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국에 참여하신 큰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께 봉헌식을 성대히 올렸습니다. 이 또한 여러 불자님들의 은덕 덕택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틱낫한 스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험하시고 훌륭하신 큰스님들이 계시네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곁에 큰스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궁전 같은 집에서 황금으로 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잠까지 편안할까요.

큰스님께서는
"돈을 주고 그럴듯한 잠자리는 살 수 있을지언정 달콤하고 안락한 잠은 살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먼발치서라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행운이 깃드는 큰스님들… 그분들의 생생한 생에와 법문을 가정에 모시면 가족들의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행운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한국 현대 고승 대 전집
제1차 40분 탄생
이제 당신 곁에 큰스님을 모십시오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 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 생존해 계시는 큰스님들의 생생한 대담을 통해 당신은 부처님의 영험한 생을 체험할 것입니다.

구입문의 : 02-446-0393

출판 및 영업사원 도집 : 담당 황제은 과장(02-446-0393)
■홈페이지:www.samgakhyung.com ■주소:(143-150)서울시 광진구 지양동 660-2 ■전화:(대표)02-446-0393 ■팩스:02-446-0392 ■삼각형프레스

도자기에 새긴 불심

'반야심경' '광명진언' 등 경구 암기
7년간 하나하나 조각칼로 새겨 넣어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중앙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김순자 도예전'에 가면 경전문구들이 전각돼 있는 도자기 7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자기 사경 작품은 완성된 백자위에 붓글씨로 사경한 것이 대부분. 이런 점에서 김순자씨(65)의 이번 작품들은 독특하다. 경구들을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겨 넣었다. 김씨의 작품을 대하면 '종이위에 글씨로 사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자기에 새겨 넣었을까' 하는 탄성이 절로 난다.



◇도자기에 경전문구를 새기는 작업은 또다른 수행이었다는 도예가 김순자씨가 자신의 작품들 속에 둘러쌓여 있다.

김순자 도예전 24일~5월 3일까지

이 작품들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반야심경', '광명진언', '대원성취진언', '참회진언' 등의 경구를 김씨가 모두 다 암기해서 한문으로 옮겨적었다는 것이다.

"전각 작업에 들어가기 전 수없이 반복해 경전을 암송하며 사경했다"는 김씨는 현재 팔이 부어오른 상태다. '반야심경' 작품을 만드는 데만 하루 10시간씩 총 1백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고된 작업 탓이다.

"나이 60이 넘어 눈도 침침해서 하루동안 작업하면 그 다음날은 쉬어야 다음 작업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작품을 만드는데만 한달이 넘게 걸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1주일 전 벽제의 작업장에서 만난 김씨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비결이 뭘까.

"6년동안 여름과 겨울 한 철씩 안거를 마치고 나온 기분입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경구들을 새겨 넣는 작업은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는 것과 같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화두를 시원스레 풀어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더군요"라며 즐거워 한다.

김씨의 작품들을 얼핏 보면 검게 그을린 나무위에 전각을 해놓은 것 같다. 유약의 마술이다. 아이보리, 검정, 그린, 브라운 등 4가지 이상의 유약을 초벌구이 후에 발라 10시간 이상 다시 1300도에서 재벌구이를 하면 높은 열에 의해 유약이 녹아 흘러 다채로운 모양을 빚어낸다.

"도예는 파손율이 높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을 위해 가마에 빚은 도자기만도 5백개가 넘지요. 그래서인지 작품이 완성되면 새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김씨가 7년동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며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10년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중앙문화센터에서 들어온 '불교문화의 숨결' 강의 덕분이다. 정병조 · 권기종 교수 등 불교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신심을 다져온 것.

"경구를 새겨 넣는 도자기 전각전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겁니다. 나이가 들어 글씨를 새기는 작업은 더이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이 아닌 종이에 사경하며 불교공부를 하는데 만족해야 지요." 김순자씨는 이번 전시에 앞서 85년 일본 후꾸오까에서, 92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승무 · 나비춤 · 입춤 등 공연

법우 스님 5월 2일 전통춤 시연회

법우 스님(대전 현불사 주지 ·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의 전통춤 공연 '초지일관'이 5월 2일 저녁 7시30분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기원무, 입춤(허튼춤), 장검무, 나비춤, 선비춤, 살풀이춤을 선보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승무와 나비춤. 모두 스님이 제일 자신있어 하는 춤들이다. 특히 긴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두 손을 활짝 벌리며 추는 스님의 나비춤은 율동이 크고 화려하다. 또 스님이 우봉 이매방 선생(승무 ·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 우봉 전통무용보존회원들과 함께 추는 입춤은 호남 기방예술의 전통계보를 잇는 세련미와 요염한 교태미가 흘러넘쳐 신명나는 무대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042) 221-3395.

김주일 기자



◇살풀이춤을 시연하고 있는 법우 스님.

가볼만한 전시회

목판에 새겨넣은 불교향기

정비파 목판화展 대구서



◇정비파씨의 '불향V'

정비파 목판화전이 대구 봉성갤러리에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대구불교방송 중계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불향(佛香)'이다. 제목이 말해 주듯 작품 곳곳에는 불교의 향기가 스며 있다. 대부분의 작품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하얀 여백이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 30여명의 동자승과 활짝 핀 20여송이의 연꽃, 물고기가 매달린 풍경, 차 마시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 가는 연필로 그린 듯 조각도가 지나간 자국은 가늘고 섬세하다. 또 파란 단색 목판 위에 후칠로 채색한 혼합 기법을 사용한 이번 작품들은 한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향Ⅰ,Ⅱ,Ⅲ…', '다향Ⅰ,Ⅱ,Ⅲ…'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053)421-1516.



◇일필휘지로 법구를 쓰고 있는 석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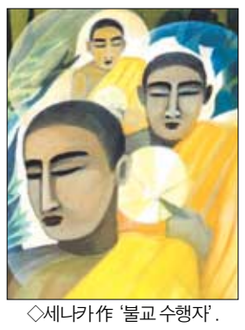
일필휘지 법구 130여점

석주 스님 선서화展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이 5월 1일부터 8일까지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축 기념 선서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뜻의 '悟唯知足(오유지족)'과 부처란 곧 마음이라는 의미의 '佛是卽心(불시즉심)', 항상 즐거움이 내 마음을 맑게 한다는 '常樂我淨(상락아정)' 등 1백여개를 선보인다. (02)511-6070

관세음보살 등 색채 화려

스리랑카 세나카 특별展



◇세나카作 '불교 수행자'.

사찰음식전문점 산촌과 월간 미술세계가 공동으로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사동 공화랑과 경인미술관에서 스리랑카 화가 '세나카 세나나야케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네카는 불교의 전통과 전설, 스리랑카의 전통 여인과 꽃 그리고 식물이 지닌 천연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스리랑카 여행중에 세네카의 화풍에 흠뻑 빠져 이루어 지게 된 것. 총 천연색을 동원해 그린 여인과 꽃의 모습은 미인도로 유명한 천경자씨의 화풍과 흡사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상', '불교수행자', '드럼치는 여자', '새' 등 대작 30여점과 소품 류 30여점이 벽에 걸린다. (02)735-0312.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6:05 불교강좌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20:05 다시듣고싶은 노래
23:05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월 1일 08:40 열린마당
5월 2일 12:20 퀴즈 야단법석
5월 3일 09:30 설수진의 러빙유
5월 4일 07:40 시가 있는 찻집
5월 5일 13:20 사찰문화여행
5월 6일 21:40 천상천하 가요독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덕신 스님의 살며 생각하며(5월 5일 12:05~01:00)-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심야프로그램 '덕신 스님의 살며 생각하며'에서는 희망이 있는 세대, 하지만 진지한 고민도 함께 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클릭 베스트 검색어' 코너에서는 한 주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슈들을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통해 다시 살펴본다.

■**불교텔레비전**:△사찰문화여행(5월 5일 13:20~14:20)- 이번 주 사찰문화여행에서는 요사채에 대해 알아본다. 요사채는 사찰 내에서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건물을 총괄하는 명칭. 수행하기 위한 공간인 선원과 강원, 율원이 있으며 스님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하는 생활공간인 염화실과 부엌, 객실, 해우소 등이 있다.

봉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0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소원성취척척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악귀와잡귀들이보기만해도도망치는염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한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기도정진 하시는 스님께는 청심을 사용한 단주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건강정보 #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 氣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부처님의 재가 여성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오장설 이외에 팔경계법이 있다. 초기 불전에서는 오장설에 의거하여 비구니팔경계법을 피력한다. <증아함경 > 제26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계율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비구에 의해 통솔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열게 되어 있는 데 그때 비구니는 계본을 읽으며 포살법회를 주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는 비구니 꺼주처에 비구가 없으면 안거를 할 수 없다. 넷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면 양부중에서 세 번 청하여 보고,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질문을 듣지 않으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율론을 질문할 수 없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의 법계(犯戒)를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법계를 말할 수 있다. 일곱째 비구니가 만일 승가파시사를 범하면 마땅히 양부중 가운데서 보름간 근신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지 백년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별역잡아함경> 제120년은 소마비구니와 마왕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당시의 여성관을 알려주고 있다. 마왕이 소마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그대의 어리석은 지혜로 어떻게 얻으려 하는가?" 이에 소마 비구니는 "여자라는 생각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뜻을 두어/ 위없는 가르침을 삼keep 뿐이로다/ 진리에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 여자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어찌 어렵다고 말하리오/ 모든 애욕을 끊고 무명의 어둠을 깔에버리면/ 번뇌 없는 법에 머물러 열반을 증득하리니/ 파순아, 그대는 나에게 졌음을 알라."고. 이에 마왕이 함복하고 물러갔다고 경전은 묘사하고 있다.

마왕과 소마비구니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오장설과 비구니팔경계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들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은 무엇인가? 얼연히 법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실천 없으면 모든 게 공염불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 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개탄합니다. 그러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안되는 일을 개탄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세상을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온 과정이 다른데 자기 사고의 틀 속에 세상 일을 끼워 맞추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은 문화와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참다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월운스님은 37년여의 역경 작업끝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했다.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아닌, 나 밖의 위대한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대전제하에, 신의 뜻이 '이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각기 영역을 넘나들며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끊없이 개척하고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생활방식과 문화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교가 발생했던 인도는 사색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사는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문화적 교류 관계가 있었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이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불교라는 독특한 형태의 불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상이나 교리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사회적 여합이 없으니까 이제는 좌불안석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 불교에는 고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죠.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부처님 공부도 다 헛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버릴 수는 없지요. 배가 다 파손되고 돛대 하나만 남았다고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불자들은 불교를 제대로 실천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도 다시 좌표를 정하고 불교를 바로 잡아 나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앞에서 지혜가 나오고, 행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뭘 흐르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불교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또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지요.

이를 위해서 한국 불교가 우선 변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불교의식의 봉입입니다. 지금은 절마다 불교의식이 다 달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도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식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 뜻도 모르고 따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래서는 불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먼저 의식이 통일돼야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의식 통일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약식으로 할 때가 있고 정식으로 할 때가 있는 거에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한시간 동안 발원문을 하라고 하니 집에서 누가 그걸 하고 있나요. 이런 때 방편이란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한가지 귀신을 달래서 불교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천도재는 교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쓰는 방편이지, 절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처럼 천도재를 방편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면 불교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다 공염불이 됩니다. 실천이 부족하니까 불교가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리가 좋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도움이 되어야 찾아옵니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고 나눔을 베풀어 나가는 실천을 보일 때 불교는 불교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교리가 빛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자리가 잡혔을 때 명분을 찾게 되는데, 교리가 바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경에 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요즘엔 한자로 된 경전을 불 사람이 없어요. 한글로 된 경전도 잘 보지 않는데 한자로 된 경전을 불리 없지요. 불교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언어가 장벽이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역경이 필요합니다. 역경은 불자들이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역경 작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불자들의 시주와 학인 스님들의 고생으로 <한글 대장경>을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주가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절히 알았습니다. 역경을 하면서 불교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힘이 바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머니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는가, 내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설득시켜 보세요. 자녀 손잡고 절에 와서 같이 공양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모자간 또는 모녀간 정을 나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새겨 들었다가 후일 자녀에게 꼭 들려주세요.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왜 불교공부 해야 하나'를 자녀에 가르치고 설득하세요

제자가 말하는 월운 스님

"월운 큰스님은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가르침을 펴시는 분입니다. 비구 · 비구니, 승 · 속에 구분을 두지 않아요. 특히 역경과 후학을 키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을 보입니다."

"나는 단 한 명만 남아도 가르친다"는 월운 스님의 한마디를 듣고 10여년을 봉선사에 머무른 비구니 제자인 원민 스님의 말이다. 굳이 원민 스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월운 스님은 역경 외길을 걸어온 대강백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세 되던 1948년,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월운스님은 해인사 대교과를 수료한 이후 봉도사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조계종 역경위원, 동국역경원장 등 즐곧 강사와 역경의 길을 걸었다. 2001년에는 37년이라는 인고의 노력 끝에 <한글대장경>을 완역, 발간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월운스님을 빼놓고는 역경을 말할 수 없다"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월운스님에 대해 원민스님은 맘 속에만 지녔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찾아오는 불자들도 부담 없이 큰스님께 인사를 하고 갈 만큼 소탈하고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요. 가식 없는 법담을 베풀다 보니,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스님은 할 말은 가감 없이 털어 놓습니다."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의 말도 전한다.

"큰스님은 학인들이 공부 안하고 다른 생각한다 싶으면 엄한 스승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강의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준비를 거르지 않지요. 절 밖에서 공양이라도 대접할라 치면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경전 한 장이라도 더 보겠다는 거지요."

원민스님은 '스승 월운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말한다.

"역경이라는 고된 작업에도 화점하지 않고 40여년을 이어온 불굴의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만으로 후학들에게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큰스님께서는 행으로써 스승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譯經외길 대강백…"한 명 남아도 가르친다"



◇마루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감상하는 월운스님.



◇월운스님은 불자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것을 강조한다.

지상 박고좌

월운스님

(봉선사 조실 · 동국역경원장)

사람이는 지나얘기

사람이는 지나람이! 사람이 태어나서 더생길때(多生緣來) 지중인 인연이 있어 부모와 지식의 연을 맺었구나. 부모는 지식 걱정에 편할 날 없었고만, 어린 지식들은 부모의 은공을 전혀 몰랐 제 욕심만 내세우네. 길가라여서 옷지떠면 스치기도 오백생의 인연이라 이었는데 한 기쪽이 되기 위에 얼마나 큰 인연이 모였을끼.

참사람은 버른 법을 아르는 말이나, 부부간에 못다한 정을 다하는 길과 지나얘게 못 준 사람을 전하는 길이 정법에 있구나. 버른 법을 만났으나 참회이는 삶을 살아보자. 지식의 질못을 뉘우칠 틱 못보던 사람이 보이고, 기쪽도 도반같이 정겹고 소중이 느끼진다.

일체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 성품 깊혔건만 끼덥없이 무명 알이 번뇌망상 뒤틱른다. 번뇌망상 주인인양 앞에 나서 영웨이나 본래 부처는 간 데 없고 탐전치면 득실댄다. 삿된 씩앗 심은 곳에 외인 열매가 나니, 그가 버뭇 윤회한다.

탐전치를 제가이고 몸과 뜻을 간수이야 진구덩이에 안 빠지면 흙 안 묻은 맑은 얼굴이 솟아나고 있었던 본래 부처 보이나니, 이를 알러 부처되는 법이러 한다. 세상만서 모두 네가 주인이나 나의 말을 주관할 지기 누구이겠느냐. 주이전 어간에서 지식을 꼭 붙들이 탐전치를 줄지 말고 맑은 정신 간직하면 어디를 가도 인이군지요, 갈등학복 굴이러도 택지길이 길이 없다.

사람이는 이들철이! 세상만서 가득찰기 어려운데 불교를 만나보니 나의 주인이 비뭇 나요, 인미음이 맑을 뛱 서생세계기 밝이진다. 이 법 이닉 간직하면 이희주를 치닌 듯이 부러움이 없으리라.

<월운스님 지음(요약)>

한국불교 이것은 고쳐야 한다

제각각 법요식 통일…마음도 하나돼야
천도재를 사찰 수입수단 삼아선 안돼
모든 불자 읽기쉬운 한글경전 보급

2001년에는 37년이라는 인고의 노력 끝에 <한글대장경>을 완역, 발간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월운스님을 빼놓고는 역경을 말할 수 없다"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월운스님에 대해 원민스님은 맘 속에만 지녔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찾아오는 불자들도 부담 없이 큰스님께 인사를 하고 갈 만큼 소탈하고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요. 가식 없는 법담을 베풀다 보니,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스님은 할 말은 가감 없이 털어 놓습니다."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의 말도 전한다.

"큰스님은 학인들이 공부 안하고 다른 생각한다 싶으면 엄한 스승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강의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준비를 거르지 않지요. 절 밖에서 공양이라도 대접할라 치면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경전 한 장이라도 더 보겠다는 거지요."

원민스님은 '스승 월운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말한다.

"역경이라는 고된 작업에도 화점하지 않고 40여년을 이어온 불굴의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만으로 후학들에게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큰스님께서는 행으로써 스승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현근스님



20년을 훨씬 넘긴 출가전. 고등학생의 눈에는 만나는 스님마다 신기할 뿐이었다. 온화하고 따뜻한 서정적인 정서에서 서릿발 같은 기상에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독특한 스님들을 보면서 청소년기의 생각이 커가고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만난 후 너무도 독특한 스타일의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현근스님도 그 중 한 분이다. 늘 푼 즐거전의 입이다. 그때 본 스님은 깡마른 체구에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삭발을 한 모습은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서슬 푸른 수행자의 전형이었다. 말을 많이 해서 전후좌우를 설명하시는 스타일도 더더욱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울산 해남사 불교학생회에 나온 학생들에게는 많은 사연과 추억을 남겨준 잊혀지지 않는 호랑이 스님이 되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노라니 어디선가 문을 활짝 열어 젖치고 들어오실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림 · 문병성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스님의 이미지 중에는 검정 고무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삭발을 막 끝낸 모습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옷은 헤어져 탈색된 남루한 누비가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겨울이 아닐 때에는 공목을 염색해서 주로 입고 다니셨는데, 단정하다기 보다는 이미 세상과는 한 경지 오른 도인을 연상하게 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어지나 졸업지 항상 흠모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스님들이 흰 고무신을 신고 계실 때 유독 검정 고무신만을 고집하는 스님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일어났다. 그냥 왠지 멋져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당연한 모습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나도 졸가 후 십 년 정도 지나 내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는 검정 고무신만을 고집하고 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인경도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정 챙떠 인경을 지금껏 끼고 있다. 입만 열면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세계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그때의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현대화도 생활화도 못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스님의 멋이 겉모습에만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기억될 일도 없었으리라. 가끔 접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항상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해제하면 다시 절로 돌아오셨다. 한번은 몇 명의 학생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해인사를 갔었다. 남씩가 많다고 느껴는데 그때까지 누비를 입고 다니셨다. 그리고 7일 용맹정진을 하신다고 했다. 일주일 잠을 안자고 참선을 하신다며 자상하지 않은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 하셨다. 한껏 기죽은 우리는 내심 탄성을 질렀다. 이처럼 자신에게 철저할 뿐 자상하지도 않은 스님을 왜 그렇게 따르게 되었는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랜 시간 스님과 함께 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절에 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나 학생회에서 법문을 해주셨다. 어느 날은 법문을 시작하시면서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면도날은?" 모두 의아해서 쳐다 볼 뿐이었다. 다시 물으셨다. "면도날은?" 학생회장이던 나는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자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도루아아" 하시는 것이다. 어이없는 상황에 와르르 웃고 말았다. 한때 유행하던 '결론은 버킹검' 이라는 광고

과묵 속 자상함 변함이 없어
자신에 철저, 후배들 큰 영향 받아

문구가 떠올랐다. 불교는 어렵지 않으니 엉뚱한 생각을 접고 단순하게 세상을 보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알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내가 통도사부산포교원 소임을 살 때, 스님이 통도사승가대학 강주로 오셨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움보다 어떻게 변하셨을까 하는 설렘이 더 컸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통도사승가대학을 운영해 가시는 방법이 그때의 서슬 푸른 호랑의 기상이 그대로 살아있는, 강한 이미지 그대로였다.

첫째 학인들의 출입부터 엄하게 통제되었다. 학인들이어 못마땅할 일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한 운영이었다. 그리고 승가대학의 기강이 서고 긴장이 느껴지는 수행자의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시자를 데리고 도량을 거나는 스님의 과묵한 모습은 25년 전 치열한 구도의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고집스러움과 편견을 넘은 완숙함 이었다.

오늘 출가대중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앙게 모르게 영향을 준 현근 스님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변에 스님 같은 철저함으로 후하을 이끄시는 선배 스님들이 많이 계심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佛敎儀式(범음 · 범패) 학인 모집 [제 1기]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완스님

과 정
▶ 기본기초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광쇠, 북) 다루는 법
1) 새벽도량석 2) 종성 3) 상단예불 및 행선축원 각단예불 및 불공의식
▶ 중급반(3개월) : 49제 의식, 시식, 배송, 구병시식, 전점안법, 상가염불 다비편, 천도 또는, 49재 영가축원 쓰는법, 전, 지의, 위패 만드는법과 쓰는법
▶ 직법반(6개월)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 법성게바라, 관욕바라, 화청
▶ 직법속성반 (수강시간을 연장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합니다)
※ 매회 강의한 의식을 녹음하여 무료로 드립니다.(단, 법요집은 유료)

모집인원 ▶ 각 과별 30명(선착순)

수강신청기간 ▶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수강신청방법 ▶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준비된 수강신청원서에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반명함판 사진 3매(3×4), 주민등록 초본 1통을 본원 종무소에 제출하신 후 수업일정표(시간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개강일 ▶ 2003년 5월 26일(월) 오후 2시

■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전화 053)955-772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본원은 조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법음 ·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원 교육을 졸업 이수한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성불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7-14(2층)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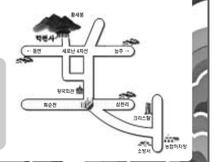
봉 관세음보살 봉불식 축



귀의 삼보하옵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 소태동에 소재한 천명사는 화순을 삼천리 학산(황새봉)에 새로운 관음기도 도량 학천사를 마련하고 **관세음보살 봉불식**을 거행합니다. 부디 뜻깊은 봉불식에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증장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5월 일

관음도량 학천사
회주 성관 주지 지명 합장
신도회 일동



✦ **일 시** : 불기 2547년 **5월 3일**(음력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학천사 경내
✦ **문 의** : 061)375-7632~3 / 팩스 : 061)375-7634

禪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반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특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올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알맞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법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시 올식, 선사 백문 백답, 진제선사 수행문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시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신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숫펴와 뭐펴,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계랄 법도, 사빈주, 동넘즉귀 정넘즉귀, 입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제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뭘께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선사 백문 백답, 휠암선사, 경일선사, 영명선사]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1대 ~ 80대까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법륙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원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질 4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불) 남전 전액 기재 (15,000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 선방안내 : 하안거 5월 15일(음력 4월 15일) 부터 9일 ◆ 안거비 : 9만원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선천성 냉체
산후비랄
낭 습 진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해 봅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신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876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5월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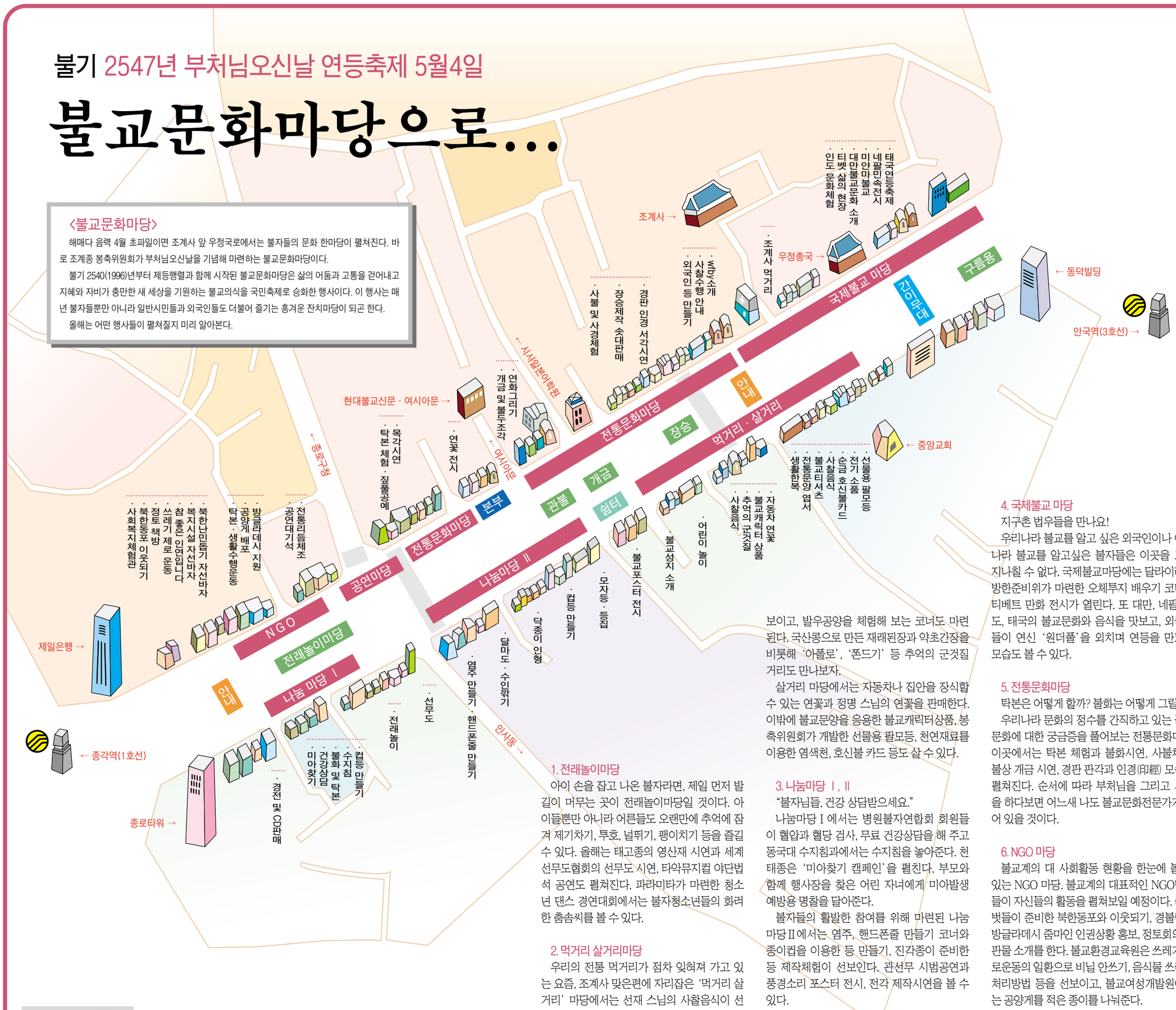
불교문화마당으로...

〈불교문화마당〉

해매다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불자들의 문화 한마당이 펼쳐진다. 바로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마련하는 불교문화마당이다.

불기 2540(1996)년부터 제등행렬과 함께 시작된 불교문화마당은 삶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새 세상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국민축제로 승화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도 더불어 즐기는 흥겨운 잔치마당이 되곤 한다.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펼쳐질지 미리 알아본다.



1. 전래놀이마당

아이 손을 잡고 나온 불자라면, 제일 먼저 발길이 머무는 곳이 전래놀이마당일 것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랜만에 추억에 잠겨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태고종의 영산재 시연과 세계선무도협회의 선무도 시연,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도 펼쳐진다. 파라미타가 마련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에서는 불자청소년들의 화려한 춤솜씨를 볼 수 있다.

2. 먹거리 살거리마당

우리의 전통 먹거리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요즘, 조계사 맞은편에 자리잡은 '먹거리 살거리' 마당에서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이 선보이고, 발우공양을 체험해 보는 코너도 마련된다. 국산콩으로 만든 재래된장과 약초간장을 비롯해 '아폴로', '쫀드기' 등 추억의 군것질 거리도 만나보자.

살거리 마당에서는 자동차나 집안을 장식할 수 있는 연꽃과 정명 스님의 연꽃을 판매한다. 이밖에 불교문양을 응용한 불교캐릭터상품, 봉축위원회가 개발한 선물용 팔모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천, 호신불 카드 등도 살 수 있다.

3. 나눔마당 Ⅰ, Ⅱ

"불자님들, 건강 상담받으세요."

나눔마당 I 에서는 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이 혈압과 혈당 검사, 무료 건강상담을 해 주고 동국대 수지침과에서는 수지침을 놓아준다. 천태종은 '미아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 자녀에게 미아발생 예방용 명찰을 달아준다.

불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마련된 나눔마당Ⅱ에서는 염주, 핸드폰줄 만들기 코너와 종이컵을 이용한 등 만들기, 진각종이 준비한 등 제작체험이 선보인다. 관선무 시범공연과 풍경소리 포스터 전시, 전각 제작시연을 볼 수 있다.

4. 국제불교 마당

지구촌 법우들을 만나요!

우리나라 불교를 알고 싶은 외국인이나 이웃나라 불교를 알고싶은 불자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제불교마당에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가 마련한 오체투지 배우기 코너와 티베트 만화 전시가 열린다. 또 대만, 네팔, 인도, 태국의 불교문화와 음식을 맛보고, 외국인들이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연등을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5. 전통문화마당

탁본은 어떻게 할까? 불화는 어떻게 그릴까?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불교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전통문화마당. 이곳에서는 탁본 체험과 불화시연, 사불체험, 불상 개금 시연, 경판 판각과 인경(印經) 모습이 펼쳐진다. 순서에 따라 부처님을 그리고 사경을 하다보면 어느새 나도 불교문화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6. NGO 마당

불교계의 대 사회활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NGO 마당. 불교계의 대표적인 NGO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좋은 벗들이 준비한 북한동포와 이웃되기, 경불련의 방글라데시 줌마인 인권상황 홍보, 정토회의 출판물 소개를 한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쓰레기 제로운동의 일환으로 비닐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선보이고,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공양게를 적은 종이를 나눠준다.

일러스트 / 최정근



내가 만든 '연등' 달아요

가족과 함께 만들어 이웃에 선물, 마음 맑아져

재료구입·만들기 쉬워, 종이컵 재활용도 가능



사진제공=조계종 봉축위원회.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온가족이 둘러앉아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의 뜻을 새기며 직접 등을 만들어 보자. 등을 만들면서 가족간에 대화도 나누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함께 만든 등을 대문에 걸거나 이웃에게 선물한다며 얼마나 뿌듯할까.

특히 올해 조계종 봉축위원회에서는 '등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립식 선물용 팔모등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집에서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사로 만든 골조와 연잎, 화선지, 풀 등이다. 재료는 서울 조계사 앞이나 부산 대각사 앞을 비롯 전국의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성품 대신 화선지나 색지를 이용해 직접 연잎을 만들 수도 있다. 철사로 골조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종이컵이나 음료수 캔 등에 연잎을 붙여 색다른 연등을 만들어 보자.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거리행사 '불교문화마당'에도 연등과 컵등, 팔각등 만들기 코너가 마련된다. 가족 및 친구, 연인들이 함께 찾아갈만하다.

여수령 기자

▷연등 만들기



연잎(각종 색, 녹색), 대나무 또는 철사, 풀, 한지(초배용)

1. 얇게 깎은 대나무나 철사를 팔각등 모양으로 만든 후 한지를 한 면씩 돌려 붙인다.

2. 연잎은 끝 부분에 풀을 약간 바른 후 꼰 다음 위쪽에서부터 한 잎씩 붙인다.

3. 연등의 밑 부분에는 녹색 잎을 돌려 붙이는데, 제일 밑줄에는 꽃잎이 아래로 향하도록 붙인다.

▷컵등 만들기



종이컵, 연잎(각종 색, 녹색), 송곳, 풀, 줄

1. 종이컵은 밑부분에서 약 5㎝정도 남기고 컵을 접어 자른다.

2. 종이컵 위쪽에 손잡이를 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줄이나 철사를 연결시켜 놓는다.

3. 연꽃잎을 위에서부터 붙인다. 종이컵 밑 부분에는 녹색 잎을 돌려 붙인다.

▷팔모등 만들기



팔모등 만들기 세트, 풀

1. 팔모등 본체의 접는 부분을 점선을 따라 한번씩 접어준 다음 풀칠 부분에 풀칠을 하며 붙인다.

2. 본체가 완성되면 고정용 윗틀과 아랫틀을 각각 네 면의 종이로 감싼다.

3. 등의 두 귀퉁이에 귀불을 붙이고 그 위에 장식귀를 말아 붙인다. 소망을 적은 서원지는 아래틀 중앙에 붙인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식물인간 된 어머니



언뜻 보기에 모델처럼 느껴지는 30대 중반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67회의 생일을 맞은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해 드릴까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쓴 책에 사인을 받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우담바라> 한 질을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그 책을 골랐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분의 어머니는 슬하에 딸만 셋을 두고 있는데 저를 찾아 온 분이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의 막내가 그러하듯 자기도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어머니는 늘 사랑하는 딸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덕분에 세자매는 어머니 한테 이끌려 눈 오는 날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면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기도 했고, 진달래꽃을 보기 위해 힘들게 정릉 뒷산을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막내인 자기는 대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벽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일류기업에 취직 했다가 미국으로 유학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미국에서 했는데 부인 역시 미국에 유학 가 있던 부잣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아버지와 다른 삼촌의 사는 모습 역시 아버지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가의 가족들 역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은 어머니와 숙모의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숙모의 다른 점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두 분의 사는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어머니는 뿌리를 가꾸는 삶을 살아오셨고, 숙모는 가지 끝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땅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에너지는 꽃과 비교할 수 없듯이, 내면의 정신세계를 가꾸어온 어머니는 어느 시기가 지나자 숙모를 압도하면서 모든 면에서 당당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일생동안 책을 통해서 지혜를 가꾸어오셨는데 몇 년 전 아버지와 고향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 의식세계엔 부처님 계세요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한 생을 살아오셨지만, 어머니는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멸시를 당했던 손아래 동서한테도 나중에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 얘기를 꺼냈으니 그 분이 들려준 가족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해야겠군요. 그 분의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경상도 벽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와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일을 배웠지만 기술자로 자리를 굳히자 대학 나온 친구 부럽지 않게 수입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동생을 서울로 데려와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 온 분의 막내 삼촌은 아버지와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 분은 '동네에 신동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열 살 아래인 이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페인트 공으로 번 돈을 아깝다는 생각 없이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삼촌은 일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 후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아니 의식을 놓고 마치 식물처럼 고요히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사라져 지금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심층의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리자 '아!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터지도록 기쁘더라고 했습니다.

"67회 생신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사인한 책을 선물한다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 쓴 책을 읽으신 후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 후론 거의 불교 책만 읽으셨어요."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분의 어머니가 심층의식에서 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빌면서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곤드레나물 밥



쌀 3컵, 곤드레 300g, 들기름, 소금, 양념장(집간장 3큰술, 청·홍고추 1개씩, 통깨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1.곤드레는 끓는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물에 담가 쓴맛을 우린 후 물기를 짜 송송 썬다. 들기름, 소금을 넣고 무친다.

2. 쌀 위에 양념이 밴 곤드레를 얹어 밥을 짓는다.

3. 참기름을 뺀 양념장 재료를 섞어 같이 낸다. 참기름은 맨 나중에 넣는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연꽃전등

도자기로 제작 연꽃 정취 물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과 집안에 연꽃 전등을 밝혀보자.

도자기로 만들어진 '연꽃전등'은 불을 밝히면 은은한 연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높이는 15cm이고 값은 3만 5천원이다.

(02)732-1520

영험도량



퇴마승 해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휴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운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흥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춘하모직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적삼·바지 : 100,000 ~ 130,000
동방·바지 : 130,000 ~ 160,000
두 루 막 : 100,000 ~ 130,000

2. 무 명 수재·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동방·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조각무늬 면 100% 한국산먹물. 손염색
광목 - 적삼·바지 : 110,000 ~ 130,000
동방·바지 : 140,000 ~ 160,000
두 루 막 : 110,000 ~ 13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동방·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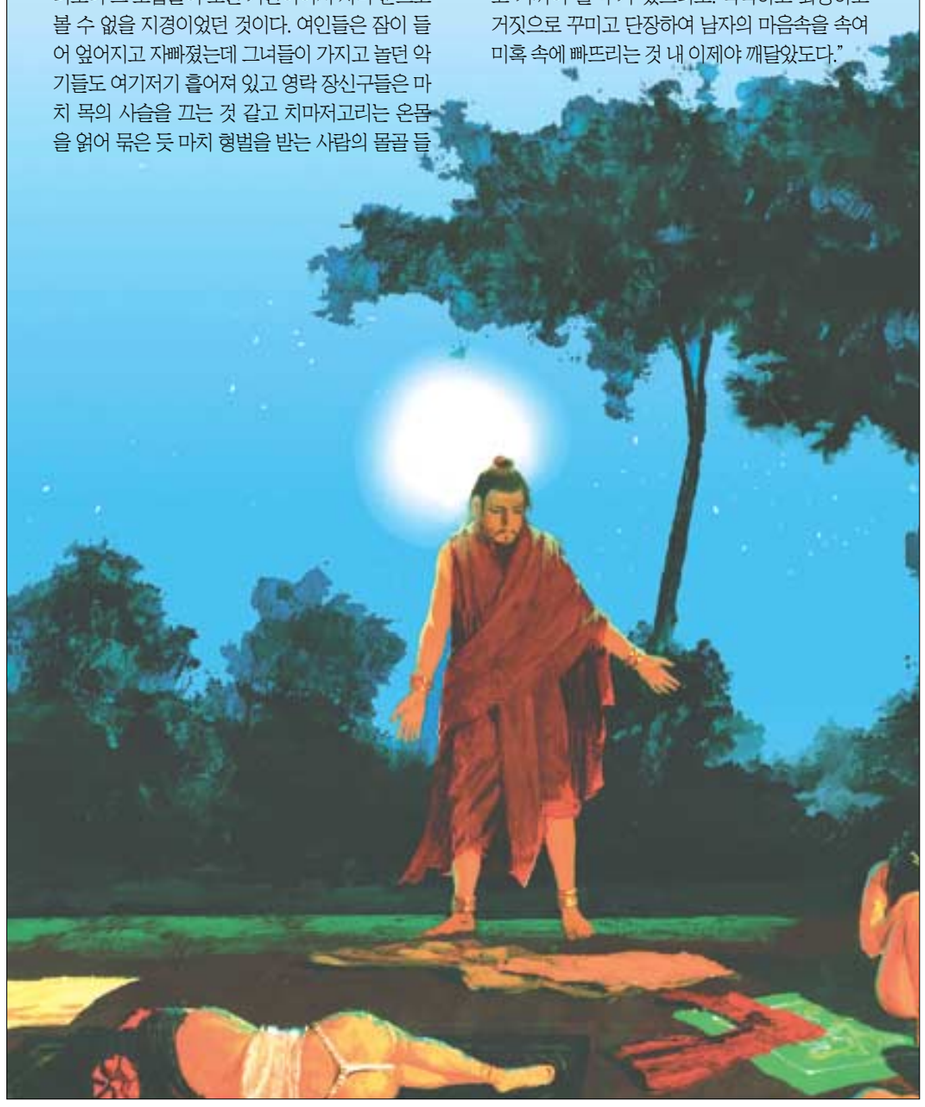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8화 출가(出家)

싯다르타 태자가 산책을 마치고 방안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밤늦게까지 태자를 유혹하여 오욕에 빠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던 기녀(妓女)들이 모두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태자가 비로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 모습들이 또한 가관이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여인들은 잠이 들어 엎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녀들이 가지고 놀던 악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영락 장신구들은 마치 목의 사슬을 끄는 것 같고 치마저고리는 온몸을 얽어 묶은 듯 마치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몰골 들이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그토록 아름답고 단정했으며 엄숙한 모습으로 갖은 아양 다 떨며 아리따운 자태로 태자의 마음을 잡으려 했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웠다.

"여자의 본 성품이 본시 이러했으니 어찌 친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으리오. 목욕하고 화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단장하여 남자의 마음속을 속여 미혹 속에 빠뜨리는 것 내 이제야 깨달았도다."



참으로 신비로운 밤이었다. 보통 때는 태자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부왕의 명령으로 수 명의 병사들이 태자의 뒤를 따라 다녔는데 이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태자는 찬타카(Chandaka)에게 칸타카(愛馬)를 끌고 오게하여 조용조용히 성문을 향하여 다가섰다. 그러나 성문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태자 일행의 움직임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와 찬타카 그리고 태자의 애마 칸타카, 그들 셋은 소리도 없이 성문을 빠져나왔다. 태자는 찬타카를 말의 등에 태우고 질풍같이 달려 성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지금이라도 태자의 탈출이 발견 되기만 하면 숫도다나 라자는 병사들을 풀어 뒤를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운명을 칸타카에게 맡기고 멀리멀리 달아난 것이다.

※불전에는 이 날밤 태자는 신들의 도움으로 성벽을 뛰어넘어 출가에 성공했다고 쓰여있다.





태자는 찬타카를 등에 태운채 우선 동쪽으로 향하여 코리야(Koliya)족의 영토로 들어갔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말을 몰아 멀리 새벽 동이 터오를 무렵, 마침내 아노마 강에 도달하였다.

"찬타카, 세상일은 흔히 쉽게 이루어지지만 출가는 진실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다.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오늘에야 겨우 성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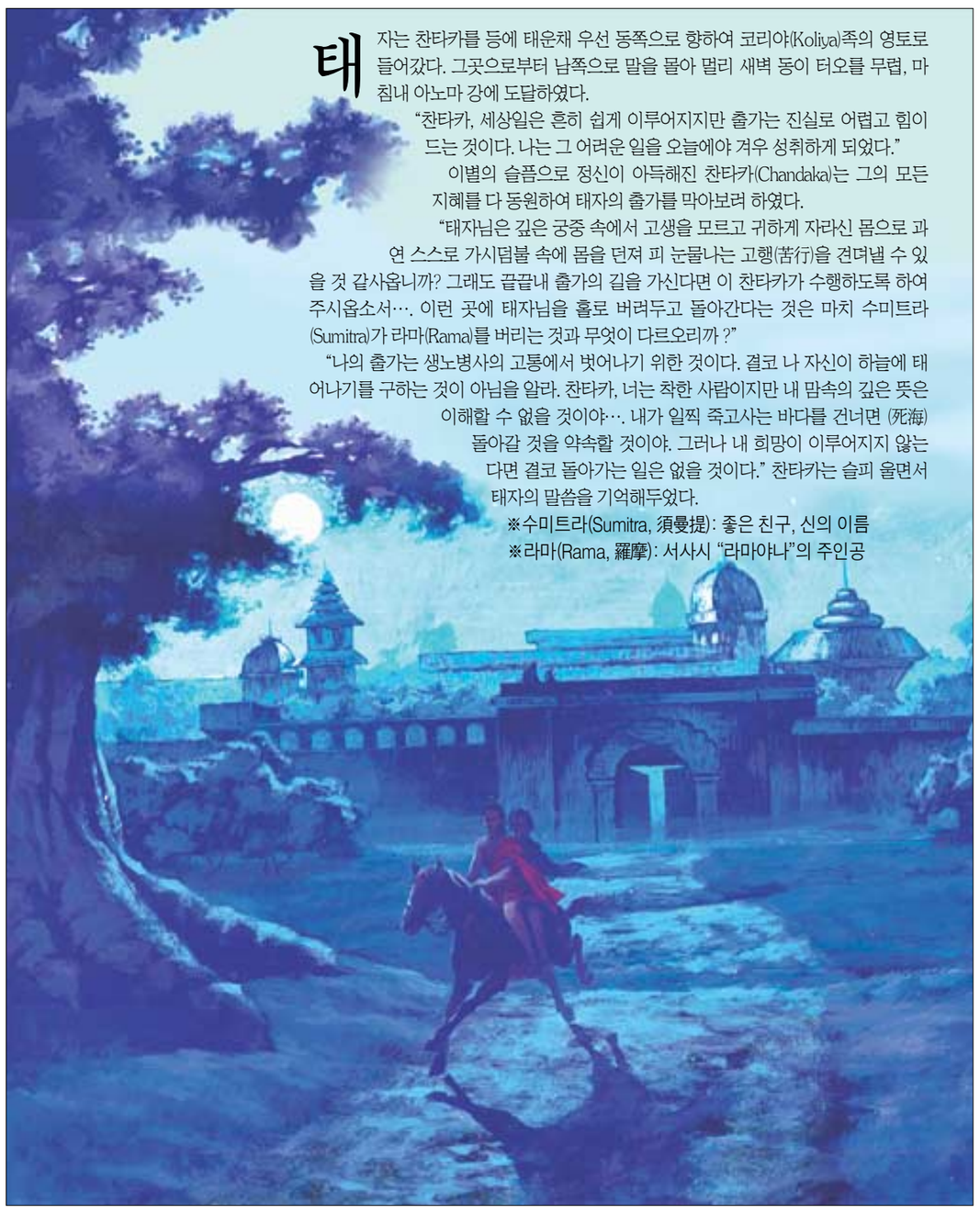
이별의 슬픔으로 정신이 아득해진 찬타카(Chandaka)는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태자의 출가를 막아보려 하였다.

"태자님은 깊은 궁중 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귀하게 자라신 몸으로 과연 스스로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져 피 눈물나는 고행(苦行)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까? 그래도 끝끝내 출가의 길을 가신다면 이 찬타카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곳에 태자님을 홀로 버려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수미트라(Sumitra)가 라마(Rama)를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리까 ?"

"나의 출가는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나 자신이 하늘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찬타카, 너는 착한 사람이지만 내 맘속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내가 일찍 죽고사는 바다를 건너면 (死海) 돌아갈 것을 약속할 것이야. 그러나 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찬타카는 슬피 울면서 태자의 말씀을 기억해두었다.

※수미트라(Sumitra, 須曼提): 좋은 친구, 신의 이름

※라마(Rama, 羅摩): 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



"자… 찬타카, 이제는 이별을 할 때가 되었도다. 내가 항상 머리에 쓰던 왕관은 부왕에게 전달하고, 내가 정각을 성취한 후 마땅히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러나 만약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깊은 산림 속에서 없어질 것이로다."

"태자마마, 이 찬타카는 결코 혼자서 궁으로 돌아 갈 수 없나이다. 대왕마마 뿐만이 아니라 온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원망이 이 찬타카 한 몸에 떨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슬픔을 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차라리 태자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옵소서…."

"찬타카, 너의 마음을 알기에 그토록 나의 생각을 전해주지 않았는가…. 넓은 뜰의 우거진 큰 나무엔 뭇 새들이 떼를 지어 저녁엔 모였다가 새벽에는 흩어지니 이 세간(世間)의 이별 또한 그러한 것이다. 떠도는 구름도 산꼭대기에서 일어나 허공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흩어지니 사람사는 이치 또한 그런 것이니라.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작별의 순간을 맞으라…."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오직 자기 자신부터 믿고 체험해서 자신을 바로 알고 자유인이 되어야

오늘 뉴욕에 계시는 여러 신도님과 교포 여러분을 모시고 뉴욕 한마음선원의 개원식 겸 첫 법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특정 종교나 종파를 초월하여 누구나 다 함께 모여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삶고 있는 이 지구를 한 버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네 종교 내 종교를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새도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네 종교 내 종교 찾기 이전에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상대를 알고, 내 가정과 사회를 알고, 국가와 세계를 알고, 그리고 우주를 알게 됨을 깊이 믿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를 잘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일생이나 국가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이나 해놓고 밖으로 빈다든지 또 생각으로 어떤 허상을 지어 놓고 거기에 맹신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코 종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허상을 지어 놓기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마음 내는 '나'가 없잖아요? 내 것이 없는데 허상을 지어 놓고 집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허상을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살던 의식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합이 한데 계합되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마리의 정자 난자 가운데에 오직 딱 한 개씩만이 서로 합쳐져서 몸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말해서 부모님의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십억 분의 일의 비율로써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전자에 살 때에 지은 인(因)의 과(果)인 것입니다. 전자에 지은 인의 과로서 뭉쳐진 몸뚱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련서 마음으로 몸으로 부딪쳐 오는 모든 것들 즉, 괴로움과 고독함, 허무감, 또 가난과 병고, 그리고 서로서로 부딪치고 아픔을 겪는 모든 불행한 고통들도 그렇고, 또 편안하고 원만한 잘 되는 행복한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다 전자에 지은 인으로 해서 생기는 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에 지은 악업 · 선업이 한데 뭉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서로 만났다 해도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합해 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살던 의식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합이 한데 계합되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마리의 정자 난자 가운데에 오직 딱 한 개씩만이 서로 합쳐져서 몸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말해서 부모님의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십억 분의 일의 비율로써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전자에 살 때에 지은 인(因)의 과(果)인 것입니다. 전자에 지은 인의 과로서 뭉쳐진 몸뚱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련서 마음으로 몸으로 부딪쳐 오는 모든 것들 즉, 괴로움과 고독함, 허무감, 또 가난과 병고, 그리고 서로서로 부딪치고 아픔을 겪는 모든 불행한 고통들도 그렇고, 또 편안하고 원만한 잘 되는 행복한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다 전자에 지은 인으로 해서 생기는 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에 지은 악업 · 선업이 한데 뭉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서로 만났다 해도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합해 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살던 의식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는 무엇인가 이 몸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 체가 탄생되고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해서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신앙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을 해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나' 는 무엇인가 이 몸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 체가 탄생되고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해서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신앙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을 해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 몸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 체가 탄생되고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해서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신앙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을 해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 몸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 체가 탄생되고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생각으로 걸리고 속는 졸장부가 아니라 걸림없이 마음을 쓰는 대장부가 되세요

종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허상을 지어 놓기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마음 내는 '나'가 없잖아요? 내 것이 없는데 허상을 지어 놓고 집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허상을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에 살던 의식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해서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신앙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을 해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 몸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거기에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같이 들게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 체가 탄생되고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계합이

"이젠 나만의 통화음을 원한다"

찬불가, 독경 벨소리 등 불자 네티즌에 인기
홈피, 유선상으로 신청 경비 비싼것이 단점
자신만의 소리 만들어 남에게도 선물 가능



일러스트 / 최정근

1.
서울 흑석동 도림사 신도 정민호(56)씨는 부주지 무념스님에게 전화를 건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스님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울리는 통화연결음은 반야심경이다. 정민호씨는 당연히 '따르릉'이라는 연결음이 나와야 되는데 독경소리가 들려 잠시 놀랬지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푸근해졌다.

2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이승현(27)씨는 학교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불가 소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씨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고 통화를 한다. 주위 학생들은 벨소리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자아낸다.

'따르릉'

우리가 흔히 듣는 전화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그러나 신세대들은 이같은 정형화된 소리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친다. 자신만의 벨소리 또는 통화연결음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전화가 일상 생활용품이 되면서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개성이 넘치는 음악, 멜로디 등이 인기다. 특히 젊은 불자들은 찬불가, 독경소리 등을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현재까지 개발된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은 주로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독경소리와 삼귀의와 같은 찬불가, 그리고 명상음악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경우, 여러 업체가 이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최고 1만 5천건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벨소리, 통화연결음은 여러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서비스 신청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011·017 사용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트(www.nate.com), 016·018은 매직앤(www.magicn.co.kr), 019 사용자는 이지아이(www.ez-i.co.kr)에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벨소리는 한건당 2~4백원, 통화연결음은 한달에 900원으로 유료다.

통화연결음은 이동통신사들마다 컬러링(011·017), 2RING(016·018), 필링(019)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은 700번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나 경비가 온라인보다 비싼것이 단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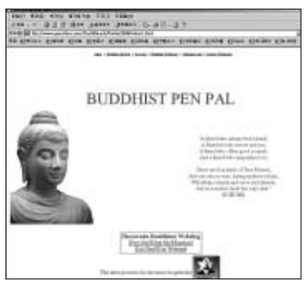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은 네이트 등 전용홈페이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 그래서 불자 가정에서 아들이 부모님의 핸드폰에 벨소리, 통화연결음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용홈페이지에는 자신이 원하는 찬불가나 독경소리를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개발 업체에 요청하는 코너가 있어 앞으로 불교소재 모바일 콘텐츠들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모두 사용하는 무념스님은 "벨소리, 통화연결음과 같은 모바일 콘텐츠들이 불교의 외연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불자펜팔 사이트

정리된 희망자 신상소개 읽고 선택
불화, 성지사진 등 월 페이지도 제공



언제 어디서나 전세계 불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아는 이가 없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국제 불자 펜팔이 인터넷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불자들을 위한 펜팔 사이트(http://www.geocities.com/SouthBeach/Pointe/5640/index1.html)가 있기 때문이다.

펜팔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월별로 펜팔 희망자 프로필과 이메일이 정리되어 있어 간단한 그들의 신상소개를 읽고 원하는 이를 선택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또 불상과 현대불화, 성지 사진 등 다양한 불교관련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에 깔 수 있도록 바탕화면으로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총 46개의 사진을 서비스하는데 이 가운데 인도 성지 사진이 가장 많고 선명도도 좋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IT단신

연꽃향기마을, 사이버공간 군법당 연등달기 운동 전개

사이버 공간에서 군법당 연등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화제다.

인터넷 다음 카페인 연꽃향기마을(cafe.daum.net/simhyang)은 군법당 후원 코너를 설치하고 군법당 연등달기 운동을 펼친다. 이번행사는 카페 운영자인 박상헌(ID 일연)씨가 그동안 추진해온 군법당 불사 후원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 이번 군법당 연등달기 운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연을 하고 실제 군법당을 방문, 연등을 직접 다는 것으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문산에서 군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화스님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달 27일 직접 군법당을 참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많은 군법당을 참배하며 연등을 달 방침이다.

게시판 엿보기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읽을때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채운다고 의식하고 떠오르는 망념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어떨까요?

송영창, 바라밀회 바라밀상담실

입밖으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씨가 되고 꽃씨가 되어 떠돈다. 불씨로 떠돌다 무서운 불을 내기도 하고 꽃씨로 떠돌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한다.-여의주 중에서

반쪽이 법화닷컴 법화지대방

땀흘려 산에 오르니 바람 불어 시원하구나. 이 바람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손길인 것을….

자광 불교계율 자유게시판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대원정사 (www.buddhaschool.or.kr)

모든 학사 행정 한눈에, 정보인프라 구축
명강의 테잎 디지털화, 무료서비스 예정


◇김범준 상임법사가 종무원들과 불교사이버대학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원정사는 故 대원 장경호 거사가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1972년 서울 남산에 설립한 사찰이다. 故 장경호 거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 거액을 희사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의 밑거름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원정사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인재양성에 전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원불교대학 설립. 1973년 사중에 세워진 대원불교대학은 불교계 최초의 2년제 전문 교양대학으로 졸업생 2천여명과 포교사 5백여명을 배출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인재 양성의 산실이다.

대원불교대학의 학사경험을 바탕으로 대원정사는 지난 4월초 사이버공간에 불교사이버대학을 개설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은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원정사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임대하고 인터넷 상에서 모든 학사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했다.

불교사이버대학은 현재 김종옥 교수의 '비교종교학', 최봉수 교수의 '초기불교이해', 허경구 교수의 '부파불교의 이해', 일운스님의 '불교전통의식 실수' 등의 강좌가 동영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장휘옥, 김사업 교수 등 다수 불교학 박사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어 불교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있다. 대원정사는 불교사이버대학을 교육부 인가 사이버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장비는 물론 오프라인 강의실을 구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을 운영해온 대원정사는 그동안 강의한 내용들을 대다수 오디오 테입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 숫자만도 몇천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故 이기영 박사, 故 서경수 교수 등의 강의는 아직까지 명강의로 평가 받고 있다. 전자료의 앞으로 꾸준히 디지털화를 완료하여 네티즌 불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혈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지인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종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경기도 가평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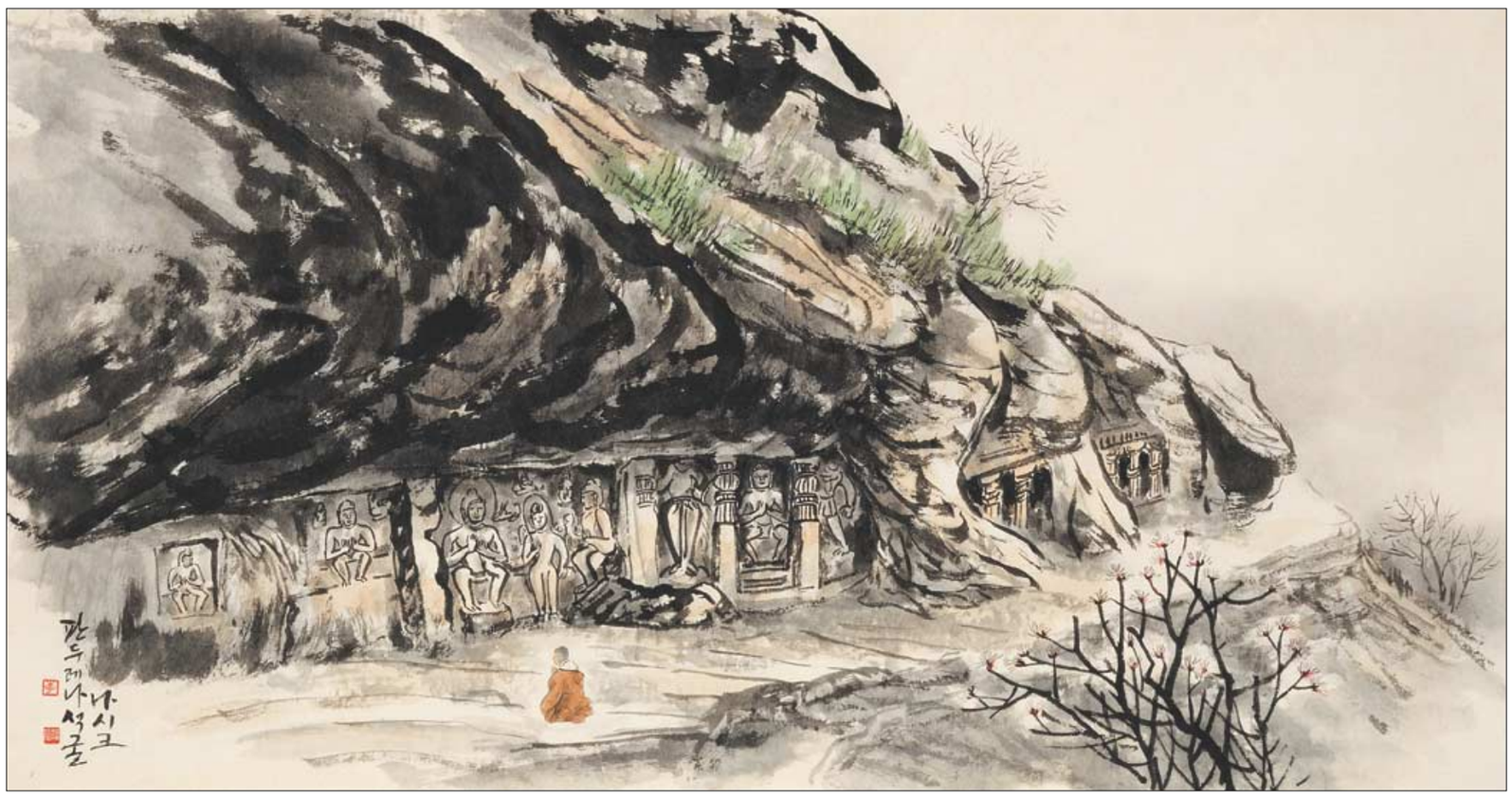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인도그림기행

3 그림·글 이호신

하늘 연꽃이 피었습니다

나시크 판두레나산 석굴사원에서



◇나시크 판두레나 석굴(74.5×143cm).

거대한 바위에 나투신 부처님!

천축국·서라벌 이어준
혜초의 구도 숨결
지금 저 달빛에도
온전히 남아 있으리



◇뻘라스 꽃 (39×39cm).

'한마음으로 헤매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현지 가이드의 불찰로 길을 잃은 것이 도리어 행운이 될 줄이야.

옛 남천축국(南天竺國)인 나시크(Nasik) 석굴 길목을 헤매다가 만난 곳이 고다바리(Godavari)강이었는데 소위 서부의 '바라나시'로 불리는 곳이다.

인도 중부를 횡단하는 고다바리강은 남서부 힌두인들이 경배를 위한 성소로 목욕과 빨래, 그리고 물소떼들로 야단스럽다. 강은 초기 경전(숫타니파타)에서 도피안(到彼岸)의 무대로 등장한다. 즉 당시 16명의 수행자들 중 이곳을 찾은 삥기야(Pingiya) 스님의 구도행은 참으로 눈물겹다.

즉 수행자들이 목숨을 건 구도의 길로 고다바리강 유역에서 500km의 장도에 올라 마침내 라자가하에서 부처를 친견했다. 그 후 삥기야 스님은 다시 불법을 전하기 위해 나시크로 그 먼길을 되돌아 온 것이다.

차를 돌려 시간여행을 떠나니 가슴에 차오르는 또 한 분의 수행자, 신라의 혜초스님. 1200년 전에 그가 남긴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그 위대한 유산이 떠오른다. 불교 성지를 찾아 걷고 걸어서 중천축을 섭렵한 혜초는 다시 3개월만에 이곳 남천축에 당도하는데 나시크를 둘러보고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불교를 매우 공경하고 사원과 승려도 많으며 대승과 소승불교가 함께 번성한다"고 적었다.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나는 편지를 봉하여 구름편에 보내려 하나
바람은 빨라 내 말 들으려고 돌아보지도 않네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다른 나라는 땅 끝 서쪽에 있네
해 뜨거운 남쪽에는 기러기 조차 오지 않으니
누가 내 고향 계림으로 날아가 소식 전하리

고독한 수행자는 인류와 함께 걷는다. 그의 구도행이 향수에 목말라 있을 때 그날의 달빛은 천축국과 서라벌을 이어주고 온전히 밝혀 주었으리라.

이튿날 아침 숙소에서 나시크석굴을 향해 달리자 피라밋 같은 산의 허리에 띠를 두른 듯한 석굴이 연이어 드러나니 판두레나(Pan dulena)산이다.

산을 오르다 내려보는 넓은 대지엔 아쇼카대왕의 산치탑을 그대로 흉내낸 건축이 녹지와 함께 드러난다. 그리고 그 길목에 피어난 '빨라스'라는 흰꽃이 유난히 눈길을 잡아끈다. 구불구불한 줄기들의 조형에 나뭇잎없이 꽃만 덩그라니 가지 끝에 피어남이여!

꽃의 형태와 느낌이 꼭 수련 같은데 푸른 하늘 아래서 쳐다보니 마치 창공에 핀 흰 연꽃 같다. "그래 지금 하늘에 연꽃이 피었다. 누가 뭐래도 나그네의 심중에는…."

석굴은 거대한 암벽을 파고들어 조성한 대역사로서 절실한 구도의 성심으로 오로지 정으로만 쪼아낸 흔적이다. 어떻게 저 거대하고 단단한 암벽을 쪼아 낼 수 있었을까. 지붕과 기둥이 딸린 허(虛)의 공간으로, 또 암벽에서 부처를 나투게 할 수 있었을까.

스투파, 법륜상, 보리수 등은 초기불교의 상황인 기원전의 모습이고, 이후의 불상은 주로 불타가 깨달음을 얻은 뒤 설법하는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이다.

이곳 석굴의 중심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돌기둥 내부의 석굴사원이다. 하지만 나의 흥미는 자연암반 지붕을 그대로 살려 파고 들어간 곳에 서술적으로 불상을 조각한 장면들이다. 불상은 거의 초전법륜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자연석굴에서 볼 수 있는 친연성이 서려있다. 이와 같이 인도대륙에는 약 1천2백 개의 동굴사원이 있는데 데칸고원 일대에 1천개 정도로 밀집되어 있다니 유독 이곳에 바위산이 많은 탓이겠다.

현장에서 먹을 풀어 석굴의 신비와 장쾌함을 붓질하는데 하늘연꽃 뻘라스가 한들한들 땅에 먹그림자를 드리운다. 과거의 유산과 현실의 투영! 꽃은 생명으로, 석굴은 정과 망치를 든 옛사람의 영혼을 깨우며 나툰다.

여기 어느 곳엔가 혜초스님의 숨결이 남아있지 않을까. 한 구도자의 서원은 모두를 숙연케하고 끊임없이 순례객을 부르고 있다.

화첩을 덮고 둘러보니 석굴은 23개에 이르는데 관리소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다. 듣기로 지금은 승려보다는 오히려 힌두교도들이 참배하는데 그들은 사원 입구 바위 시바신상의 경배를 우선한단다. 흘러간 과거의 유산으로, 힌두교의 신앙 속에 자리잡은 불교 성지가 순례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산을 내려오는데 '와바'라는 녹색과일을 파는 여인이 사리를 입고 쭈구리고 앉아 순례객을 부르는데 일행들이 과일을 자주 사는 덕택에 밑그림을 그리는 행운을 얻었다. 다시 산치탑을 모형으로 한 건축물이 눈에 띄나 이제는 불교사원이 아님을 분명히 알겠다. 하지만 신앙은 변해도 뛰어난 조형양식은 저렇듯 새 날에 또 쓰이는가 보다. 마치 고여서 썩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